

*Communion*  
MEDITATIONS

**성만찬 명상집**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성만찬 명상집

조 동 호 지음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 Communion Meditations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서문

본서에 실린 주의 만찬을 위한 명상문들은 240여개에 이른다. 일년에 평균 20여개씩 22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이다. 이 짧은 글들은 주의 만찬 때에 명상문으로 쓰일 뿐 아니라, 설교 때의 예화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http://kccs.info>)를 통해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의 만찬 때 간략한 명상문을 사용하고 있고,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지와 같은 매체들에 은혜로운 명상문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들 명상문들이 책으로도 몇 권 출판된바 있다. 미국에서는 주의 만찬의 집례를 목회자가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좋은 샘플들이 필요하다.

본서에 실린 명상문들 가운데 미국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1987년부터 주의 만찬 때 명상문들을 사용해 왔다. 명상문을 작성하여 주보에 싣고 성도들과 함께 읽는 형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이곳에 실린 명상문들은 모두가 주보에 실렸던 것들이고, 적어도 한 번이상 성도들에게 읽혀졌던 것들이다. 필자가 직접 작성하긴 했으나 상당부분은 독서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책 소개 없이 활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창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들이 모아져 이뤄진다. 큰 틀에서 보면, 필자의 이 작은 노력은 수많은 알갱이들 속에 한 알의 알갱이로 참여하여 뿔아지고 찌져서 생명의 떡으로 거듭난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책으로 엮어 무료로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서에 실린 주의 만찬을 위한 명상문들은 신학해설을 담은 교리들과 선배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대별될 수 있다. 본서에 실린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의 선조들이다. 여기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고, 개신교 신자들도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배들도 포함되어 있다. 설교 때나 주의 만찬 때 외국인의 신앙사례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선조나 선배들의 신앙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지 모른다. 필자가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독자들의 가슴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서에 실린 모든 자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에 그대로 실려 있으며, 보드에 부착된 검색기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들을 어느 때라도 쉽게 찾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여 책으로 엮어 공개하는 이유는 아직도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본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6일  
조동호 목사

## 차례

서문 .....	3
----------	---

■ 경고/심판 ■

황색표지(고전 10:12) .....	16
빨간불(행 17:30-31, 계 14:10) .....	17
십자가는 심판의 표지(히 9:27) .....	18
최후의 심판(계 18:4) .....	19
지옥의 문(계 14:9-12) .....	20

■ 계약/언약/선민 ■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출 24:1-11) .....	22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벧전 2:9) .....	23
새로운 선민계약과 주의 만찬(벧전 2:9-10) .....	24

■ 공동체의 회복/결속/연대 ■

관계 회복(마 22:34-40) .....	26
신뢰관계의 회복(마 22:37-40) .....	26
결속(고전 12:13) .....	27
결속(고전 12:13) .....	28
연대(빌 2:5-8) .....	28
결속행위(요 13:1-8) .....	29
결속을 다지는 식사(고전 11:23-26) .....	30
공동체(고전 12:12-13) .....	31
공동체 의식(눅 9:23-24) .....	32

순수한 공동체(고전 5:7-8) .....	33
통(通)하라(고후 5:18-19) .....	34

■ 구원/속죄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 .....	36
너무 가혹한 빛쟁이(마 18:23-34) .....	37
바이러스(히 13:10-16) .....	38
영적 바이러스(엡 5:18) .....	39
불사의 능력과 지혜(고전 1:23-24) .....	40
생명의 신비(시편 8:1-9) .....	41
죽음의 해독제(히 13:10-16) .....	42
충전 부싯돌(고전 1:22-24) .....	43
속전(딤후 2:6) .....	44

■ 그리스도인의 삶 ■

그리스도의 삶을 닮자(고전 11:1) .....	46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눅 23:34) .....	47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 20:20-27) .....	48
저는 이 세상군대의 병사가 아니라...(계 2:10) .....	49
땅의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주님을...(마 6:24) .....	50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2-24) .....	51
위대한 변화의 능력, 믿음(마 13:31-33,44-46) .....	52
짐승의 표(계 13:11-13) .....	53
하나님의 침묵(막 15:34) .....	54

■ 복덕방/선물 ■

선물(엡 2:8) .....	56
신의 선물(엡 2:8) .....	57
신(神)의 제물(엡 2:8) .....	58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마 28:19-20) .....	59

### ■ 십자가의 길 ■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눅 9:23) .....	62
닭이 우는 시간(마 26:74) .....	63
변절자의 변명(계 2:10) .....	64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교훈(고전 1:18) .....	65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눅 22:32) .....	66

### ■ 예배/제사/감사 ■

감사(롬 6:22-23) .....	68
믿음(롬 10:9) .....	68
예배의 목적(행 2:42) .....	69
예배의 영적 행위(롬 12:1-2) .....	70
제사(롬 3:25-26) .....	71
주의 만찬 예배의 역사성(롬 6:6-11) .....	72
주의 만찬 예배의 의미(고전 11:23-26) .....	72

### ■ 은혜/사랑/용서 ■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사 1:18) .....	74
구속(救贖)의 은혜(롬 3:24) .....	75
그리스도의 은혜(롬 3:24) .....	76
부성애(父性愛)(요일 3:1) .....	77
세 가지 모습(롬 5:8) .....	78
아가페의 사랑(요 3:16) .....	79
원수를 사랑하라(마 5:43-44) .....	80
은총(엡 2:8) .....	81
조상매(롬 3:26) .....	82
천하보다 귀한 영혼(마 16:26) .....	83
하나님나라 시민권의 개념(엡 5:1-2) .....	84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사 53:3-5) .....	85

해원병(요 6:48) ..... 86

■ 축복/축제 ■

승리의 합성(계 7:9-10) ..... 88  
 '이미'와 '아직'(롬 8:18-23) ..... 89  
 장벽을 허문 십자가의 죽음(히 10:19-20) ..... 90  
 희망의 축제(고전 10:1-4) ..... 91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개념(엡 5:1-2) ..... 92

■ 인물 - 한국 가톨릭교회 ■

조선순교성인들의 특징(사도행전 1:8) ..... 94  
 조선성인들의 순교시기, 형태 및 장소(디모데후서 3:12). ..... 95  
 나라에도 주(主)가 있는데...(누가복음 12:2-5). ..... 96  
 인간의 마음은 영명한 상제천의 소재처(고전 2:1-16) ..... 97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여(요 12:50) ..... 98  
 이 고통의 맛이 비록 쓰고 견디기 어려워도(히 11:33-40) ..... 99  
 순교는 못난 자식을 참되고 보배로운 자식이...(히 11:33-40) ..... 100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막 8:35) ..... 101  
 구세(救世)의 양약(良藥)(롬 8:11) ..... 102  
 상복과 박해(눅 9:23) ..... 103  
 배교를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히 11:35-38) ..... 104  
 이제라도 천주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히 11:33-40) ..... 105  
 상민들까지도 다 침을 뱉는 터라(히 11:33-40) ..... 106  
 천주가 무엇이나?(요 20:29) ..... 107  
 신분이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이나(벧전 4:19) ..... 108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으니(고후 4:7-11) ..... 109  
 대들보가 집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눅 21:16) ..... 110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빌 3:20) ..... 111  
 순교는 하늘나라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벧후 1:0). ..... 112  
 천주님은 만물의 임금이시오(약 1:12) ..... 113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임금을 보고야 믿사오리까(요 20:29) .....	114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갈 1:4) .....	115
사방에 궁핍이요 사방에 투쟁뿐입니다(히 11:35-38) .....	116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벧전 1:6-9) .....	117
반천련: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고후 8:19) .....	118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히 11:35) .....	119

### ■ 인물 - 한국 개신교회 ■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요 12:24) ..	122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행 4:29-30) .....	123
예수님씨를 밋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요 1:12 ) .....	124
등잔의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음 같으며(요 15:1-7) .....	125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막 16:16) .....	126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됨을 의미한다(몬 1:11) .....	127
그 말이 참으로 풍설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보고(행 17:11) .....	128
관리와 양반 신사들 사회에서 기독교 믿음을...(빌 4:22) .....	129
육적으로는 부모지간, 숙질지간이지만 영적으로는...(벧전 3:21) ·	130
예수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마 18:23-35) ..	131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빛은 아니 값아도 되네(마 18:23-35) .....	132
진실한 신념으로 상제를 신봉하고(마 22:35-40) .....	133
종교는 기이한 행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전 4:20) .....	134
옥식(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요 6:55) .....	135
유배지에서 깊어진 야소신앙(벧전 1:18-19) .....	136
공자는 당신의 스승,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요 20:17) .....	137
무삼회를 조직하더라도 예수님교에 다니는 것이...(몬 1:11) .....	138
별과 나비 같은 곤충도 옛 껍질을 벗을 때 새로운...(요 3:3) .....	139
그 가는 길목마다에 해타라는 짐승이...(계 2:3) .....	140
장님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전 1:22-24) .....	141
이제는 천주학군이라하여 죽인다 해도...(에 4:16) .....	142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빌 2:5-11). .....	143

하느님의 편에 서서 힘을 합친다면 조선이 해방될...(수 1:1-9) ..	144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울디까?(고전 1:24) .....	145
수갑찬 손에 콩밥 한궤기를 들고...(계 13:10) .....	146
인생문제 국가문제의 해결은 오직 생명의 종교인...(요 1:4) .....	147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 아니하다(마 10:8) .....	148
육신만 나고 영혼이 나지 못하면 이는 신자가 많ियो(요 3:5) ..	149
기독교는 영생을 가르쳐 주었다(요 6:53-58) .....	150
따라보겠소. 그리고 끝장을 보리라. 만약에...(계 2:10) .....	151
기독교와 교육이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딤후 3:16-17) .....	152
피와 눈물이 엮키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벘전 4:8) .....	153
지옥즉천당(地獄卽天堂)(행 16:31) .....	154
예수님 형님께 고하옵내다(시 86:3) .....	155
성경이 사람의 맘을 곧쳐 다시 만드는 능력이(딤후 3:14-17) .....	156
눈물과 땀과 피(히 11:1) .....	157
한국 교회의 '후스'들(계 2:10) .....	158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눅 9:23) .....	159
진리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계 13:10) .....	160
천황이 높으나? 예수님이 높으나?(계 14:12) .....	161
내게는 신앙이 문제(마 4:12-20) .....	162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를 조선 위에(딤후 3:16-17) .....	163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민족사랑(에 4:16) .....	164
엇지하야 유교에서 사람되게 못하난 것을...(마 5:17) .....	165
죄몽치는 구름 혈어지듯 안개 사라지듯...(골 1:14) .....	166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눅 19:10) .....	167
땅을 정복하라(창 1:28) .....	168
존재의 가치와 의미(창 1:3-10) .....	169

■ 인물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

나의 일생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리라(눅 14:26) .....	172
그리스도는 생명이다(요 11:25-26) .....	173

광명한 도리를 내 마음 속에 비취게 하사(딤후 3:15-18) .....	174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갈 1:8-9) ..	175
나는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눅 19:8) .....	176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갈 1:8-9) .....	177
예수님 믿으시오(행 16:31) .....	178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높지만, 그리스도는...(딤펴 6:15) .....	179
근본으로 돌아가자!(갈 1:8-9) .....	180
신약성서교회회복과 주의 만찬(고전 11:27-29) .....	181
교파구별이 없는 한국교회를 위해서(요 17:21) .....	182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롬 16:16) .....	183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	184

### ■ 절기 ■

제병(祭餅)과 제주(祭酒)(요 6:53-55) - 신년 .....	186
믿음의 법칙(롬 8:20-21) - 신년 .....	187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자(계 22:16) - 신년 .....	188
해원상생(마 26:26-28) - 대보름 .....	189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계 7:14-17) -삼일절 .....	190
삼일절 예배(계 7:14-17) .....	191
종려주일의 환호성(계 7:9-10, 19:11-16) .....	192
조선교회여 부활하라(빌 3:10-16) - 부활절 .....	193
아아 조선사람아 죽음에서 부활하여...(롬 6:4) - 부활절 .....	194
부활절 예배(고전 15:51-58) .....	195
부활과 봄날 .....	196
부활주일아침의 환희(마 28:1-10) .....	197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고전 15:26) .....	198
식목주간(창 3:17-19) .....	199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행 1:8) .....	200
현충일 예배(요 15:13) .....	201
교를 참 믿는 사람은?(고전 1:22-24) - 광복절 .....	202

광복절 예배(롬 6:6-7, 12-14) .....	203
백마(白馬)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계 19:11) - 광복절 .....	204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3-26) - 추석명절 .....	205
기쁜 마음으로(요 12:24-25) - 추수감사절 .....	206
추수감사절 예배(요 12:24-25) .....	207
종교개혁 기념주일(롬 12:2) .....	208
그리스도의 임재(마태복음 28:20) - 성탄절 .....	209
성탄절 예배(마 28:20) .....	210
송구영신예배(사 53:5) .....	210

■ 천국잔치 ■

사귄(눅 19:8-9) .....	212
잔치(계 3:20) .....	212
정의, 평화, 창조보전(창 3:8-20) .....	213
주님과의 식사(계 3:20) .....	214
주의 만찬의 의미(마 26:26-29) .....	215
종말시대의 상징(살전 4:16-17) .....	215
천국잔치(계 3:20-21) .....	216
천교와 헌신(시 23:1-6) .....	217
하나님의 의(요 3:16) .....	218

■ 희생/수난/대속 ■

강아지똥(롬 5:8) .....	220
값진 희생(롬 8:2) .....	221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히 13:12-13) .....	222
봉사(눅 9:23-24) .....	223
성육신(빌 2:5-8) .....	224
고난(히 13:12-13) .....	224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 .....	225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1:12) .....	226

십자가(히 10:10-18) .....	227
십자가(롬 3:26) .....	228
성취(히 11:1-2) .....	228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23-24) .....	229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 .....	230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빌 2:5-8) .....	231
예수님의 삶의 방식(빌 2:5-8) .....	232
예수님의 운명시간(마 27:45-46) .....	233
자기 낮춤(빌 2:5-11) .....	234
자기부정(빌 2:5-8) .....	235
자기 비움(빌 2:5-11) .....	236
자기 십자가(눅 9:23) .....	237
창조와 부활(창 1:1) .....	238
피(히 9:11-22) .....	239
화목제물(요일 4:10) .....	240
희생(1)(마 5:13-16) .....	241
희생(2)(롬 12:1-2) .....	242



■ 경고/심판 ■

### 황색표지(고전 10:12)

황색표지는 경고표시 또는 조심하라는 표시입니다.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란불 다음에는 반드시 빨간불이 켜집니다. 위험하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경고표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로만 알지, 그것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란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매달린 십자가가 무서운 형틀이요 형벌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아가페)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정의의 표시요 준엄한 심판의 표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황색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의 삶이 죽음이란 준엄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천국에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소망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경고표시입니다.

우리가 떼고 마시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대속의 사건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표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의 표시가 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 복된 삶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빨간불(행 17:30-31, 계 14:10)

지금 세계경제는 빨간불 신호 앞에 멈춰 선 상태입니다. 빨간불은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빨간불이 국가경제뿐 아니라, 가정과 건강과 신앙에도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이 예고도 없이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먼저 황색불이 켜집니다. 황색불은 조심하라는 경고표시입니다. 황색불이 켜지면 반드시 멈춰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멈춰 설 줄을 모릅니다. 황색불의 경고를 무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황색불 의식부족이 결국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게 합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팀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자, 바울은 아테네의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 철학자들에게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31절의 말씀은 그 때 행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의 이 선포는 절대 위험을 알리는 하나님의 적색경고였습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 불행히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철학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장차 마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계 14:10).

## 십자가는 심판의 표지(히 9:27)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의 짓값을 묻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미국전투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돌아갔습니다. 전단지에는 “히로시마 시민에게 고함! 모든 시민은 8월 6일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선전이다. 천황은 늘 우리 황군이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더군다나 일본본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류는 “그때 가보면 알겠지”라며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셋째 부류는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보다 강하다. 미국이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전단지를 뿌렸겠는가?”라며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이 전단의 내용대로 대피를 해서 살아남았고, 그 이외의 사람 30여만 명은 단 하루 만에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에 의해 살상 당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믿고 따랐던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확률이 반밖에 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짓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 최후의 심판(계 18:4)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제단 뒤의 넓은 벽에 8년에 걸쳐 완성 시킨 세계 최대 최고의 벽화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벽화는 삼층 구도로 되어 있는데, 상층인 밝은 하늘나라에는 중앙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구원받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그분 주변을 옹위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속한 다소 어두운 중간층에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리와 하늘로 올라가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아래층은 지옥과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왼쪽에 속한 무리는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오른쪽에 속한 무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최후의 심판」 중심부에는 분노에 찬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듯한 표정으로 거만한 자들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이 거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옥의 사자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 하층부에 지옥으로 가는 망령들을 배에 태우고 온 카론이 그들을 몰아쳐서 지옥의 재판관 미노스에게 보내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것은 “카론은 무섭게 불타는 눈초리로, 망령들을 배 안으로 불러 모아 머뭇대는 자는 가차 없이 노를 들어 내리쳤다”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의 한 소절을 소재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 오른쪽 하층부 상단에는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어 신실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에 그려진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곁에 있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줍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최후심판 직후에 주님과 더불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그 감격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 지옥의 문(계 14:9-12)

프랑스 정부가 1880년에 신축될 예정이었던 파리장식미술관의 문을 오귀스트 로댕(1840-1917)에게 제작케 하였습니다. 로댕은 이후 죽을 때까지 이 문의 제작에 매달렸는데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된 이 명작이 「지옥의 문」입니다. 로댕은 이 문을 단테의 『신곡』 「지옥의 문」에 집중하여 잘 알려진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넘는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체로 「최후의 심판」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지옥의 문」 상단에 세 사람의 망령들을 세웠는데, 왼쪽에 고뇌하는 아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미터 높이의 거대한 양쪽 문설주에 새긴 조각들은 대체로 위(천국)를 향하고 있고, 두 문쪽에 새긴 조각들은 아래(지옥)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문쪽 위를 가로지른 상인방과 문들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놓였는데, 이 자리가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차지한 곳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의 운명과 타락한 문명을 생각하며 슬픔에 찬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에는 죄목에 따라 들어가는 9개의 계곡이 있는데 로댕은 왼쪽 문쪽에 음모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제9계곡과 정욕의 범죄자들이 가는 제2계곡 그리고 오른쪽 문쪽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묘사한 「허무한 사랑」과 「입맞춤」 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의 문」 상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지나면 우환의 도시가 있다. 나를 지나면 영원한 고난이 있다. 나를 지나면 멸망의 백성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지옥편 3:1-9).

계시록 14장 9-12절은 지옥의 문에 들어서려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괴롭을 받아 밤낮 쉬을 얻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인내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지옥의 문을 피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 계약/언약/선민 ▣

##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출 24:1-11)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나 협약 또는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삼후 3:20). 쌍방 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식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피로써 맺은 계약을 구약, 침례식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계약이 신약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신약 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벧전 2:9)

출애굽기 19장 5-9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유명한 선민 또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굳게 약속한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백성, 일명 신약의 선민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서약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즉 우리를 그의 피로 새 언약의 선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선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새로운 선민계약과 주의 만찬(벧전 2:9-10)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나 협약 또는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삼후 3:20). 쌍방 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출 24:1-11).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고, 언약의 피뿌림을 받았으며,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출 19:5-6)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舊約)이요 이스라엘의 선민계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식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新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선민계약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새로운 선민계약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10)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공동체의 회복/결속/연대 ■

### 관계 회복(마 22:34-40)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좌우로 인간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두 계명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뿐 아니라, 당시의 종교 사회 정치적 병폐와 부조리에 맞서 도덕성 회복을 외치셨으며,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으셨고, 수평으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호불신과 증오의 간격에 디딤돌을 놓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은 이 두 계명에 대한 외형적 상징이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두 계명을 신명으로 받드는 자들입니다.

### 신뢰관계의 회복(마 22:37-40)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강령(綱領)과 예전(禮典)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으뜸이 되는 근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성례전은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강령과 두 가지 예전은 관계와 신뢰라는 말로 특색 지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인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고리 즉 신뢰로써 이루어집니다. 세례의식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단회(單回)적 의식이며, 주의 만찬은 회복된 관계를 재확인하는 다회(多回)적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남편과 부인 사이의 신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신뢰, 동료와 동료사이의 신뢰, 이웃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신뢰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된 나눔의 시간입니다.

## 결속(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2:13).

이 말씀은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을 마셨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나누신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몸 교회공동체가 매주일 모여 주의 만찬예식을 통해서 한 덩어리의 빵을 쪼개어 나누어 먹는 것은 구성원 간에 일치와 결속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쪼갬과 나눔의 예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웃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주의 만찬의 쪼갬과 나눔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결속, 배우자와의 결속, 부모 또는 자녀와의 결속, 고용주 또는 고용인과의 결속, 동료와의 결속, 이웃과의 결속, 자연과의 일체감을 위한 신뢰회복에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의 해소, 분배정의의 실현, 지역, 인종, 성별간의 갈등 해소, 생태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피 흘리신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몸 교회공동체가 매주일 모여 주의 만찬예식을 통해서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의의 표시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실행에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전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결속(고전 12:13)

한 공동체가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구성원들 간에 일치와 결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의 나눔과 실천의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합하게 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이웃과 연대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주의 만찬의 나눔은 하나님과의 결속, 부부사이의 결속, 부모와 자녀사이의 결속,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결속, 동료와 동료사이의 결속, 이웃과 나 사이의 결속, 인간과 자연과의 결속을 통한 신뢰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의 해소, 분배정의의 실현, 지역적, 인종적, 성적 갈등의 해소, 생태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실현 할 수 있게 합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연습이며, 지극히 작은 자와 연대하고 동일화시켜 나가는 훈련입니다.

### 연대(빌 2:5-8)

주의 만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필수조건인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터득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심으로서 자기를 포기 하셨고, 인간들과 연대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과 세리 또는 창녀들과도 함께 밥상공동체를 이루시며,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셨고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 정신을 본받도록 주의 만찬을 행하여 지킬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화해와 나눔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 결속행위(요 13:1-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의 만찬예식은 결속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는 ‘너와 나’ 곧 상관관계의 결속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고 노래한 것처럼, 또 예수님처럼 구성원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술잔을 치켜들고 “위하여”를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해도 그 속에서 결속이 있을 리 없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을 베고 피로써 의형제를 맺는다 해도 진정한 결속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보부상(裸負商)들은 초면이라도 오다가다 만나면 반드시 바지를 바꿔 입었고, 큰 바가지에 막걸리를 가득 담아 입을 대어 돌려 마셨습니다. 결속을 다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주의 만찬 때에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 돌려 마시는 습속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들에서는 여전히 한 잔(one cup)의 포도주를 돌려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위는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을 다지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식탁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반드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뒀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눔으로써 결속을 다지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상관관계의 결속의 강도를 높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신자들 또 성도들 간의 진정한 결속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결속을 다지는 식사(고전 11:23-26)

역사적으로 연대감 속에서 단결을 과시했던 단체로 보부상(裸負商)이 유명합니다. 일사불란한 단결력과 조직력이 국가 대사가 있을 때마다 활용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주에 피난간 임금과 일선과의 통신 및 군수품 수송을 맡았던 것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생판 낮이 선 보부상이라도 오다가다 만나면 반드시 입었던 바지를 바꿔 입고 갈 길을 갔는데, 이것은 같은 옷을 더불어 입음으로 해서 동포의 정을 돋우는 결속의 행위였습니다. 예전에 음주 습속 가운데 대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부상들의 결속의 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부상들은 모였다 하면, 술을 마셨는데 반드시 큰 바가지에 술을 가득 담아 돌려 마셨다고 합니다. 한잔 술에 더불어 입을 대어 돌려 마시는 것은 원시적인 결의 습속으로서 일심동체를 다지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주의 만찬 때에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 돌려 마시는 습속이 있었고, 지금도 원 컵(one cup)을 주장하는 교회들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떠했던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 상호간에 결속을 굳게 다지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고 말겠다는 결의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고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고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속과 결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공동체(고전 12:12-13)

우리 민족이 한술밥을 먹고 정리(情理)를 다지듯이 한잔 술을 나누어 마시고 의리(義理)를 다졌으며, 그 공동체 운명을 확인하는 의식용(儀式用) 술잔이 대포요, 대포에 담은 의식용 술은 막걸리이게 마련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은 군신(君臣)이 한잔 술을 번갈아 마시며 동심일체를 다졌고, 각 관청마다 한 말들이 대폿잔을 만들어 두고 돌려 마시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사이를 대포지교(大砲之交)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잔을 들어 마시며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공동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례도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확인하는 의식이요, 동심일체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고전 12:12-13).

## 공동체 의식(눅 9:23-24)

이규태의 『한국인의 밥상문화』 제2권 308-309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따라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분명히 없으면서도 엄연하게 있는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거나 주고받거나 약속하거나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무(無)를 유(有)로 구상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이 한술밥을 더 붙여 먹고 한잔 술을 더 붙여 마시는 공식공음(公食公飮)이다.

일심동체를 다지는 공식공음은 살아 있는 사람 사이뿐 아니라神明(神明)이나 죽고 없는 조상과의 사이에도 이루어졌다. 동제(洞祭)나 기제(忌祭)나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제상에 올랐던 제주와 제수를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 절차가 바로 신인(神人)·조손(祖孫)을 잇는 결속 수단인 것이다.

이규태의 다른 글에도 보면, 일심동체를 다지는 공식공음은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밥상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심동체를 다지는 근본이요 기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차려졌고, 개인상이 아니라 공동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운명체로써 그 공동운명에 개인의 개성이나 욕심이나 기호를 희생하면서 순응해야 했습니다. 밥상에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먹으면 부덕의 소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식사문화는 가족 공동체 의식에의 자기 소멸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소멸의 희생정신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밥상에 동참하여 그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자신은 소멸되어야겠고,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받아야겠으며, 자신은 희생되어야겠고, 공동체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 순수한 공동체(고전 5:7-8)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누룩 없는 순수한 반죽, 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11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 이 행위는 신앙공동체 안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또는 비순리적인 언행이 제거되었고, 제거되고 있고, 또 제거되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참된 교제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자신 속에 있는 토색(남을 속여 먹는 것)의 누룩을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눅 19:8). 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10).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스스로 제거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주님과 우리,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나누는 진실한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순결하고 사랑스런 백합화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통(通)하라(고후 5:18-19)

통신학교를 상징하는 견장마크를 보면, “E.G.O 하라”는 글자가 수 놓아져 있습니다. 이는 통신의 필통(必通), 곧 반드시 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11통신여단에서도 단가에 “신속히 통하라 하늘 땅 끝까지”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려진 그림 가운데 주인 잃은 땅에 한 명의 통신병이 죽어서 누워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죽은 병사는 포탄으로 끊어진 전화선을 수리하기 위해 파견됐던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탄환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비록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곳에 누워있지만, 그의 양쪽 손에는 끊어진 전화선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의미심장한 한마디, “통하여”(through)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군인의 충성심을 표현한 이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손을 벌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 주신 대속사역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난 2000년간 인간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다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끊어진 길을 죽음으로써 연결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에 “그가[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여 본받고, 감사함으로, 시기와 반목으로 상호비방하고 미워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양손 벌려 화목의 사슬을 잇는 하나님의 충성스런 군사임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복음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원/속죄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

김준곤 목사의 「예수님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밀 브루너는 말했다. 즉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신앙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곧 나의 죽음이며 나의 부활이라는 과거의 확실한 극점을 회고하는 것이다. 신앙의 영원한 기초는 거기에서 출발한다. 우리들 신앙의 절대보장이 곧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는 2천 년 전 골고다 산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성령의 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중에 영원한 미래를 믿고 바라본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적 사건이며,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추도예배일뿐 아니라, 현재구원에 대한 감사예배이며,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는 기원예배입니다.

## 너무 가혹한 빚쟁이(마 18:23-34)

조선일보 사설에 '너무 가혹한 빚쟁이'란 제목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나 기업, 은행, 지자체 등이 외국에서 빌려 쓴 돈이 국민 일인당 500만원 꼴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 갚아야 할 외채가 68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고금리를 주고 빌린 단기외채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은 지금 한국이 국제신인도가 낮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빌린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돌려주는 대신 정부로 하여금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10-13%의 금리는 정상 금리의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원리금조차도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때 하나님에게 많은 죄의 빚을 지고 부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단순한 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빚을 외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탕감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IMF한파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장차 당할 한파는 IMF에 비교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때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또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바이러스(히 13:10-16)

인간은 가끔씩 병에 걸린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다.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변종에 대한 우려도 높다.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아직도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일시적인 억제효과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들은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퇴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또한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진다. 조류나 짐승을 통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컴퓨터가 개발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현대인들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기술을 사랑하는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 유통시킨다. 종류가 셀 수 없고, 피해도 엄청나다.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은 남의 괴롭음에 쾌감을 느끼는 사디스트이거나 해킹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강도들이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여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놓아 남에게 퍼뜨리게 한다. 기도와 말씀이란 백신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는 치유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방화벽을 갖추고 있고, 예방과 치료를 자주 시행하는 사람이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영혼에 수많은 악성 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간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시키지 않고는 심겨진 악성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것과 같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여 무너뜨리는 악성 바이러스를 포맷시키는 근본 치유책이다.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해독제를 맞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 영적 바이러스(엡 5:18)

세포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는 생물 바이러스가 있듯이, 컴퓨터에 침투하여 파일을 망가뜨리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듯이, 영혼에 침투하여 파멸시키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다. 영혼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증식시키는 해커는 사단이다. 해커를 막는 강력한 방화벽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영혼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주의 만찬으로 영적 백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한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몸과 영혼과 컴퓨터를 망가뜨린다.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단이 심어놓은 악성 바이러스들로 가득 차게 된다.

세포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컴퓨터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성격이 다 같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라 불리는 세균과는 달리 개체증식을 위한 자체 공장 없이 틀만 가지고 남의 공장에 침입해 개체를 증식시킨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 속에 침투하여 자신과 동일한 바이러스들을 증식시키면서 숙주 세포들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감기, 홍역, 수두, 천연두, 광견병, 소아마비, AIDS, 심지어 일부 암까지 발병시킨다. 일부 바이러스는 백신접종과 청결유지를 통해서 예방될 수도 있지만, 항생제는 그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도 죽이지 못한다. 컴퓨터 바이러스에는 트로이 목마와 웜이 있다. 트로이 목마는 숙주인 컴퓨터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에 감염 파일을 건들지 않으면 괜찮지만, 웜은 네트워크를 타고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접속만 해도 따라 들어오는 무서운 악성코드이다. 신체나 영혼이나 컴퓨터나 요즘은 근처에만 가도 전염이 된다.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이 전염병을 순식간에 퍼뜨리듯이, 네트워크의 발달이 웜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퍼뜨리듯이, 사단은 대중매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킨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해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주의 만찬은 영적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시키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예식이다.

### 불사의 능력과 지혜(고전 1:23-24)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불사(不死)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역설(paradox)이 먼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역설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사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주의 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를 섬긴 이그나티우스 주교는 97년경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일곱 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그는 주의 만찬을 일컬어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불사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나 주의 만찬에 불사의 약효가 있다는 말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불사(不死)의 영약(靈藥)이 되고, 죽음의 독을 푸는 해독제가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케 함으로써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죄를 멸하여주시고, 죄의 값인 죽음을 면케 하시고, 죄의 억압에서 풀어주셨으며,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생명의 신비(시편 8:1-9)

인간은 한 개의 세포(수정란)로 시작된다. 이 하나가 계속 2개, 4개, 8개로 분화되면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진다. 수정 때는 한 개였던 세포가 태어날 때는 약 3조개, 성인이 되면, 70조개가 된다.

한 개인의 특성은 바로 이 한 개의 세포(수정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속에 모든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자와 난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갖지만, 수정이 된 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하나가 부족해도 정신지체장애자가 되고(터너 증후군), 하나가 많아도 마찬가지로(다운증후군). 임신이 이뤄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유전자에 추가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23쌍의 염색체 4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속에는 10만개의 유전인자와 약 30억 개의 DNA염기쌍이 있다. 이 염기배열순서에 따라 인종, 체질, 성격, 성, 키, 피부색, 생김새 등의 생물학적 형질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유전자는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현대과학은 이 30억 쌍에 이르는 염기배열구조를 판독할 수 있고, 4000여 가지의 질병이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가까운 장래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나쁜 유전형질을 좋은 것으로 교체시킨 완벽한 맞춤형 아기, 즉 인간이 제조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윤리문제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인간복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에서처럼, 창조주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 사이에는 항상 한 치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 한 치는 피조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영원한 숙명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만한 인간들에게 줄어질 것은 오직 재앙뿐이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한계를 알고 겸허히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 죽음의 해독제(히 13:10-16)

유대인의 식탁은 제단에 가깝습니다. 특히 저녁식사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사가 너무 종교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막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법에 따른 '코쉬'(정한) 음식만 먹을 뿐 아니라, 고기제품을 우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고, 고기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우유제품에 쓸 수 없고, 반대로 우유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고기제품에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케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깨끗케 하는 것은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원인 죄악을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결코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의 만찬은, 안디옥교회를 섬긴 이그나티오스 주교가 에베소 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불사(不死)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paradox)이 먼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역설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사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고 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충전 부식들(고전 1:22-24)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식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알몸으로 내팽개쳐진, 어둠 속에 버려진 주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찮은 성냥으로는 꺼져가는 생명에 소망의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무들은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고 있습니다. 한 때 생명줄이었던 수분을 빼버렸고, 치장했던 너울도 벗어 던졌습니다. 제 몸 하나 가릴 것 없는 뼈만 앙상한 알몸뿐입니다. 나무는 이렇듯이 양팔 벌린 추한 몰골이지만, 그 추한 모습 속에 생명을 부활시킬 충전부식들이 있음을 김남조 시인은 보았습니다.

2천 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나무십자가는 생명력도 없고 불품도 없고 늘어진 시신을 매달고 있는 풍상에 찢긴 허수아비 같은 몰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험한 몰골 속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파 속에 팽개쳐진 인간들 속에, 어둠 속에 버려진 주검 같은 존재들 속에, 생명의 불,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충전부식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속전(딤후 2: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救贖)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말에 구속의 의미는 '속박(拘束)'의 의미도 있고, '해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악의 속박에서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게 노예상태 즉 비인간화의 상태에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주시게 위해서 지불된 속전(贖錢)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노예가격인 은전 삼십 세겔에 팔리신 것은 이 속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상징인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이 속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반드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희생과 투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고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 ▣

## 그리스도의 삶을 닮자(고전 11:1)

개신교는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행위로써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된 의로운 자' 곧 성자(聖者)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간주된 성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이외에도 행위로 된 성자들을 시복시성(諡福諡聖)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시성성(諡聖省)의 추대로 교황이 내리는 '시복'은 덕행이 뛰어난 신자에게 '복자'(福者, beatification)의 칭호를, '시성'은 피의 순교자 혹은 고행순교자에게 '성인'(聖人, sainthood)의 칭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복시성의 특권을 가진 교황일지라도 정작 자신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 1,000년간 성인에 오른 교황은 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교황청에서는 2005년 4월 2일에 선종(善終)한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사랑으로 감쌌기 때문이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의 강제징집을 피해 지하실에 숨었고, 숨어서 신학교에 다니는 등 순교자적 고난을 겪었으며, 파킨슨병을 앓은 등 고통 중에서도 의연함과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였고, 종교간, 민족간 화해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복자가 되려면 한 가지 기적이, 성인이 되려면 두 가지 기적이 그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교황청에서는 그의 고귀한 삶 자체를 기적들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간주된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갈 때, 교황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시복시성하신 진정한 복자와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권면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삶을 닮겠다는 다짐을 갖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눅 23:34)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스테반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300년 뒤에 온 로마제국이 변하여 기독교국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의 기도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여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1948년 10월 27일에 공산당원에게 살해되어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는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와석종신(제명에 죽는 것) 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신애(하나님의 사랑)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이 기도는 대한민국이 기독교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삶을 본받아 살겠다는 다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  
20:20-27)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톤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 2명의 총기난사로 범인들을 포함하여 최고 2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범인 가운데 한 명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침입하여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17세의 캐시 버넬(Cassie Bernall)에게 연기를 뿜고 있는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지?" 이때 버넬은 살인마가 신앙인들을 골라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였고, 살인마는 방아쇠를 당겨 버넬을 총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물음, "너, 하나님을 믿지?"에 담대하게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대답한 후 목이 베이고 질식사당하고 감옥에서 굶주려 죽은 순교자들이 19세기에만 10,000여명에 이르고, 6.25때 공산군과 지방빨갱이들에 의해서 죽창이나 농기구등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9개월 된 태아를 포함한 25명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공산군들에 의하여 총칼과 죽창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시대에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숙연한 결의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굳게 믿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높은 벼슬자리를 각각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으려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막 10:38).

## 저는 이 세상군대의 병사가 아니라...(계 2:10)

세무공무원이었지만, 병사였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22세가 된 막시밀리아누스는 병영세습제로 인해서 신체검사장인 병영에 나가 검사관인 군단장 겸 총독인 디오에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검사를 할 테니 옷을 벗어라. 병역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남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키를 재라. 5페데스10옹키아(약 150cm)입니다. 합격. 로마군 병사의 표시인 배지를 주어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입대해. 죽고 싶지 않으면. 입대할 수 없습니다. 목을 자르고 싶으면 자르십시오. 저는 이 세상군대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군대의 병사입니다.... 병사의 배지를 받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배지를 가진 몸입니다.... 꿈쩍 못하게 붙잡아서라도 배지를 달아줘. 절대로 배지를 달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저는 목에 구리조각을 걸고 다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신의 아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인도자인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무래도 좋으니까 배지를 받고 병역을 시작해. 계속 거부하면 사형이 기다릴 뿐이야. 몸은 죽어도 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미 제 주님의 병사가 된 이상, 다른 군대의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막시미아누스, 콘스탄티우스, 갈레리우스 황제의 직속 군대에도 기독교인 병사는 있어. 하지만 그들도 병사로서 국가에 봉사할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아. 그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인 이상 나쁜 짓에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악타 마르티룸(Acta Martyrum, 『순교자 행전』). 주후 295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속주의 도시인 테베스테에서 일어난 사건>

결국 막시밀리아누스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들은 그는 “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이상 카이사르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막시밀리아누스의 순수한 신념이자 충성심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바치는 그의 신심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토록 합시다.

**땅의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마 6:24)**

임진왜란(1592-1598)때 전쟁고아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 어린이 중에 일본에서 성녀로 추앙되는 ‘오다 줄리아’(1590?-1651)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이 대영박물관과 로마에 있는 예수님회본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줄리아는 한반도에 출병한 일본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少西行狀)의 젊은 딸인 마리아 밑에서 신앙인으로 양육되었으며, 십대 말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녀로 들어가 쇼군의 총애를 받았지만, 일신의 안일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동정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도쿠가와와의 수청과 배교 요구를 거부하다가 1612년 4월 20일 오오시마(大島)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니이시마(新島)로 옮겨진 후에, 다시 무인도인 고즈시마(神津島)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점점 더 외딴 섬으로 옮겨진 이유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감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테우스 코로스’ 신부가 1612년 예수님회에 보고한 내용에 다음의 글이 있습니다.

“쇼군은....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줄리아가 배교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쇼군에게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나는 그에 걸맞은 봉사를 할 생각이지만, 그 이전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진리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땅의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오다 줄리아가 지키려 했던 믿음의 가치, 곧 “지금 땅의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그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2-24)

여류조각가 김효숙님이 만드신 작품, 「빛과 생명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하신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가를 자주 묵상하곤 했는데요, 「빛과 생명의 십자가」가 바로 그 점을 제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흔히들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빛과 생명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 캄캄한 새장에 갇혀 퍼덕이던, 손과 발과 옆구리와 머리에 상흔을 지닌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빛과 생명의 세계 곧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의 날개로 힘차게 차고 오르는 새 생명과 그 씨알들의 미래를 온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수치와 고통, 캄캄한 새장에 갇혀 발버둥 치으로써 온몸에 상처를 남기듯이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남에게까지 생채기를 남기는 불쌍한 영혼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의 일에서 빛에 일로, 혼돈의 일에서 질서의 일로, 죽임의 일에서 생명의 일로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이며,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얻게 될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이 승리의 월계관이 되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상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대한 변화의 능력, 믿음(마 13:31-33,44-46)

2,000년 전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로마인의 정신세계는 그리스-로마 신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물의 이름들이 거의 다 신(神)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많았던 신들, 대표적인 신들에게 봉헌된 신전(神殿)들, 그리고 그들의 신심(信心)이 표현된 문화예술작품들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스-로마 사람들의 98퍼센트가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며, 그리스는 동방교회, 로마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란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작은 키에 벗어진 이마, 매부리코에다 맞닿은 양미간 그리고 벌어진 다리를 가진 시세말로 일짱이나 몸짱과는 거리가 먼 바울이란 한 사람의 희생적인 전도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선교여행 때, 이때는 죄수로서 네로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처지였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로 일컬어지는 가톨릭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는 동방교회로 알려진 그리스정교회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는 서방교회인 가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되어져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초기 300년간 불법종교였고, 로마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친 황제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종교로 인정하였으며,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로마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믿음이 갖는 변화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중한 믿음의 가치,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집승의 표(계 13:11-13)

로마제국이 기독교에 가한 박해들 가운데 가장 극심했던 것은 데키우스(Decius, 250-251)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명기한 증명서 곧 '리벨루스'(libellus, 250)를 발행키로 결정하였는데, 발급대상은 모든 로마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카라칼라의 칙령(212)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250년에 선포된 데키우스 칙령에 따라서 도시와 마을마다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 불려나간 시민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의 형상에 참배하고 그 앞에서 연기를 내고 있는 재워에 자기가 가져온 향료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불태웁니다. 그리고 향료가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자기는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제12권, 231-232쪽).

현존하는 파피루스 증명서(리벨루스)에 의하면, 이집트 테아델피아(Theadelphia)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인과 그녀의 딸이 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 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는 그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하다. 황제 케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퀴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파우니 27.”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교하고 리벨루스를 받겠습니까? 배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걸겠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물음에 마음에 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침묵(막 15:34)

한 놀란(Han Nolan)이 쓴 『소녀의 눈동자』를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몸부림치며 사선을 넘나들던 ‘마텔’과 ‘샤나’가 동료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걱정만 날이 오기도 전에 발각되어 화장터에 끌려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면서도, 예배에 필요한 초와 빵과 성냥을 마련하는데 성공합니다. 천둥과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밤, 점호를 마친 그들은 땅 속에 묻어뒀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빛이 새지 않도록 창문을 잘 가린 후에 아름다운 술 위에 빵을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서 시편 30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병들었던 ‘마텔’은 그 밤에 죽고, ‘샤나’는 수용소 관현악단에 픽업되어 나치들을 위해서 연주하게 됩니다.

박완서의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을 보면, “눈여겨보니 아주 열심히 믿거나 누가 보기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재난이나 불운이 시도 때도 없이 닥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럴 바에야 하느님을 뭇하러 믿나? 있으나 마나 한 하느님이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자 마침내 하느님이 있긴 어디가 있냐고 포악을 떨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부정의 고비를 수없이 겪고 난 지금, 적어도 하느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는 소리는 안 하게 됐다. 그동안의 어떤 몸부림도 어떤 저항도 다 그분의 뜻,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의 일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내가 애타게 도움이나 해답을 구할 때마다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남들은 계시나 응답도 잘 받는다는데 나한테는 한번도 그런 신비체험이 없었다. 그렇다고 침묵은 답이 아니었을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은 바로 침묵이었다. 나는 내 안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 복덕방/선물 ■

### 선물(엡 2:8)

우리말의 선물(膳物)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은 한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어 먹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 때문에 선물이란 말로 전환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는 복덕방(福德房)이란 바로 이 선물을 나누어주던 제물 분배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이 말이 토지나 가옥 중 개업소란 뜻으로 변해 버렸지만, 옛날의 복덕방은 각종 부락제 때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나 희생되었던 짐승의 살코기를 마을로 옮겨와 그 곳에 차려 놓고 나누어 먹던 장소가 바로 복덕방이었습니다. 곧 먹고 마심으로 복을 받고(飲福), 먹고 마심으로 덕담을 나누는(飲德) 신성한 장소가 복덕방이었던 것입니다. 선물이란 바로 신의 뜻(神意)을 나누는 분배행위요, 그 나눔의 행위는 한 집단의 결속과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신명(神命)으로 보장받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선물은 이와 같이 한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시키는 접착제 노릇을 대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받들어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복덕방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 모두가 한 운명체임을 신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 신의 선물(엡 2:8)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등불이요, 미래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 음식은 한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는 복덕방이란 바로 이 선물을 나누어주던 제물 분배소를 말합니다. 요즈음은 이 말이 토지나 가옥 중개업소란 뜻으로 변해 버렸지만, 옛날의 복덕방은 각종 부락제 때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나 짐승의 살코기를 마을로 옮겨와 그 곳에 차려 놓고 나누어 먹던 장소가 바로 복덕방이었습니다. 곧 먹고 마심으로 복을 받고(飲福), 먹고 마심으로 덕담을 나누는(飲德) 신성한 장소가 복덕방이었습니다. 복덕방에서 선물을 나누는 행위는 신의 뜻(神意)을 나누는 행위였고, 한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신의 명령(神命)으로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선물은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복덕방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 모두가 한 운명체임을 신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누는 복덕방입니다. 이 복된 예식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신(神)의 제물(엡 2:8)

우리 조상들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신(神)의 선물(贈物=gift)이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제사상의 음식이 인간이 차린 음식이고, 다분히 잘 보살펴달라는 뇌물의 성격을 띤 것이지만, 신(神)은 인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 음식을 다시 예배공동체에 내리시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 음식은 신이 내린 선물이고, 예배공동체에 대한 신(神)의 뜻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복덕방'이란 말이 바로 이 선물을 나누던 회관을 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토지나 가옥 중개업소란 뜻으로 한동안 사용되기는 했지만, 먼 옛날의 복덕방은 각종 부락제 때 제사상에 올린 음식과 살코기를 마을회관으로 옮겨와 나눠 먹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심으로 복을 받고(飲福=음복), 먹고 마심으로 덕담을 나누는(飲德=음덕) 신성한 장소가 복덕방이었던 것입니다. 복덕방에서 선물을 나누는 행위는 신의 뜻(神意=신의)을 나누는 행위였고, 한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신의 명령(神命=신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제물은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복덕방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 모두가 한 운명체임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제물(祭物) 곧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 곧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는 성찬의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누는 복덕방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마 28:19-20)

1992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 1999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2006년 롱 아일랜드 음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가수 빌리 조엘(William Martin Joel)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을 때, 열두 번째 생일을 맞은 뉴욕의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거기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한테 정말 멋진 걸 보냈다.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으나. 선물은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할 거야. 그게 무엇인지 기대해보렴.” 그날 오후 그의 딸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커다란 리본이 달린 큰 상자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상자가 워낙 커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급히 상자를 뜯었는데, 거기서 빌리 조엘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아빠의 깜짝 출현은 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성령님의 임재기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임재(presence)를 선물(present)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 곧 그분의 임재(presence)를 우리에게 선물(present)로 주십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

###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눅 9:23)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천륜을 거스르는 것이야.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냐? 당장 성경과 예수님의 초상을 버리고 조상들의 공덕을 기르거라.” 연암 박지원이 지방 장관시절 끌려온 천주교인들에게 호되게 질책했던 내용입니다.

천주교에 관용을 베풀던 정조대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즉위하자 벽파(사도세자를 무고한 당파)였던 김 대왕 대비는 1800년 11월 이후부터 정적인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시파(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했던 당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음)를 제거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 연암 박지원(1737~1805)은 벽파에 속했던 실학자로서 정조 16년 안의 현감을 시작으로 1797년 면천군수, 순조 1년(1800) 양양 부사를 끝으로 줄곧 지방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연암은 예수님을 믿는 사교가 성행하여 물들지 아니한 마을이 없었다고 한탄하였으며,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면서도 성도들이 묵석처럼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차남 박종채에게 “형벌로도 안되니 도대체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이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연암은 어느 날 곤장을 맞고 파김치가 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매가 아프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리 되느냐?” 이에 성도가 대답하였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한다’(눅 9:23) 하셨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참는 것입니다.”

조선 천주교인들이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영생을 믿었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도 주님처럼 죽기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의를 굳게 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 닭이 우는 시간(마 26:74)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미대 김병중 교수의 그림 「닭이 울다」(1988)에 화가가 직접 붙인 해설내용입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보면, “멀리서 닭이 울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본부 유물전시관에는 다 닳은 성모상이 새겨진 작은 성화판이 전시되어있다고 합니다. 1637년 일본 큐슈우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기독교금지에 반항하여, 16세의 소년 아마쿠사 시로오(天草四郎)를 대장으로 삼아 난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3대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미쯔 시대였는데, 시마바라 난을 진압한 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이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출된 기독교인들을 ‘구멍 매달기란 방법의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침묵』에 로드리고란 이름의 포르투갈 예수님회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지독하게 믿음이 강한 이 신부를 배교시키려고 이미 몇 번 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성화를 밟고 배교한 농민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거적에 말고, 양쪽 귓바퀴에 구멍을 뚫어 한 방울씩 피가 흐르게 한 뒤 좁은 구멍에 거꾸로 매달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가게 합니다. 결국 신부는 자기로 인해서 농민신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성화판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엔도 슈사쿠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 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 변절자의 변명(계 2:10)

이광수는 1919년 동경 유학생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가하였고, 1937년 독립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의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일제 말인 1939년부터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최린은 메이지대 졸업 후 신민회에 가입하였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933년 말 대동방주의를 내세우며 변절하였습니다.

최남선은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민족대표 33인중에 한 사람입니다. 체포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38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1939년 일본 관동군이 세운 건국대학 교수가 되었고, 1943년 제일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장하기 위해서 동경에 건너갔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 때 독립을 위해 투신했다가 일제말엽에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이 무렵은 교회들조차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해방의 꿈이 산산 조각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일제의 발악이 극에 도달한 때였지만, 다른 한편 일제의 멸망이 코앞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만일 수년 내에 조국광복이 이뤄질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변절이란 수치스런 일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 세 천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교회지도자들조차도 암담한 현실의 무덤에 간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상황에 처한 신앙인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해방(구원)의 기쁨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변절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최린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이었다. 첫째는 망명하는 길이고, 둘째는 자살하는 길이며, 셋째는 일본 군문(軍門)에 항복하는 길이었다. 첫째와 둘째 길을 택하지 못한 것은 늙은 부모에게 불효할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성서는 최린이 택하지 못한 첫째와 둘째의 길을 택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교훈(고전 1:18)

성공에 중독된 문화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부를 추구하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힘차게 울러 퍼지는 팡파르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값진 죽음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다는 세상풍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적 통설을 뒤집어엎고 대중의 인습적 세계관을 흔들어놓고 만 쓰나미요, 의식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며,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현 세계와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고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가장 나약한 상태임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조차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잖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가장 나약한 곳, 곧 실패의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나타났고, 죽어서 갇힌 무덤에서 부활의 축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점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제국은 황제의 후원아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팍스'(pax), 곧 '평화'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전쟁과 죽임과 착취와 탄압의 대가로 얻어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팍스(pax)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샬롬(shalom)이었습니다. 하비 콕스는 이 샬롬, 곧 평화를 "황제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진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얻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 평화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눅 22:32)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 글은 찬송가 412장의 1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배반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를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는 그의 『침묵』에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신부 로드리고를 팔아넘긴 기치지로가 찾아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만, 저같이 천성이 약한 자는 성화를 밟으라는 관리의 고문을 받으면...” 신부가 대답합니다. “그 성화 위에 나도 발을 놓았다. 그때 이 발도 움푹 들어간 그분의 얼굴 위에 있었다. 내가 수없이 생각한 얼굴 위에.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나 옥사에서 언제나 생각해 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그리고 평생을 사랑만을 베풀려고 했던 그분의 얼굴 위에. 그 얼굴은 지금 성화판의 나무판자 속에서 닳고 패어 버린, 그리고 슬픈 듯한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네가 할 일을 이루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를 밟아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이다. 네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배반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배/제사/감사 ▣

### 감사(롬 6:22-23)

주의 만찬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현실, 죄의 징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2-23)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성례에 참여합시다.

### 믿음(롬 10:9)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침례를 받은 자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흠 없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경배하도록 하셨으며,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 2:9-11).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롬 4:24; 10:9).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테이블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시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행위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 예배의 목적(행 2:42)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대의 공경과 존귀를 바치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예배의 요소들을 모두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전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바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예배가 바로 주의 만찬예식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해 힘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예배를 바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곧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자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바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으로 옛날에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 모두 예물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사는 바쳐진 예물들 가운데 필요한 만큼 주의 만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번거로워 지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예배 중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받은바 은혜에 감사예배를 바칠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함입니다. 작은 것을 바치고 큰 것을 얻는 것이 예배의 특징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보다 우리가 더 크게 보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양과 경배를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떼는 한조각의 빵과 작은 양의 포도주가 바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예배의 영적 행위(롬 12:1-2)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하나님은 신자에게 영적예배 곧 예배의 영적행위(spiritual act of worship)를 요구하십니다. 이 영적행위는 예배 중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물의 개념을 가진 영적행위를 예배 중에서 찾아봐야하는데, 주의 만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바친 분이십니다. 주의 만찬은 이 예수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영적행위인데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의 만찬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기념행위는 과거의 슬프고 기뻐했던 일을 돌이켜 회고하는 일도 고인이 된 위대한 인물의 눈부신 업적을 추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상기할 때 그들도 동일한 구원사건에 동참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거듭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거듭 새롭게 촉구할 뿐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희생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깝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 제사( 룰 3:25-26)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의 경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성전 뜰에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이고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는 바치는 자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지 않고 바치는 자가 직접 잡습니다.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가죽은 벗겨 내어 제사장이 취하고, 몸통은 제단 위에서 다 태웠습니다. 번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한 인간이 속죄를 위해 바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레 1:4). 손으로 지은 죄를 속죄 받기 위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입으로 범한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입술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실제처럼 여기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제(素祭)인 경우, 기념될 만한 것만 화제(火祭)로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었고, 속죄제(贖罪祭)의 경우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속하게 한 고기를 제외하고는(이 경우는 모두 불사름) 내장과 기름만을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으며, 속건제(贖愆祭)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和陸祭)만은 내장과 기름만을 불사르고 고기는 제사 후에 제사를 드린 자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레 1-7장). 제물을 함께 나눔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예를 돌리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식음을 통한 친교와 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구속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동참자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돈독히 한 점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만찬 예배의 역사성(롬 6:6-11)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바탕으로 한 의식이요, 그 역사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성례들이 같은 의미와 방법으로 지난 이 천년 동안 지켜져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일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로 그들 모임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주의 만찬 중심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들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재요, 그 실재는 주의 만찬입니다.

### 주의 만찬 예배의 의미(고전 11:23-26)

주의 만찬은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예배입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죄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어 놓으신 교회와 성도의 머리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도하는 기념예배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 받고, 인침 받고, 보증 받으며, 선취하여 누리고 맛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원예배입니다. 주의 만찬은 인간의 죄악성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세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섬김과 관리의 삶의 자세, 사랑과 배움의 삶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하는 헌신예배입니다. 감사와 기념과 기원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주의 만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은혜/사랑/용서 ■

###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사 1:18)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장마철입니다. 자동차운전을 하다보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어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비가 오면 와이퍼를 작동시켜 앞창에 흘러내린 물을 닦아냅니다. 만일 자동차에 와이퍼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빗길에서의 운전은 위험천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치 종종 내리는 빗물과도 같아서 일평생 우리 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우리 걸을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와이퍼를 작동시키듯이 죄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주저 말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와이퍼가 끊임없이 빗물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와이퍼로 맑게 씻겼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 구속(救贖)의 은혜(롬 3:24)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의 통용어입니다. 그 개념은 몸값 지불 즉 속전(贖錢)을 내고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대가는 고작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전 세겔 30개(노동자의 네 달 품삯)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한 몸값지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에 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권세(權勢)와 죄의 실재(實在)와 죄의 형벌(刑罰)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를 떨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이 구속(救贖)을 위한 속전(贖錢)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 그리스도의 은혜(롬 3:24)

길동이와 주님은 함께 야구시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팀과 사단의 팀이 시합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팀이 공격 중이었고, 점수는 0대0 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이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사랑이는 투수가 던진 첫 번째 공을 치고 나갔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타자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도 안타를 때렸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타자는 경건한 지혜였습니다. 사단은 팔을 휘감아 첫 공을 힘차게 던졌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구질을 흘깃 살핀 후 치지 않았습니다. 볼이었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볼 네 개를 다 걸러낸 다음 사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사단이 던지는 공에 결코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주자만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지금이 스타플레이어를 타석에 내세울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길동이는 말했습니다. "은혜가 잘 해낼 것 같지 않는데요." 사단팀의 선수들도 은혜가 타석에 들어서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단은 시합을 이긴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팔을 휘감아 공을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는 일찍이 해보인 적이 없는 힘찬 배팅으로 공을 쳤습니다. 홈런이었습니다.

주님의 팀이 이겼습니다. 주님은 길동이에게 "사랑과 믿음과 경건의 지혜가 베이스를 밟았다 해도, 그들만으로는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가?"고 물었습니다. 길동이는 "몰랐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사랑과 믿음과 지혜가 그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너는 아마 혼자 힘으로 승리를 일궈냈다고 자만했을 것이다. 사랑과 믿음과 지혜가 주자를 베이스까지 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홈을 밟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 뿐이란다.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선물이지 행위의 대가가 아니란다."

## 부성애(父性愛)(요일 3:1)

부성애가 특별히 강한 생물 가운데 큰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에 강으로 올라와 산란하는데, 수컷이 새끼를 키울 등지를 짓고 보호하고 기르는 모든 일을 책임집니다.

수컷이 구덩이를 파고 수초를 물어다가 등지를 만들면 암컷은 불과 3~4초 만에 산란을 마치고는 미련 없이 떠나 버립니다. 그러나 수컷은 등지를 떠나지 않고 침입자로부터 알들을 지키면서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여 등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오로지 알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만 8일째가 되면,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는데, 수컷은 그 새끼들이 다 자라 등지를 떠날 때까지 새끼들을 보호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등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낼 때까지 보름간을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자리를 뜨지도 않은 채 오직 새끼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붓고 큰 가시고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먹이잡이에 서투른 새끼들에게 죽은 제 몸을 먹이로 주어 살을 뜯어먹고 성어가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가시고기의 부성애보다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습니다. 이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깊이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세 가지 모습(롬 5:8)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악에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인간은 일신의 안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롬 5:8).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죄에 속박된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인간이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서 고난을 당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안의 세계나 성전의 높은 곳에 머물러 계셔서 사람들의 경배나 헌물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당해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죄악에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 남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 아가페의 사랑(요 3:16)

하나님의 아가페는 정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혼합된 사랑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정의와 사랑은 두 가닥의 철로처럼 피차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울면 정의가 웃고, 정의가 울면 사랑이 웃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없는 것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영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정의와 사랑이 만나진 곳, 정의와 사랑이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아가페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절묘한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무한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질 때는 죄의 값인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될 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연정과 같은 세속적인 사랑은 그 수가 커지면 정의의 수는 적어집니다. 그 반대로 정의의 수가 커지면 사랑의 수는 적어집니다. 그러나 아가페와 같은 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가 크면 정의의 수도 커집니다. 여기서 정의는 '정당함'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응보'를 뜻합니다. 이 응보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커집니다. 그 희생을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가인 응보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 따른 응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대가인 응보가 따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사랑은 허울뿐이요, 정의가 상실된 거짓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원수를 사랑하라(마 5:43-44)

아랍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가공할 정도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 인척에 속한 남자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지는 혈연집단을 '카르사'라고 합니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에 소홀하면 그 카르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타락하여 그 카르사와는 교역도 결혼도 기피하기 때문에 카르사간의 싸움이 종족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혈연집단끼리 이동하며 사는 사막의 유목생활이기에 종족 안전에의 연대책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이미 구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고엘 하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피의 복수자'(민 35:19)란 뜻입니다. 피의 복수자란 복수의 의무를 지닌 가장 가까운 근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같은 동해상해법입니다. 가해자에게 동일한 해를 입히는 처벌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실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목민 세계에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가히 혁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뒤집어 피를 용서로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은 먹고 마시는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지극한 원수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 은총(엡 2:8)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 선택을,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 버림을,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신 한편, 자기 자신에게는 이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귀을 예정하신 한편,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을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심으로서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 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살고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 조상매(롬 3:26)

옛적부터 우리나라에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어른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일을 못했다고 판단되면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자책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조상(祖上)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야밤에 그놈을 데리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불초한 소치로 자식을 못 가르치고 못 보살피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조상 앞에서 매를 맞겠습니다.”하고 매를 베어오도록 시킵니다. 상돌 위에 올라 종아리를 걷고 서서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나 손자에게 힘껏 치도록 시킵니다. 조상매로 인해 피가 낭자하여 걷지 못하고 업혀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인간형성에 있어서 잘잘못을 끊고 자르는 것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부성원리였습니다. 그 부성원리를 못다 한 책임을 자식으로 하여금 핏발이 서도록 채찍질하게 함으로써 자책하고, 그 자책으로 개심을 유발하는 교육방법이 조상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짊어지신 조상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동시에, 인간에게는 구원과 용서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사건인 동시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수치와 고난의 표시인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화해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의롭다하심(稱義)의 사건이 됩니다. 죄와 죽음과 질고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의 나라에 편입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가슴에 품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 천하보다 귀한 영혼(마 16:26)

삶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워싱턴대학교의 한 학생이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값을 쳐준 사람이 50만원이었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진품명품전」에 출품된 좀 오래된 사기그릇 하나에 수백만 원이 호가되는 것에 비하면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귀한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셨기에 비천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서야 어찌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평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장성하신 후에는 복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영육간에 겪는 고통스런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토록 높이 평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깔보고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나라 시민권의 개념(엡 5:1-2)

헬라인이 생각한 '시민권'은 자신들과 피를 공유하는 것이었고, 로마인이 생각한 '시민권'은 자신들과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피와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공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사 53:3-5)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제1권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설계는 그가 전 인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돌보시는데 있어서는 방심치 않으시고 철저한 보호관찰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이상의 큰 보호와 관심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멸시와 천대, 고통과 질병, 슬픔과 괴롭을 알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가 지치고 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의 멸시와 천대, 고통과 질병, 슬픔과 괴롭을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치고 곤함,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기울어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 해원병(요 6:48)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요 6:48)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이 바로 원수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목한다는 해원상생(解怨相生)의 길을 여는 해원떡입니다.

우리 민족의 세시민속(歲時民俗) 가운데 대보름 민속으로 원한을 푸는 떡(解怨餅/해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보면 이해(利害)에 얽히건 오해에 얽히건 간에 누군가와와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면 피차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보름 명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해원떡을 만들어 산사(山寺)의 스님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써 지난해의 불편했던 관계를 깨끗이 씻고 새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크면 클수록 떡도 크게 만들어 돌렸는데, 그 심부름을 스님이 했다고 합니다. 떡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목하는 해원상생(解怨相生)의 길을 모색했던 우리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원수된 관계를 풀기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제물을 다른 말로 풀면 선물(贈物)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나 사람이 신들에게 바치는 선물은 감사제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의 성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종교는 크게 얻기 위해서 크게 바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들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습니다. 범죄하여 원수된 자들과 화해하시려고 솔선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마련하신 사랑의 선물이요 해원떡입니다. 이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과 같지 아니하여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라 하였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사죄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떼는 이 작은 떡과 마시는 잔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해원떡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 축복/축제 ■

## 승리의 함성(계 7:9-10)

어두운 정치경제문제로 답답하기만 했던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2008베이징 올림픽 열기도 성큼 찾아온 서늘한 기온에 밀려난 무더위처럼 서서히 뇌리에서 잊혀 가고 있습니다. 최민호의 멋진 한판승 유도 금메달, 박태환의 짜릿한 수영 금메달, 장미란의 넉넉한 역도 금메달, 양궁남녀단체전의 역전 금메달 등은 생각 하는 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솟구치는 기분 좋은 추억입니다. 모든 운동 시합이 다 그렇지만, 구기운동의 역전만큼 멋진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났으니까 말인데요, 2002월드컵 때 한국이 토고를 2대1로 역전승한 경기는 유도 한판승처럼 정말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토고전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토고에게 1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선 수교체이후 두 골을 넣어 2대1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토고전은 방송 삼사에서 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이든 거리든 경기장이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든지 모여서 응원전을 펼쳤는데,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사거리와 광장과 경기장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축구팬들로 물결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87개 지역에서 거리응원에 나선 사람들이 일백오십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보는 사거리와 광장마다에서 울려 퍼지는 이 승리의 함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보게 될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한 골을 먹고 지고 있던 전반전 상황에서 후반전이 끝나가는 무렵에 두 골을 넣고 전세를 뒤집는 상황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함성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 '이미'와 '아직'(롬 8:18-23)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1917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를 구원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히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또 『두 형태의 신앙』에서는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을 믿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버가 언급한 이 두 개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영적구원(종말)이 없고, 육적 구원(종말)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시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부버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왕)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종말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교인에게는 ‘이미’가 없고, 오직 ‘아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점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종말에 주어질 축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 가운데서 선행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되고 인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살지 아니하며,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지도 아니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헌신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바라봅니다.

## 장벽을 허문 십자가의 죽음(히 10:19-20)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은혜의 보좌’란 성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 ‘시온소’를 두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소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성도의 희망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에서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지상 성막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상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는 성소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것은 ‘휘장’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벽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변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도 두고 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벽’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벽’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벽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뜰의 장벽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벽들입니다. 이 모든 장벽,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소회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 희망의 축제(고전 10:1-4)

주의 만찬은 희망의 축제입니다. 희망의 축제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행 중에 벌이는 잔치를 말합니다. 여행 중에 허기지고 피곤할 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며, 소생함과 기쁨을 얻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실 그 날과 신령한 새 몸으로 덧입힘을 입을 그 날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써 그의 수난을 증거하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며, 그의 장차 오심을 선언하며, 온 우주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축복된 예식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개념(엡 5:1-2)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헬라인이 생각한 '시민권'은 자신들과 피를 공유하는 것이었고, 로마인이 생각한 '시민권'은 자신들과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피 흘림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공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정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는데 있습니다.

▣ 인물 - 한국 가톨릭교회 ▣

### 조선순교성인들의 특징(사도행전 1:8)

가톨릭 교황청이 시성(諡聖)한 103위 조선성인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기독교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103위 조선성인(聖人)들 가운데 남녀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56명, 여성이 47명으로써 비슷한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시대가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였고, 사회적 지위가 극히 낮았던 여성이 절반 가까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남녀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3명, 20대가 18명, 30대가 22명, 40대가 26명, 50대가 25명, 60대가 6명, 70대가 3명으로써 40~50대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최연소자인 13살의 유대철에서 최고령자인 79살의 유소사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것은 노소(老少)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직위로 보면, 성직자가 11명, 평신도가 92명입니다. 성직자가 극소수이던 때여서 모든 성직자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지만, 평신도 성인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양반과 중인, 평민을 아우르는 조선순교성인들의 직업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상인과 농부가 다수이긴 했지만, 관료, 역관, 목수, 교회서적출판 및 판매종사자, 성물제작자, 짚신장사꾼, 마부, 군인, 신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중에는 동정녀 15명, 궁녀 3명, 과부 17명, 젓먹이가 딸린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신분과 직업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독교 복음에 따라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귀의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당시에 이 같은 복음은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한 가지 103위 순교성인의 특징은 친족관계에 있는 순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03위 가운데 45명(18가구)이 한 핏줄로 엮힌 관계에 있습니다. 부자간, 모녀간, 부부간, 형제간, 친척간 순교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전도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조선성인들의 순교시기, 형태 및 장소(디모데후서 3:12).

103위 조선성인(聖人)들이 순교한 시기를 보면, 기해년(1839)에 70명, 병오년(1846)에 9명, 병인년(1866)에 24명이 순교했습니다.

현종 5년에 일어난 기해박해는 신유박해(1801년) 이후 대규모였습니다. 풍양 조씨가 안동 김씨에게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일으킨 기해박해 때 정하상, 유진길, 조신철 등 평신도 지도자들과 앵베르 주교, 모방, 샤프스탕 신부 등이 순교했습니다.

병오박해는 1846년 6월 5일 김대건 신부 체포를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현석문, 남경문, 한이형, 우술임 등 평신도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선대원군이 일으킨 병인박해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5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박해 때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평신도 8,000여명이 순교했습니다.

순교 형태를 보면, 군문효수 16명, 참수 60명, 교수 15명, 장사 3명, 옥사 9명입니다. 목을 베어 군문에 매다는 군문효수는 대역죄인에게 행하는 것으로써 성직자 11명은 모두 군문효수로 순교했습니다. 목을 치는 참수형은 서울 서소문 밖과 당고개, 전주 숲정사에서, 그리고 목졸라 죽이는 교수형은 포도청 감옥에서 행해졌습니다. 장사(杖死)는 곤장으로 불기를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103위 조선성인이 순교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10곳입니다. 서울 서소문밖에서 44명, 종로구 권선동과 서린동에 있었던 포도청에서 24명, 용산 새남터에서 11명, 용산 전자상가 근처 당고개에서 9명, 전주 숲정사에서 6명, 충남 보령시 갈매곶에서 5명, 공주 감영에서 1명, 대구관덕정에서 1명, 평양에서 1명 등입니다. 성인들은 때와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와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주를 위해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나라에도 주(主)가 있는데....(누가복음 12:2-5).

“나라에도 주(主)가 있는데 천지에 홀로 계신 주(主)가 없겠습니까?” 이 말은 명나라에 천주교를 전파한 예수님회 신부 마태오 리치가 1604년에 쓴 『천주실의(天主實義)』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이 책을 읽었던 다산 정약용의 글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다산은 하나님(상제)을 천(天)과 동일하게 보면서 상제(上帝)를 천(天)에 대한 또 다른 존칭으로 봅니다.

하늘의 주재자가 하나님(上帝)이다. 상제를 하늘(天)이라고 하는 점은 마치 나라님(王)을 나라(國)라고 호칭하는 경우와 같다.

참고로 천(天)은 다섯 가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의 하늘, 둘째는 하늘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곧 인격신을 말하는 하늘, 셋째는 운명 또는 신(神)의 섭리를 말하는 하늘, 넷째는 자연의 운행을 말하는 하늘, 다섯째는 우주의 최고원리를 말하는 하늘입니다.

다산은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1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유 박해(1801년) 때 배교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던 학자입니다. 그는 다른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리(理)를 궁극적 실재(實在)로 보지 않고, 대신에 천(天)을 상제(上帝) 즉 초월적 최고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중용해석에서 하나님(상제)을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영명(靈明)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영명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책 『중용자잠』에 나오는 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천(天)의 모습이다.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천(天)의 소리이다. 천(天)의 신령한 밝음은 인간 마음속을 바로 꿰뚫고 있으니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바가 없고 미소하여 밝혀지지 않는 바가 없다.

다산 정약용의 하늘의 주재자이신 상제(上帝) 하나님(天), 천지에 홀로 계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 인간의 마음은 영명한 상제천의 소재처(고전 2:1-16)

인간의 마음은 영명(靈明)한 상제천(上帝天)의 소재처(所在處)라는 것이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선생의 인간심성에 관한 입장입니다. 다산은 그의 『심경밀험』(心經密驗, 1815)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상제천께서 내주(內住)하심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상제천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활동을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산에게 있어서 상제는 유일의 최고신이며 우주의 주재자입니다. 그는 상제를 주재성(主宰性)과 영명성(靈明性)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주재성은 전지전능의 초월성을 말하고, 영명성은 내재성, 곧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함께 갖는 이성적 사유판단능력을 말합니다.

다산은 증용해석에서 상제는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초월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월적 존재의 현존을 경험하고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가진 영명성과 또 그분이 인간에게 주신 영명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산은 『중용』의 머릿글(首章)에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에 삼가며, 그 들리지 않는 바에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제가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제의 영명은 인심(人心)과 바로 통하여 아무리 숨은 것이라도 살피지 않음이 없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밝히지 않음이 없다면 사람 참으로 이것을 안다면 제 아무리 대담한 사람이라도 계신공구(戒愼恐懼) 곧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茶山의上帝思想研究』(김영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 대학원 철학과)].

다산은 23세(1784) 때 광암 이벽을 통해 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24세 때 서울 명동의 중인(中人) 김범우 집에서 있었던 신앙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6세 때 성균관 근처의 민가에서 이승훈과 더불어 교리연구를 하였고, 30세 때까지 천주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영명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여(요 12:50)

윤지충은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이며, 윤두서의 증손자였습니다. 아버지 윤경과 어머니 안동 권씨의 장남으로 1759년에 태어났습니다. 윤지충은 함께 효수된 권상연 그리고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과 이종사촌간이었고, 1783년 봄 정씨 형제들과 함께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습니다.

1791년 5월 윤지충은 신자였던 어머니 권씨의 유언을 따라 외종형인 권상연과 상의하여 유교의 제사의식대로 음식을 차리거나 부모의 상징적 표현인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또 돌림병으로 인하여 8월에 가서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조문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시체를 버렸다는 말로 비약되었습니다. 이 일로 전라감영으로 압송되어 심문과 사건심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공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윤지충은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 앞에서 제사를 폐지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천주를 대부모로 받드는 이상 천주의 명을 준행치 않는다면, 결코 흠숭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목주(木主)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이므로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께 죄를 짓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전라도 관찰사는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했지만, 윤지충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며 배교를 거부했습니다. 1791년 11월 7일 전라도 관찰사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 때를 처가며 자백을 받을 때에도 유혈이 낭자하였지만, 신음하는 소리 한 마디 없이 날마다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여 군상(君上)의 명령이나 부모의 명령은 어길지라도 천주의 가르침은 비록 극형에 처해 질지라도 결코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며 칼날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상연의 진술도 윤지충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윤지충은 33세 때인 1791년 11월 13일(음력) 오후 3시, 예수님께서서 운명하신 동일한 시간에 41세의 권상연과 함께 효수에 처해졌습니다.

## 이 고통의 맛이 비록 쓰고 견디기 어려워도(하

11:33-40)

이경도(李景陶, 1780-1801)는 음력 1801년 12월 26일 서울 서소문 밖에 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래의 편지는 조선인이 쓴 최초의 옥중편지들 가운데 하나로써 죽기 하루 전날 어머니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경도는,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의 8대 후손으로서 이의의 외손자였으며, 조선천주교 초기신자들이었던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의 영향을 받았던, 이윤하(1757-93)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의 사형판결문에 서명을 마치고 어머니께 편지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몹쓸 큰 죄인을 특별한 은혜로 천만 뜻밖에 불러주시니, 지은 죄를 마땅히 뉘우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하여 죽는 것으로나 은혜를 갚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저의 죄악도 무한하오나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무한다는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손으로 저를 이끌어주시면, 만 번 죽은들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에 애착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몹시 약해서 죽을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죽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이야말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이 세상에서 어머니께 자식 노릇을 못하고 조금치도 뜻을 받들어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닦고, 뉘우쳐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영영 떠나게 되니, 어머니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날이 없사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부모자식간의 정이야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싯돌에서 튀어나오는 불뿔같이 빠른 세월이니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 죽음은 어머니께 영원한 복을 누리실 천당 문을 열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값을 드릴 것입니다. 이 고통의 맛이 비록 쓰고 견디기 어려워도, 변하면 달고 맛있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실리 없겠지요. 곧 죽을 자식이 한 말씀 올리자면, 어머니 스스로 영혼과 육신을 잘 보존하시고 참되게 닦으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계신 천당에서 영원히 뵈겠다는 것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교는 못한 자식을 참되고 보배로운 자식이 되게  
하는 것(히 11:33-40)

이순이(1782-1801)는 음력 12월 28일 전주 숲정이 형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아래의 편지는 조선인이 쓴 최초의 옥중편지들 가운데 하나로써 1801년 9월 27일에 친정어머니 권씨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순이는,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의 8대 후손으로서 이익의 외손자였으며 조선천주교 초기신자들이었던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의 영향을 받았던, 이윤하(1757-93)의 둘째딸로 태어났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머리 숙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다급한 때를 당해 어머니께 제 심정을 아뢰려 하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의 열매를 맺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었다고 여기실 것이고, 저 또한 어머니의 떳떳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순교는 부족하고 못한 자식을 참되고 보배로운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예요 어머니, 간절히 바라오니, 제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마음 다잡으셔서 슬픔을 억누르세요 이 세상을 꿈같이 여기시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 고향으로 아셔서 조심조심하여 주님 뜻에 따르세요 이 세상 삶을 다 마치시면, 못한 자식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을 받아, 가이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마주잡고 하늘나라로 모셔 들어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렵니다.

소식을 들으니, 오라버니(이경도)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님의 도우심인가요! 주님께 우러러 이루 다 감사드릴 수 없고 어머니의 복을 찬송합니다....

전주로 시집온 후, 그전부터 항상 근심하던 일을 이루었어요. 9월에 시택에 와서 10월에 우리 두 사람은 동정(童貞)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4년을 오누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 육체적인 유혹을 근 십여 차례 받아 하마터면 동정서약을 깰 뻔했어요. 그 때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피를 흘리신 사랑에 의지하여 무사히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막 8:35)

16세의 소년이 진사시에 장원급제합니다. 이에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한 정조대왕이 친히 탐전(임금의 의자)으로 그를 불러 손목을 잡고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게 벼슬을 주고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노라"고 말합니다.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이 소년은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정약중(다산 정약용의 셋째형)의 제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후,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백서사건으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끌려가 23일간 취조와 형벌 끝에 대역부도한 죄인의 판결을 받고 27세의 나이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 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정약현(다산의 맏형)의 만사위였던 황사영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고, 두 살배기 아들은 추자도에 버려져 촌부가 주워 키우게 되며, 부인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관비로 38년을 살게 됩니다. [\*1801년 조선천주교회 박해현황과 대책 등을 비단에 적어 북경의 주교에게 보고 건의하려다 압수당한 비밀문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였을까요? 그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는 이 점을 묵상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사영은 기독교를 "세상을 구제할 양약"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박해당시 기록을 보면, 포졸들이 신자들을 붙잡을 때 버선코를 보았다고 합니다. 버선코는 뽀족하기 마련인데 납작하게 문드러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옷을 벗겨보면 무릎에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버선코가 납작해지고 무릎에 굳은살이 박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인류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택하셨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 구세(救世)의 양약(良藥)(롬 8:11)

황사영은 문무를 겸비한 명문거족의 자손답게 영특하고 뛰어난 재간이 있어 1790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정조(正祖)는 그를 불러들여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네가 20세가 되거든 나를 만나러 오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게 일을 시키고 싶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임금의 옥수(玉手)를 잡았던 이들이 하는 풍습에 따라 왕이 손수 잡아주던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고, 왕의 굳은 다짐과 약속으로 앞날이 크게 촉망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평소애 성학(聖學)이라 여겼던 주자학에 회의를 느끼다가 정약중(다산의 형)이 들려준 기독교에 매료되어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습니다. 그 후 백서사건(1801)으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끌려가 23일간 취조와 형벌 끝에 대역부도한 죄인의 판결을 받고 27세의 나이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 형을 받았습니다. 의금부에서의 취조 때에 황사영이 밝힌 기독교입교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학(洋學)을 한지 11년이 되는데, 양학을 시작한 이듬해에 조정에서는 집집마다 이것을 엄금하였으며, 친척, 친구들까지도 훼방하고 배척하였다. 나는 백번이나 숙고한 끝에 양학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그것이 구세(救世)의 양약(良藥)임을 알고 성심껏 행하였다.

그는 20세에 이르렀으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려 더 이상 전시(殿試)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매번 백지를 냈는데, 임금은 그가 급제하지 못함을 이상히 여겨 대신들에게 사영이 충분히 공부하여 응시하도록 이르게 하였습니다. 후에 정조(正祖)는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면서 그에게 연민의 정을 표했는데, 그는 임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음전도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황사영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세도 목숨도 분토처럼 버리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점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복과 박해(눅 9:23)

『예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동안 상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태어나서 세살이 돼서야 젖을 떼고 어머니 품을 떠나 살수 있으므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최소한 3년 동안은 상복을 입어 그 은혜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항상 상복만 입어야 했고, 장례식과 제사 외에는 일체 다른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일체의 가무와 오락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게다가 어깨까지 덮는 방갓을 쓰고 땅만 보고 걸었고, 얼굴가리개로 입 코 눈까지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풍속은 박해시대에 숨어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에게 외출이나 이동을 가능케 한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김대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잡입에 성공한 최양업이 1851년 10월에 쓴 편지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산의 조카사위 황사영도 박해 때에 상복으로 변복(變服)하고 방갓을 쓰고 제천으로 무사히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의 눈에 띄기 쉬운 서양인 신부들이 상복을 입고 방갓을 쓸 수 있었던 조선풍속은 몇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오가작통법이 시행되던 그 살벌한 박해상황 속에서도 서양인 신부들이 들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풍속으로는 상을 당하면 방갓과 사선(紗扇)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녔으며, 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상복은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당대의 신앙인들에게 죽음을 좀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상복차림의 이동과 숨어 지내야했던 고통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였는지 뻗속까지 사무쳤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상복차림을 마다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점을 묵상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배교를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히 11:35-38)

1815년 6월 18일 경상감사(監司) 이준수가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여 심문한 결과를 임금께 보고하며 사형을 품신하였는데, 조정으로부터 배교하는 자는 살려서 방면하고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회시가 내려와 재차 심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선왕조의 대표적 연대기(年代記)인 『일성록(日省錄)』에 실려 있는데, 1815년 7월 7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경주, 안동 두 곳에서 체포된 사학(邪學)의 무리가 도합 71명인데, 박사운 등 20명은 특별히 사학에 물든 자취가 없기에 곧 석방하고, 김상선 등 16명과 여자 송열 등 2명은 모두 각 해당 읍에 감금시켜 옥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판결할 것입니다. 최봉한 등 33명은 감영으로 잡아와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회유했는데 뉘우치지 못하여 실로 피차의 구분이 없으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왕께 보고한 후에 처리하게 하소서.

무릇 사학을 다스리는 법은 잘못을 뉘우치면 살려주고 뉘우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감영에 갇힌 죄수 33명 가운데 후회하고 뉘우친 사람 2명과 죽은 사람 4명을 제외하면 27명인데 모두 한사코 뉘우치지 않으니 마땅히 참수(斬首)해야 할 것입니다.

71명 가운데 48명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가운데 7명은 참수되었고, 16명은 옥사(獄死)하였습니다. 박해의 참상을 짐작해볼 수 있는 기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2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여준 덕행은 포졸들과 다른 죄수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후일 대구지역복음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순교자 23명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소중한 목숨을 바치게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점을 묵상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천주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허  
11:33-40)

이경언(1792-1827)은 음력 5월 4일 전주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이경도와 이순이의 막내 동생인 이경언이 쓴 심문기(審問記)입니다. 그는,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의 8대 후손으로서 이익의 외손자였으며 조선천주교 초기신자들이었던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의 영향을 받았던, 이윤하(1757-93)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늘 생각하기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기라도 하면 지은 죄악을 기워갈 수 있을까 하며 지내왔습니다. 4월 21일 너무도 갑작스럽게 날이 저문 후에 김성집(배교자)을 앞세워 서울과 지방 포교 10여 명이 저를 붙잡아, 무침다리에 있는 사관청(士官廳)에 얹혀 놓고 심문했습니다.

“성화(聖畵)는 그렸는가?” 문기에, 일이 하릴없이 된 줄을 알아채고 제가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대장 심문하고, 이튿날 포장(捕將)이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네가 천주학을 한다는데 맞느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형(이경도)이 신유옥사 때 이 일로 죽었고, 어릴 때 조금 듣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 이미 처형당한 조숙을 알게 되어 그에게 1년 남짓 배워서 마음속 깊이 익혔습니다.” “이제라도 천주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관장(官長)이 물었습니다. “어제 진술한 것이 다 사실이나?” “사실입니다.” 심문을 마치고는 옥에 가두라 했습니다.

잡혀온 지 사흘 되던 날 포장이 영장(營長)에게 보고를 올려 지시를 받고, 그날 해질 녘에 압송되어 동작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먹은 것도 없고 밤낮으로 애를 쓴 탓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성방에서 자고, 이튿날 김성집과 포졸 일행들 모두 6명이 일찍 떠났습니다. 앞길을 바라보니 가족에 대한 정이 남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굳게 다졌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 어찌 이 길을 마다할까보냐. 걸음걸음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 상민들까지도 다 침을 빨는 터라(히 11:33-40)

이경언(1792-1827)은 음력 5월 4일 전주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신유옥사 때 순교한 이경도와 이순이의 막내 동생인 이경언이 쓴 심문기(審問記)의 중간부입니다.

하루 백리 길을 걸어 붙잡힌 지 18일째 되는 날 저녁 전주 진영에 도착하여 잠깐 쉬 후 불러 나갔습니다. 영장(營長)이 왔고, 좌우에 나졸 수십 명이 햇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잡혔을 때의 모양 그대로인 듯하였습니다. 관장은 성명과 조상 4대를 다 묻고 나서 저를 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토포청(討捕廳) 더운 방에 밥도 잘 차려 주었지만 두어 술 뜨고 누워 있는데, 손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목에 큰칼을 씌워 가두니 도로 심신이 산란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붙잡힌 지 19일째 되는 날, 날이 밝자 영장이 저를 불러내어 심문했습니다. “성화는 얼마나 그렸고, 패거리들은 몇 놈이나? 책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아뢰어라.” “성화는 조숙이 이름 모르는 황기를 추천하여 그려 달라고 하기에 그려 주었고, 황가가 김성집을 추천하기에 작년 2월에 두 장 그려 주었습니다. 천주학생이들은 이미 나라에 죄를 지어 벌을 받은 집안 자손이라, 친인척들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상민들까지도 다 침을 빨는 터라, 사귀어도 남남처럼 굴어서 서로 멀고 친한 이도 없는데 어찌 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책은 본래 없었으며, 오직 말로 배워 마음속에 책이 있을 뿐, 내놓을 책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로다. 무식한 상놈들도 책을 삼사십 권씩 다 가지고 있는데, 너라고 없겠느냐. 호되게 매질을 당하고 싶으냐. 바른대로 자백해라.” “매를 맞아 죽는다 해도 제게는 무리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성화 오십여 벌과 성경과 성패(聖牌) 한 짐을 내어놓고 물었습니다. “이 성화는 다 네가 그린 것이렸다.” “그러하오이다.” 영장은 저를 옥에 가두라 하고는 즉시 감영(監營)에 갔습니다. 한밤중에 감영 장관청(將官廳)에 불러 나갔습니다. 그 때 누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냐, 누님(이순이)을 따르자. 정말로 누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왔을 거야.”

### 천주가 무엇이나?(요 20:29)

이경언(1792-1827)은 음력 5월 4일 전주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신유옥사 때 순교한 이경도와 이순이의 막내 동생인 이경언이 쓴 심문기(審問記)의 중간부입니다.

얼마 안 있어 관찰사가 저를 불러내어 영장(營長)이 어제 했듯이 심문하자 대답하였습니다. 그 위엄 있는 차림이 진영(鎭營)에서보다 열배나 더하였습니다.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네 뜻에 변함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천주가 무엇이나?” “천주는 하늘과 땅, 천신과 사람, 만물을 만들어내신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십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가까이로는 우리 몸을 살펴보고, 멀리로는 만물을 보면, 어찌 천지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하겠습니까?” “네가 천주를 보았느냐?” “어찌 보고서야 믿겠습니까. 사또께서는 이 선화당(宣化堂)을 지은 목수를 보셨습니까? 오관(五官)이라 하는 것은 소리 색깔 냄새 맛이나 분별하지만, 형체를 볼 수 없는 의리(義理)는 마음이 분별합니다.” 한참 저를 보다가 “네가 배운 것을 다 말해 보아라.” “십계(十戒)와 칠극(七克)을 알고,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압니다.” “그런 것은 다 들었다. 너는 끝내 신앙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를 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불효불충이 되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일컬으면서 천주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죽기가 무섭지 않느냐?”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천주학을 버리지 못하겠느냐?” “그 까닭은 아까 아뢰었으니, 다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죽을 따름입니다.” 즉시 저를 전주부(全州府)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 천신과 사람, 만물을 만들어내신 대군대부(大君大父)”로 알았던 이경언, “자식이 아버를 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불효불충이 되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일컬으면서 천주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고 죽기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이경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면 합니다.

### 신분이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이나(벧전 4:19)

이경언(1792-1827)은 음력 5월 4일 전주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신유옥사 때 순교한 이경도와 이순이의 막내 동생인 이경언이 쓴 심문기(審問記)의 중간부입니다.

이튿날 전주 본관사또와 고산, 곡성, 동봉, 정읍 다섯 고을 사또들이 앉아, 좌우 나졸들을 물리치고는 저를 그들이 앉은 자리 밑으로 가까이 다가왔히고 전주 본관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같은 양반의 지식은 저 무지한 백성과 다르고, 용모도 고만조만 곱게 생겼는데, 어찌 그 고약한 천주학을 한단 말이나.” “의리(義理)로써 말씀드리면, 천주학은 신분이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이나 용모가 반듯하고 못생긴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슬기롭고 총명한 영혼이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데 있습니다.” 전주본관사또가 “천주학에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고, 동복 사또가 “너는 그 의리를 말하라.” 하기에, 참 천주의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것,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것, 죽은 후의 상벌에 대한 요지를 말하고 심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더니, 전주 본관사또가 말했습니다. “다 실없는 말이다. 영혼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고, 천주도 없다....”

“너는 팔십 먹은 늙은 어미도 있고, 처자도 있다 하니, 이제라도 신앙을 버리겠다는 한 마디만 하고 살아 나가서 늙은 어미와 처자를 보면 좋지 않겠느냐?” “부모를 만나려면 천주를 배반해야 하는데, 천주는 대부모이시고 제 어머니도 천주께서 내셨으니 어찌 천주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로 반나절을 묻고 대답한 후 금제청(禁制廳)이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전주 진영에서 다시 불러내어 법정에서 살벌하게 형틀을 차려 놓고 심문을 하였습니다. 패거리들의 이름을 말하고, 신앙서적을 바치고, 천주를 배반하라고 뉘달하며 형틀에 올려 매고 수없이 마구 매를 내려쳤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 말하기가 힘겨운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는 천주학생이도 책도 없고, 천주는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영장은 그만 하옥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으니(고후 4:7-1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일기로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역대 국왕들의 하루 일과,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회의 및 상소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에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사료(史料)라면, 『승정원일기』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1차 사료입니다. 매일의 날씨 정보를 수록한 천문 기상학 자료이외에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승정원일기』에 실린 현종 을해년(1836) 4월 12일자 기록에 순교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소개합니다.

상주의 사학적인 김사건은 천주를 공경히 받들어 그 묘리를 깊이 얻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니 법대로 처단하라. 사학적인 박사의는 여러 해 동안 배우고 익혀 마음을 다해 깊이 믿었으니 법대로 처단하라. 사학적인 이재행은 여러 해 동안 외우고 익혀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으니 법대로 처단하라.

우리는 이 기록에서 167년 전 신앙인들의 믿음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히 받들었으며, 교리를 깊이 깨달았고, 배우고 익힌 후에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써 죽어도 여한이 없으므로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생활은 이 경지에 이르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들보가 집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눅 21:16)

전경협(全敬俠, 1787~1839)은 궁녀였는데, 신앙에 입문한 후에는 병을 핑계로 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기해박해 때 체포된 후에는 궁녀의 지위에 있었던 탓으로 남보다 더 혹독한 문초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포장은 그녀에게 “너는 궁녀로서 다른 부녀자들보다 탁월한 자이거늘, 사도에 혹하였다고 하니 그것이 진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경협은 “천주는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임금이시요 주재자입니다. 이 천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착한 이를 상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신 천주를 흠송하고 섬기는 것이니, 결코 사도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문초 때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면 “만일 대들보가 집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 천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공경하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형조로 이송된 후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살이 헤어져 떨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피로 땅을 적셨으나, 조금도 안색이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전경협의 오라버니는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데, 누이 때문에 관직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누이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꾸몄습니다. 한번은 독약을 넣은 음식을 옥에 보내서 먹게 하였는데, 다행히 먹었던 음식을 토하게 됨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오라버니가 간수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누이를 매질하여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형리는 돈을 받고 여러 차례 매질을 가하여 전경협을 죽이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오라버니의 딸은 “고문으로 받은 고모의 상처가 하루 사이에 씻은 듯이 나왔으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며 6개월가량 옥중에 갇혀 있다가 8명의 다른 교우들과 함께 1839년 9월 26일 52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 당하였습니다.

##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빌 3:20)

남명혁(南明赫, 1802~1839)은 유명한 양반 가문출생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제멋대로 생활하는 난봉꾼이었으나 30세에 이르러 예수님을 믿고 평신도 회장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연희도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에 열심이었습니다. 1839년(헌종 5년) 4월 7일 한 초신자가 자기 아내의 석방을 위해 교우들의 모임을 포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남명혁은 형수와 아들과 침모와 더불어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으로 다리뼈와 팔과 갈빗대가 부러졌고, 의식을 잃어 희생할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의정부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 있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이요. 천주를 위하여 죽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오.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동일한 시각에 남명혁은 서소문 밖에서 3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부인 이연희도 같은 해 9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순교하여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 부부는 기해박해(己亥迫害)때 함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요 이 땅에 있을 맘 없도다.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요 이 땅에 있을 맘 없도다.

60-70년대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남명혁 성인의 말대로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빌 3:20) 믿고서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 순교는 하늘나라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벧후 1:0).

이호영(1803-1838)은 어려서 부친을 여읜 후 모친과 누이와 함께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평신도 회장직을 맡아 보던 사람인데 1835년 2월에 누이 이소사와 함께 체포되어 4년 여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옥중에서 35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하늘 임금님의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것으로 여겨 박해자의 회유와 고문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옥중서간에서 문초 당하던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교(邪敎)는 부모의 은혜에 배반하는 종교로써 조정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있는데, 어째서 너는 그것을 믿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교회를 믿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면 또한 임금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교를 부모의 은혜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너는 천주학을 버리겠느냐, 죽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영혼은 갈 데로 가고 육체는 썩어질 시체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은 결코 반역자로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천지(天地) 인간(人間) 천신(天神)과 전 우주를 내신 임금 중의 임금이며 왕 중의 왕이시고, 전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버리느니보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째서 불충불의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천주님을 버리느니보다 깨끗이 죽을 생각입니다.

순교란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급제하겠다는 마음만으로 급제가 되지 않듯이 순교하겠다는 마음만으로 순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고문과 박해를 견디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천주님은 만물의 임금이시오(약 1:12)

권득인(權得仁, 1805~1839)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열여섯 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약장사로 생계를 꾸렸는데, 십자가와 성패(聖牌)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 닭이 울 녘에 일어나 등잔불을 켜고 날이 밝기까지 묵상과 기도를 했으며, 주밀하고 성실한 봉사로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기해박해 때인 1839년에 처남을 포함한 전 가족 5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부인과 처남은 배교하였지만, 권득인은 어떤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천주교를 믿느냐?”는 포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천주님은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임금이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이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하느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감사할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천주를 공경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동교인(同敎人)들을 대라”는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남을 죽이거나 해하는 것을 엄금하니, 어찌 감히 내 말로써 사람들에게 죽을 위험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권득인은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되어 4개월 동안 많은 고초와 모욕과 곤욕을 받았으며, 매질이 너무 심하여 포졸들이 두 번이나 그가 죽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사형에 언도된 그의 죄명은 “여러 해 동안 사학(邪學)을 강습하고, 스스로 사구(邪具)를 만들어 널리 흉도(兇徒)에게 전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24일, 권득인은 교우 8명과 함께 소서문 밖 형장에서 34살에 참수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사학을 강습하고 사구를 만들어 흉도에게 전파한 자란 누명을 썼지만, 권득인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임금을 보고야 민사오리까(요  
20:29)

1839년(헌종 5) 기해년(己亥年)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 때 피살된 순교자의 전기를 수록한 책인 『기해일기』(순교자 현석문이 저술함)에 강원도 강촌(江村)에서 태어나 9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22세의 처녀가 4월 11일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협박을 참아내고, 형관의 심문에 비유와 논리가 정연한 대답으로 일관하다 7월 20일 서소문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한 사람이 있어 소개합니다.

포졸이 그녀를 잡아가니, 종사관이 대략 묻고 홍사(紅絲, 붉은 오랏줄)로 결박하여 올리니, 포장이 문왈, “너 저만치 낮은 계집이 천주학을 한 단 말이나?” 답왈, “과연 하나이다.” “이제라도 말만하면 살리라.” “그리 못하나이다.” “형벌을 중(重)히 하여도 그리하겠느냐?” “장하(杖下, 매맞아)에 죽사와도 우리는 공경하는 천주(天主)는 배반치 못하나이다.” “네가 배반치 못하는 연유를 아뢰라.” “천주(天主)는 천지(天地) 신인(神人) 만물(萬物)을 화성(化成, 지으시고)하시고, 재제(裁制, 다스리시고)하시고, 상선(賞善) 벌악(罰惡)하시는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시라. 만 번 죽어도 배반치 못하나이다.” “누게 배웠으며, 몇 살부터 행하였으며, 당(교인)은 얼마나 되며, 시집은 어찌하여 아니 갔으며, 영혼은 무엇이며, 죽기가 무섭지 아니하나?” “아홉 살부터 어미에게 배웠사오며, 당은 죽사와도 못 대웁고, 나이 20세가 많지 아니하옵고, 또 처자가 대답할 바가 아니오며, 영혼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체(神體)요, 죽기는 무섭건마는 살려고 하면 천주를 배반해야 하는 고로 무서워도 죽으려하나이다.” “영혼이 어데 있느냐?” “육신에 가득하나이다.” “네가 천주를 보았느냐?” “원방(遠方, 먼 곳)의 백성이 임금을 보고야 민사오리까? 천지만물을 보고 조성(造成, 만드신)하신 대군대부를 만나이다.”

무엇이 가냘픈 한 여인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것일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점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갈 1:4)

나이 불과 7살에 아버지와 이복형이 예수님을 믿다가 참수당하고, 나이 45세 때에는 자신을 포함한 어머니와 여동생마저 예수님을 믿다가 고문당하고 어머니는 옥사하시고 자신과 여동생은 참수당하여 일가족 전체가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변증서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작성한 정하상입니다. 이 사람이 재상에게 적어 바친 「상재상서」에 다음과 같은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위에는 높낮음이 있고 일에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버지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는 더욱 커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 한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이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갈 1:4)고 하였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이렇듯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정약중, 유소사, 철상, 하상, 정혜 일가족도 천지의 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게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가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는 이 점을 묵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 사방에 궁핍이요 사방에 투쟁뿐입니다(히

11:35-38)

충청도 홍주 출신의 최양업(1821-1861)은 15세 때에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와 박해를 피해 목회하면서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우리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방에 궁핍이요 사방에 투쟁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극히 큰 죄나 저지르는 듯이 항상 전전긍긍 떨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마치 우리를 흉악범들처럼 멸시합니다. 만일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 온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별 때같이 들고일어나 공격하고, 그를 인간 중에 가장 부도덕한 자로 여겨 저주를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못살게 괴롭힙니다. 결국은 그를 멀리 쫓아내고 다시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양반들은 그들 중에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격렬하게 핍박합니다. 가족 중의 어떤 이가 신자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가문 전체가 불명예로 낙인이 찍히고 그 집안의 모든 영광과 모든 희망이 걸려 있는 양반의 칭호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들 중에는 젓먹이 아이를 안은 여교우와 노인과 처녀들도 많은데 예배에 참석하려고 2,3일에서 7,8일씩이나 걸리는 험한 길을 추운 날에 (밤중에만) 걸어오다 보니 심히 피곤하고 발은 붓고 상하여 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또 그 먼 길을 돌아갑니다“(『너는 주 추를 놓고 나는 세우고』 바오로딸).

박해시기에 신앙의 선조들은 언제나 죽을 위험과 매질, 피난과 귀양살이 등 많은 시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알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코 살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속 깊이 느꼈으면 합니다.

##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벧전 1:6-9)

1866년 충남 보령 갈매곶에서 침수를 당한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짓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 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밟아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기독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 백리 산길을 남몰래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 “불로 연단되었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값진 진주나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선배들의 신앙정신이 소중한 전통으로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반천련: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고후 8:19)

예수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일본에 입국한 지 50년이 지난 박해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반천련(伴天連)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란 뜻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7월에 반천련들은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는 반천련추방령을 내렸지만, 예수님회 신부들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탄압을 엄히 명령한 조서를 전국 각지에 내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최측근이었던 다카야마 우콘에게 배교를 명했는데, 그는 “각각께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 저의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십자가 처형 사건이 일본 나가사키(長崎)시 니시자카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명의 예수님회 신부들과 일본인 기독교인 20명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나가사키 니시자카에 세워진 26인의 순교기념비를 자세히 보면, 세 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나이는 각각 12살, 13살, 15살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12살 소년은 신부님과 엄마와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찾아 헤매며 사형집행관에게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소년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부님과 엄마와 아버지를 따라서 ‘반천련’, 곧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에 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은 ‘반천련’, 우리들이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임을 자각하고 일체감을 더욱 돈독히 하며, 두려워서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소년이 했던 것처럼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히  
11:35)

대원군 집정전후의 조선 정치상황에 관해 기술한 책 상권과 하권이 있었으나 그 중 상권만이 1886년(고종 23년) 일본 도쿄(東京) 주오도(中央堂)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을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이라 부르는데, 총 1만 7,500여 자에 이르는 한문체로 쓰였고, 헌종이 죽은 뒤 후사를 결정하는 일로부터 개항이전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박제형(朴齊炯)의 본문, 이수정(李樹廷)의 서문, 배차산(裴次山)의 평주(評註)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개화파였던 박제형은 흥선대원군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바로잡으려 애썼으며 그 정치적 이면사를 다뤘습니다. 또 각각의 주제의 말미에 평주를 쓴 배차산은 기독교문명이 한국사회에서 빚어낸 모순과 갈등에 대하여 예리하게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대원군의 정치적 행각과 개화파의 고뇌를 서술한 야사(野史)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료적 가치는 철종, 고종 초엽의 역사적 진실(史實)이 목격자인 실재인물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이며, 특히 집정대신(執政大臣)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어 소개합니다.

이때에 이르러 크게 나라 안을 수색하더니 포승에 묶여가는 행렬의 길이 잇따랐고, 포도청이 메워져 재판하기가 어려웠다. 그 가운데 무지한 농부와 아낙네와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 이를 민망하게 여긴 포장(捕將)이 간곡하게 배교할 것을 타일렀으나, 신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며 모두 매를 쳐 죽였다.... 옥중에 가두고 차례로 죽일 때에 매번 배교 여부를 물었는데, 아이들까지도 그의 부모를 따라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였다. 대원군이 이를 듣고 아이들만은 석방하라 하였으나 수구문(水口門) 밖에 버려진 시체는 산과 같이 쌓였더라.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신앙은 무엇이였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게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가치는 무엇이였을까요? 이 점을 묵상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물 - 한국 개신교회 ▣

##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 하소서(요 12:24)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박해가 있었던 병인년(1866) 9월 5일 대동강변 한사정 근처에서 조선군이 지른 불에 휩싸인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 선상에 사력을 다해 육지 쪽으로 성경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7세의 나이로 개신교선교사로 상륙을 시도했다가 순교한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최란헌)입니다. 그는 화염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권의 성경책을 품속에 넣고 물으로 나와 생포되었습니다.

이흥권(李興權)이 쓴 패강록(溟江錄)에 따르면, 평안도 감찰사 박규수(\*북경에서 토마스를 만난 일이 있음)의 심문에 통역관이었던 토마스는 “우리가 조선에 온 목적은 첫째 예수님교를 전파하려 함이요, 둘째 백미 홍삼 소가죽 등을 교역하려 함이요, 셋째 각처의 누각이나 정자를 구경하려 함이다”(吾等來意 一則傳播聖教也 二則文易白米紅參牛皮也 三則玩賞各樓臺也)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선군의 박춘권이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토머스는 급히 자기 품에 지녔던 성경책을 꺼내어 웃으면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영겁결에 성경책을 받았던 박춘권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우스면서 나에게 맞으라 권하였다. 그럼으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맞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맞아왔노라”(오문환 『도마스 목사전』).

토마스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박춘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홍신길은 서가교회, 최치량은 평양교회 창설자로,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한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교회의 예배처소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행 4:29-30)

언더우드(1859-1916)는 공적인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된 첫 선교사였습니다. 교회사가(敎會史家) 민경배 교수는 말하기를, "언더우드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서양문화 도입에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마디로 한국근대문화는 그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나를 말해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불살랐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그루 시원하게 뻗어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으로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귀자(洋鬼子) 곧 서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을 밋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요 1:12)

내가 생각하되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오히려 나를 인물 조흔 도적놈(면주자루에 개똥)이라고 흉만 보고 말도 아니하며 바린 물건갓치 보는데 타국의 보도 듯도 못한 모색 다른 사람은 도로혀 나를 친 부형갓치 사랑하여 권하며 경계하니 이거시 엇진 연고뇨 일년전에 마꾼태(매킨타이어) 목사가 객점에서 죽을 인생을 그갓치 구원하여 내섯기로 내가 아모리 무인정하고 무염치한 놈이라도 그때에 그 애쓴 은공과 약식 갑슬 걱정으로 말한즉 마꾼태 목사가 말삼하시기를 네 상각은 조흔 마음이나 재물이 업스니 할 수 업거니와 네가 진실노 고마온 마음이 나거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말삼대로 예수님을 밋으면 이에서 더 깃봄이 업겟다 하시더니 지금 로쓰 목사가 또 이갓치 참 사랑으로 권하시니 예수님을 밋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서선생 상륜의 경력」.

이 글은 한국초기 개신교인인 매서인(성경책을 파는 전도인)이었던 서상륜(1849-1925)이 고백한 글입니다. 그는 한때 “면주자루에 개똥”이니 “인물 좋은 도적놈”이니 하는 소리를 듣던, 출신은 양반이었지만,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것은 1878년 만주에서였습니다. 평북 의주와 중국을 오가면서 흥삼장사를 하던 중에 중국에서 병을 얻어 다 죽게 되었는데, 영국인 매킨타이어 목사가 그를 자기 집으로 옮겨 영국인 의사로 하여금 하루 23회씩 두 주간이나 비용도 받지 않고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서상륜은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감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때 처음 마꾼태 목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성경책도 열어 보았나이다.”

이후 서상륜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를 창립하였고, 그의 매서인(전도)활동으로 1885년 선교사들 입국이전에 이미 서울에만 70여명의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차별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지를 서상륜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등잔의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음 같으며(요  
15:1-7)

“무릇 ‘아버지가 내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가리킴이니... 비유하면 등잔의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음 같으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끝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어두운 구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특별히 큰 은혜 탓이지 스스로의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글은 문서로 남아있는 한국최초의 개신교인 신앙고백서입니다. 임오군란(1882) 당시 명성황후를 충주로 무사히 피난시킨 공을 인정받아 같은 해 9월에 일본시찰의 특혜를 얻어 박영효 일행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서번역, 도교유학생교회설립 등 한국개신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수정(1842~1887)이 1883년에 개최된 「일본전국 기독교도대찬목회」에 도포차림에 정자관을 쓴 근엄한 조선선비의 모습으로 참석해 고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수정은 전년(1881)에 신사유람단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친구 안종수(安宗洙)의 권고로 일본에서 농학박사 쓰다센(津田仙)을 만나 기독교를 배우고 한문성경을 얻어 읽게 됩니다. 안종수가 해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교는 사교가 아니야. 산상수훈만 보아도 평등주의 사상이잖아.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서구의 열강들이 모두 기독교문화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지.”

그로부터 7개월 만에 세례 받고, 한문에 이두식 토(吐)를 달아 한국어 법에 맞춘 ‘현토한한신약성서’를 만듭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고 온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유학생들을 전도하여 일본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수정은 “등잔의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음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을 뜻하심이었는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막

16:16)

“오전 10시, 세례를 받았다.... 오늘로부터 주님을 믿고 성교를 받들기로 굳게 결심했다.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윤치호 일기』 권일(券一), p. 256). 이 글은 한국 최초로 남감리교인이 된 윤치호 선생이 1887년 4월 3일 상해에서 보넬에게 세례를 받고 일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는 동년 3월 22일 이수정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1886년 초로부터 그 해 말에 이르러 저는 지금껏 제가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저의 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장차 올 세상을 위해 순결한 영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진정 죄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유교의 사서(四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잖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교훈에 매인 바 없었고 또 그 가르침들이 영혼의 문제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구하는 바를 그 곳에서 찾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악한 행실들을 떨쳐 버리려고 애를 썼고 꿀처럼 좋아했던 몇 가지 대표적 죄를 없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경과 다른 신앙서적 및 신앙 강연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생략). 저는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 소원하는 바는, 제가 가진 시간과 달란트, 그것이 한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것을 성교(聖敎)신앙과 지식 증진에 쓰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 자신과 제 형제들을 위해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밤(죽음)이 닥쳤을 때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갈래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제님이 사랑이심과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The Gospel in All Lands*, Jun. 1887. pp. 274-275).

##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됨을 의미한다(문

1:11)

백정은 칠천반(七賤班)이라 불리는 포졸, 광대, 백정, 고리장(나무껍질을 벗겨 장을 만드는 사람), 무당, 기생, 갓바치(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일단 백정의 집에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은 일체 가질 수가 없었고,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백정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조선시대 40만 백정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박성춘이란 사람도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정부를 상대로 백정해방운동을 펼쳐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백정인 그에게 이름이라곤 없었습니다. 단지 박가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장로가 되어 왕손(王孫)인 이재형(李載馨) 장로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박성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던 자신을 선교사 무어와 왕(王)의 주치의(主治醫) 에비슨이 천민인 자신을 자주 찾아와 치료해준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고 정식교인으로 출석하자 먼저 다니던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 양반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우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백정들을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3년 후인 1898년에는 백정교회와 갈라섰던 양반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백정출신 장로와 왕손 장로가 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백정 박성춘에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문과 산술을 터득하여 장로가 된 박성춘은 백정들의 계몽과 해방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간됨'의 상징이었던 '갓과 망건'까지 백정들도 쓰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정의 신분을 벗은 박성춘은 은행가로 변신했고, 아들 봉출도 세브란스의학교를 나와 박서양이란 이름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 인간됨에 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풍설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보고(행  
17:11)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김창식(1857-1929)은 21살 되던 해에 무작정 집을 나와 머슴살이도 하고 때로는 마부로 일하면서 팔도를 유람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8년간 지속하다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첫발을 디딘 바로 다음해인 1886년에 아내를 얻게 되자 정착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888년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유괴하여 삶아서 먹고 눈은 뽑아서 약으로 쓰거나 사진을 찍는데 사용한다는 소문이 퍼져 흥분한 군중이 선교사의 집이나 기독교학교를 습격하는 소위 '영아소동'(baby riot)이란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김창식은 그러한 말이 "참으로 풍설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보고 심흔 생각이 간절하였다"(『나의 교역 생활, 『승리의 생활』 1927)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여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직접 그들과 부딪치며 그들의 실체를 알아보려는 열린 자세로 인하여 그는 결국 선교사 올링거(F. Ohlinger)의 집에 문지기로 시작하여 요리사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 선교사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란 호칭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창식은 의료선교사 홀(Hall)을 따라 평양에 이주하여 일하고 있었는데 평안감사 민병석에게 체포되어 악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의사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불쌍한 친구는 백번 이상 죽는 듯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나는 창식이 석방되기 전에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닥터 홀은 그를 면회 갈 때마다 온다. 정말로 소름끼치는 일이다. 창식이 오씨나 한씨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리들이 그에게 만일 석방시켜 주면 또 예수님을 전도하겠는가 물었을 때 그는 '석방되어도 계속 예수님을 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선의 바울, 하느님께 영광!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열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믿음의 열성을 시험하는 잣대일수도 있습니다.

## 관리와 양반 신사들 사회에서 기독교 믿음을 갖는

## 최초의 일(빌 4:22)

광무 5년 신축년 봄 3월에 선고부군(先考府君: 당시 법무협판으로 이능화의 부친인 이원공을 의미함), 이상재(의정부 참찬), 유성준(내무협판), 김정식(경무관), 이승인(부여군수, 이상재의 아들), 홍재기(개성군수), 이승만(철학박사), 안국선(회경군수), 김린(관직미상) 등이 한꺼번에 체포, 함께 구속되었다. 본래 죄가 없는 터이니 어찌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었다고 하니 하리요. 관력(官歷)을 지닌 인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모순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삼년 동안의 철창생활은 괴롭고 참담한 일 이어서 고뇌가 항상 따르더니 다행히 감옥 규칙상 종교서적의 차입이 허가되고 간혹 서양인이 찾아와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인 선교사 방거(Bunker)씨가 감옥에 찾아와 전도하니 이때 감옥에 있던 여러 양반들이 서로 협력하여 신약전서를 연구하고 마음에 결심을 굳혀 세례 입교하니 이것이 관리와 양반 신사들 사회에서 기독교 믿음을 갖는 최초의 일(是爲官紳士會信教之始)이 되었다. 광무 8년 갑진년 초에 일로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석방되기 시작하여 다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출옥후 이들은 서울 연동교회에 출석했다. 이때 연동교회 담임은 기일(Gale)이었다. .... 후에 여러 양반들이 연동교회부터 분산, 각자 흩어져서 종교사업에 헌신하고 힘을 다해 정신지도에 임하였다. 선고부군(이원공)은 조종만(과주군수)씨와 함께 묘동교회로 가고, 월남 선생(이상재)은 윤치호씨 신흥우(문학사)씨와 함께 중앙기독교청년회로 가고, 궁제(유성준) 선생은 박승봉(관찰사)씨와 함께 안국동교회로 갔으며 삼성(김정식) 선생은 도쿄기독교청년회로 가서 각자 사업에 종사했다(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203-204쪽을 한글로 풀어 쓴 글).

위의 글은 1901년부터 34년의 한성감옥상황을 이능화가 기록한 것입니다. 옥중에서 많은 수의 양반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입교한 사실과 출옥 후의 행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과 같았던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죽음이나 다름없는 삶이 변하여 부활과 환희의 삶이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모지간, 숙질지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벧전 3:21)**

강화도 북부해안 홍의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897년경 서당훈장에 의해서였습니다. 훈장의 전도를 받아 믿는 자들이 생기자 서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세례를 받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거듭난 증거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새 이름을 지어주듯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름을 새로 짓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믿었고, 한 날 한 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한 일(一)자로 돌림자를 쓰자.

성은 그대로 두고, 끝 자는 한 일(一)자로 통일하고, 가운데 자만 바꾸기로 하고, ‘애’(愛), ‘신’(信), ‘능’(能), ‘순’(純), ‘충’(忠), ‘봉’(奉), ‘은’(恩), ‘경’(敬) 등의 글자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기도 후에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의마을에 복음을 전한 훈장은 박능일(朴能一)이 되었고, 김경일(金敬一), 권신일(權信一), 장양일(張良一), 주광일(朱光一) 등의 개척교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호적과 족보까지 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또 “육적으로는 부모지간, 숙질지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자간, 숙질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썼습니다. 권신일의 아들은 권충일(權忠一), 조카는 권혜일(權惠一)이 되었고, 정천일(鄭天一)의 아들은 정서일(鄭瑞一), 김봉일(金奉一)의 아들은 김환일(金還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으로 이름을 바꾼 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절도, 촌수도 모르는 상것들이라”며 “검정개”(그 때 교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음)라고 조롱했지만 ‘육적 질서’ 대신 ‘영적 질서’를 따르기로 한 교인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홍의마을에서 시작된 개명 전통은 강화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선교초기 ‘일’자 돌림으로 개명한 강화 일대 교인들은 60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가룩한 일이다(마 18:23-35)

강화도 홍의마을의 종순일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물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고 이름을 일(-)자 돌림으로 바꾼 그는 속장이 되어 성경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나오는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 받은 후 나가다가 자기에게 1백 데나리온(임금에게 탕감 받은 것의 60만분의 일) 빚진 자를 만나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빚탕감을 취소하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은 종순일은 며칠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 빌려 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기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천만 냥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백 냥, 천 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랄 할 것이요,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그는 문갑에서 빚 문서들을 꺼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를 본 빚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가룩한 일이다." 1900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종순일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마 19:16-30)을 읽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전도 길에 나섰습니다. 종순일은 성경대로 돈주머니도 식량 주머니도 차지 않은 채 청빈한 전도자가 되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강화 남부 길상면과 섬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한 결과 여러 마을과 섬에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빛은 아니 갇아도 되네(마

18:23-35)

종순일은 1917년 감리교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 주문도 진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에 주문도를 호령하던 '밀양 박씨 충헌공파' 집안의 박두병·박순병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박두병에게 '2천 원(현 시가로 1억 원 정도)의 빛을 진 채 별세하여 그 빛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난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빛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쓸 것을 쓰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절약하여 16원을 모았으나 이런 식이라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종순일 목사와 박두병·박순병을 비롯한 박씨 문중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여러 어른신, 아버님께서 지신 빛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애써 모았으나 16원 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죽기 전에 빛을 다 갚지 못하게 될뿐더러 빛 때문에 도무지 제 맘이 편치 못하여 기도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 어른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종순일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고 나서 두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과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 받고도 1백 데나리온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은 신하가 받은 형벌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동생 박순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듯합니다. 형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겠다는 형님 마음과 갚아야 된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어찌 합심하여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박두병이 무릎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세. 그렇게 합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빛은 아니 갇아도 되네." 박순병이 다시 이어 받았습니다. "형님이 2천원 빛을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부친이 내게 진 빛 60원을 어찌 받겠소? 나도 그 빛을 탕감해 주렵니다."

## 진실한 신념으로 상제를 신봉하고(마 22:35-40)

신(信)은 진실한 신념으로 상제(上帝)를 신봉하고 기독교의 교훈으로 죄과를 회개하고 진리의 삶으로써 완전한 인간의 기초로 삼자함이요, 망(望)은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관존민비(官尊民卑) 의타사상 직업차별 미신허례 등 악풍폐습을 타파개선하며 신교육(新教育)을 흡수하여 현실만에 낙념(落念) 말고 직업에 충실함이요, 애(愛)는 진정한 애(愛)의 정신으로 경천애인(敬天愛人)을 표어로 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정의로 단결하여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조국광복의 기초라(“春景具然英先生略傳”, 『獨立血史』, 卷之2, 1947, p. 179).

이 글은 의병장 출신의 순국(殉國) 전도사 춘경 구연영(1865-1907)의 3대 신앙원칙입니다. 1895년 11월부터 1896년 5월까지 7개월간의 의병활동, 1897년 2월부터 1899년 3월까지 2년의 세례학습기간, 1899년 3월 세례 받은 후 3년간의 매서인(賣書人) 활동, 1902년 권사직분(지역감리교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거쳐 1905년에 이천지역 초대 한국인 전도사가 되어 칼 대신 성경을 들고 피의 복수대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외쳤습니다.

구연영은 1897년 예수님을 영접한 후 “동중(洞中) 상인급(常人及) 노복(奴僕)등에게까지 존칭어를 사용하시니 당시에 보는 이들이 밋쳤다고까지 하였으며 선생은 열심히 대중을 권하여 참 신(神) 하느님을 찾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救主)로 신(信)하여야 개인이나 민족이나 생로(生路)가 있을 것을”(원용한, “故具然英氏略史”. 『감리회보』 27호, 1935.3)의 치셨고, 일진회(一進會)를 자주 규탄하다가 1907년 8월 24일 일본군에 체포되어 이천장터 미루나무에 묶인 채 25세 된 아들과 함께 총살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변화(=거듭남)를 의미합니다. 오래 믿었더라도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값싼 믿음입니다.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의 만찬은 천국시민으로써 갖춰야 할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지친 영혼에 쉼터가 되어주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 종교는 기이한 행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전

4:20)

탁사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의 『만종일련』(萬宗一巒)과 논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교는 기이한 행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앓은뱅이가 걷게 하시며, 나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자 귀 밝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귀(邪鬼)를 쫓아 이적을 행하였고,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였으나, 다른 종교의 기이한 행적은 더욱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다.

석가세존은 가도산 화굴(火窟)에서 득한 용을 어거하여 바리가운데 저장하였고, 달마존사는 소림 돌 벽에 7년을 묵좌(默坐)하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소반을 던져 중을 구원하였으며, 노자는 길상초(吉祥草)로 미인을 만들며, 진영부(眞靈符)는 서갑(徐甲)의 백골을 회생시키고, 난파(欒巴)는 술을 뿜어 불을 끄고, 갈현(葛玄)은 밥을 토하여 벌(蜂)이 되며, 초평(初平)은 돌을 꾸짖어 양(羊)이 되었으니, 선도와 불가의 기적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는 이적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속(贖)하고 영(靈)을 구원하는데 있으니...

대비경(大悲經)에 이르기를 “부처가 저승에서 장사꾼이 되어 여러 상인들과 바다를 건너다가 중간에서 파선이 되어 혹자는 가라앉고 혹자는 뜯지라. 나는 뜨는 주머니를 가지고 편안히 건너니, 다섯 상인이 나를 보고 구원을 청구하기에.... 나는 가지고 있던 칼로 나의 목숨을 끊으니 상인들이 모두 나의 시체를 의지하여 얻어서 상륙할 수가 있었다.”하니, 이것 또한 자신의 생명을 버려 대방을 구원한 것이지만 다섯 상인에 불과하며, 살기를 요구한 것은 다만 육체의 생명이라. 이 같은 상인으로서만 백성의 죄를 속(贖)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게 할 만한 능력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기독은 상주(上主)와 삼위일체요 독생성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와 사후에 부활하여 음부의 권리를 이기심은 귀천(貴賤)의 남녀를 물론하고 신자를 구원하심이라.

## 옥식(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요 6:55)

한국 최초의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의 저술 가운데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명산인 성산(聖山) 영대(靈臺)에 유교의 선비인 진도(眞道)와 불교의 도승 원각(圓覺)과 도교의 선사 백운(白雲) 그리고 기독교도 신천옹(信天翁) 등이 모여 사흘에 걸친 토론 내용을 이야기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옹(信天翁)이 유교에 내세론(來世論)이 없음을 지적하는 글에서 최병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름 별네는 겨울의 어름을 말할 수 없고 우물 안의 개고리는 하늘이 적다 하나니 이는 정(正)히 선생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공자가 비록 하나님에 내신 성인(聖人)이긴 하나 날도와 죽는 것(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리)을 아지 못하심이 변고가 아니어늘 왜 신의 말을 믿지 않는가(『신학월보』 229-231쪽).

또 신천옹(信天翁)이 불교에 유신관(有神觀)이 없음을 지적하는 글에서는 “천지만유(天地萬有)를 창조하신 주재외(主宰外)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함은 실(實)로 불가사의로다” <『만종일련(萬宗一禱)』 39쪽. \*하나의 진리 곧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 종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을 논한 책>고 하였고, 원각대사(圓覺大師)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이왕에 불교를 숭상하기로 천당지옥이 있음을 믿거니와 능히 불교의 허무함을 버리고 예수님교의 진실함을 좇치리가... 소식채죽(蔬食菜粥, 거친 음식과 풀죽)과 고량옥식(膏糧玉食, 기름지고 맛난 음식)이 다같이 음식이로되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이 있나니 옥식(玉食)을 만나지 못하여서는 초식(草食)을 먹으려니와 옥식(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라(『신학월보』 230쪽이하).

그렇습니다. 일반종교가 역사적 사명과 의미가 없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래된 후에는 그 위치가 마치 밤의 달과 낮의 해처럼 바뀌고 맙니다. 밤에는 달이 빛 구실을 하지만, 해가 나타난 낮에는 달이 빛을 잃듯이 또 곡식이 있을 때에는 초식을 하지 않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 유배지에서 깊어진 야소신앙(벨진 1:18-19)

이준은 185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으나 세 살 때 부모를 잃었고, 12살에 결혼하였으며, 29살에 초시에 합격하였고, 법관양성소를 졸업 후 한성재판소 검사보로 일하던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준은 민영환을 중심으로 이상재 등과 함께 1902년 개혁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1904년에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진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철도(鐵島)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이곳 유배지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준은) 야소(耶蘇)의 성경을 심심광색(深深廣索)하기에 전심전력을 다 하였다. 그리하여 정신의 부흥을 성경의 오의(奧義)와 심지(深旨)에 일원화하여 황연(恍然)히 만수귀일(萬殊歸一)의 진리를 체득하여 기독교를 주(主)로 독신자가 되었었다.... 이 성경의 심공(深工)을 유의하여 오다가 이 유배 가운데에서 한중일월(閑中日月)을 얻게 되어 야소의 성스러운 희생의 정신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आयु화(我有化)하게 되었었다.... 실로 이준 선생의 종교생활의 각성은 이 불우한 배도(配島)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준은) 일직이 신적(信績)을 연동예배당에 두어 정치생활의 구급피난소로 초출발(初出發)하여 여러 신자들과 원원(源源)히 상종하며....(유자후, 『이준선생전』).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을사보호조약 무효상소운동이 전덕기 목사가 시무하는 상동교회에서 열렸는데, 이준은 김구 등과 함께 적극 가담하여 상소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의병운동이 구사상의 애국운동이라면, 우리 예수님교인의 항일운동은 신사상의 애국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1907년 6월에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다가 7월 14일 묵고 있던 호텔에서 돌연히 순국하였습니다.

공자는 당신의 스승,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요  
20:17)

1912년 『그리스도회보』에 실린 이화춘 목사가 쓴 “신도와 학자 사이에 문답한 것”이란 글에 다음과 같은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신도: 당신이 공자를 숭봉하신다니 당신과 공자와 어떻게 되는지요?  
학자: 어떻게 되다니 대성현이시지요.

신도: 아니요 나도 공자가 대성현이신 줄은 압니다마는 당신이 공자와 어떻게 관계된 것을 묻는 말이오 학자: 공자와 관계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 수 없소.

신도: 내 말은 당신이 공자와 사제간이 되는지 부자간이 되는지 묻는 말이오 학자: 응- 인제야 알겠소. 그렇게 말하면 부자간은 될 수 없는 말이오 사제간은 꼭 되지요.

신도: 사람이 어려서 글방에 가서 글을 여러 해 동안 배워 성공한 후에는 그 스승과 한 평생을 삼니까, 자기의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와 평생을 삼니까? 학자: 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어느 미친 사람이 글을 배워 성공한 후에 그 스승과 평생을 산단 말이오 아- 별소리 다 들겠소.

신도: 그러면 누구를 평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학자: 글을 다 배운 후에는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옳지요.

신도: 내가 들으니 유가에서 말하기를 천생중민(天生衆民)이라 한다 하니 하나님과 인류(人類)는 부자간 됨이 분명치 않습니까? 학자: 그렇게 말하면 하늘과 부자간이 되구 말구요.

신도: 그러함으로 내가 항상 당신을 권하는 말은 공자는 당신의 스승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됨이 분명하니 공자와는 그만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하는 말이오... 내가 권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성자 구주 예수님을 찾아 공경하라 함이오 이단지도를 하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외다.

이화춘 목사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상인출신으로 기독교를 사제지간(師弟之間)이 아닌 부자지간(父子之間)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무삼회를 조직하드라도 예수님교에 다니난 것이

### 유익있다(몬 1:11)

구한국 군인 출신으로 나중에 구세군 사령관을 지낸 황종률(1887-1961)은 황희 정승의 후예로 대구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군인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906년 황종률은 구한국 대구 주둔 부대인 제3대대 소속 서기였습니다. 당시 구한국 부대는 서울에 시위대를 두고 지방에 8개 진위 대대를 두어 전국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대구 주둔 제3대대는 경남 경북 부산을 총괄하는 대규모 부대였습니다.

본래 황종률은 기독교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거나 집회를 해산시키곤 하였습니다. 특히 매주 교회에 가겠다고 나서는 군쵸(상사)의 주장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욱 혐오하게 만들었으나 군쵸와 같은 이들의 신념에 찬 믿음의 행동은 결국 황종률을 기독교에 관심 갖게 만든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쇼대에 하사관은 삼인인 바 군쵸 일인 오장 2인이다. 매일요일밤이면 삼분지일을 출번을 하난대 서기가 정하는 것이다. 그시 쇼대군쵸는 매일요일이면 빠짐업시 출번을 하겠다 하기로 혼자만 그렇게 못한다고 한즉 그 군쵸난 답하기를 나는 주일 직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까지 하여 군인으로 주일 직힘이 무삼 관계가 잇스며 특히 쇼대 어른으로서 그와갓치 육심 만흔 일을 하면 아니된다고 주창하니 그난 그리스도교를 나의게 설명한 것이다. 처음에난 극력 반대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당신갓치 자기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업셔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 예수님교인의 전도를 반박할 계획까지 세워 한번은 길에서 전도하난대 방해까지 하였스나....(황종률, “그리스도와 구세군과 나 자신” 『사관잡지』 14권 6호, 1939 .5·6, pp. 94-95). 그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니 모다 지식 이 잇고 또한 자조 그 설명을 듯난가온대서 예수님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상종할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자 무삼회를 조직하드라도 예수님교에 다니난 것이 유익있다고 각오하였다(위의 글, p. 96).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신념에 찬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은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결단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별과 나비 같은 곤충도 옛 껍질을 벗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듯(요 3:3)

장석초(1876-1956)는 한학과 복음을 조화시킨 성결교회목사입니다. 그는 13세 때 사략(史略)과 통감(通鑑)을 떼었고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을 공부하였으나 한문(漢文)은 부패한 학문이란 생각이 들어 포기하였고, 27세 때(1903년) 서양문명을 배워볼 생각으로 하와이 이민 길에 올랐으나 혹심한 노동에 시달린 끝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40대 중반까지 음주와 방종, 탐심과 사기, 악독과 궤환, 출처(出妻)와 축첩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진리의 본원』이란 일본어기독서적을 읽고 유학과 불교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진리의 본원이 기독교 안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이 중생치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별과 나비 같은 곤충도 옛 껍질을 벗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듯 인간도 옛날의 추한 껍질을 벗어 버려야 새로운 탄생, 곧 중생(重生)을 체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 이야말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옛 껍질을 지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했던 자신의 모습을 교인들 앞에서 간증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전후 심령상 경험과 죄악의 조목에 대하여 고백한 후에 제반 불의지물(不義之物)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실개(悉皆=모두) 반환하고 일일청장(一一淸帳)하였드니 심령이 상쾌하고 희열이 충만하며 외지사무(外地事務)의 흥망이 심할지라도 여가만 잇스면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신석(晨夕=아침저녁) 불식(不息)하니 신앙의 열정이 여화치성(如火熾盛=불길같이 일어남)하며 심성의 변화와 언행의 작용이 더욱 경건하여 지고 세상 허영과 명예와 재산 등 각공(各貢) 물질상 경향심은 일점도 무(無)하며 심신을 온전히 상제께 부탁하는 신앙이 확립되었다(장석초, “여(余)의 구원얻은 경략(經略),” p.23).

홍산에서 유학자 칭호를 얻으며 15년 넘게 훈도(선생)로 지내던 장석초는 과거를 털어놓고 회개했을 때 중생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 가는 길목마다에 해타라는 짐승이...(계 2:3)

.... 현재 잡고 올라가려는 선도(仙道)란 줄은 썩은 줄과 같아서 위구(危懼)의 염(念)이 심하고 저편에 있는 예수님도(道)라는 줄도 기실(其實) 든든한지 하는 의혹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반생적공(半生積功)의 선도(仙道)를 더 의지할 수 없고 예수님도(道)를 믿으려 하나 그 역시 구원 영생의 도인지? 의구에 쌓였다[김인서, “영계선생소전(靈溪先生小傳)”, 『신앙생활』, 1932.12].

위의 글은 길선주(吉善宙, 1869-1935)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삼령신군(三靈神君)에게 “현세(現世)를 움직이는 예수님도(道)가 참 도인지 거짓 도인지” 알려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고 번민만 쌓여갔는데, 『천로역정』을 읽고 예수님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때에 김종섭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김]삼령신군께 기도하니 어떠하오? [길]번민만 날 뿐이오 [김]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오 [길]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 칭하리오? [김]그러면 아버지란 칭호를 빼고 그저 “상제”님이라 칭하여 기도해 보시오

길선주가 기도의 대상을 삼령신군에서 상제님으로 바꾸고 기도를 시작하자 사흘이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적막한 가을밤에 꿇어 엎디어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피리소리와 같이 청량한 소리가 방안에 들리더니 이어 총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리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라고 세 번 부르는 소리에 두렵고 떨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디어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방성대곡하니 그때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더욱 기도에 힘썼다.

이 일후로 길선주는 1907년 장로교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고, 초기 교회부흥사와 3·1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국가와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1904년 『해타론』(懈惰論)이란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이 이곳 소원성(所願城)에 살면서 고난산(苦難山)을 넘어 성취국(成就國)을 통해 영생국(永生國)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목마다에 해타(계으름)라는 짐승이 숨어 있어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내용입니다.

## 장님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전

### 1:22-24)

선교사 데밍(C. S. Deming)이 1906년 본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써서 보고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암기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세 사람이 나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암기력을 성경공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개성에 있는 맹인인데, 그는 아들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4복음서를 외울 뿐 아니라 어느 장, 절을 지적하든지 그것을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속장인데 역시 성경말씀을 탐독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성경책을 파는 전도인)인데, 아무 성경 구절을 갖다대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정확히 밝혀냅니다. 과연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 이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글에 소개된 개성 맹인이 바로 ‘조선의 삭개오’로 알려진 전설적인 전도자 백사겸(白士兼, 1860~1940)이란 사람입니다. 백사겸 전도자는 일찍이 부모를 다 잃고 점(占) 치는 일을 배웠는데 나중에 ‘명복(名卜)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낯선 사람(매서인 김제옥)이 찾아와 손에 쥐어준 『인가귀도』란 제목의 표지가 빨간 책을 부인이 읽어 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 남을 속이는 점쟁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삭개오처럼 불의하게 번 재산을 정리해버리고 전도인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명복 백장님이 천주학에 광(狂) 들렸다”는 소문이 돌더니, 오래지 않아 “백장님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타고난 재치와 말솜씨로 명설교가가 되었고, 4복음서를 다 암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감리교 전도자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개성에서 목회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였으며, 다수의 교회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이제는 천주학군이러하여 죽인다 해도...(에 4:16)

유교 불교 도교와 각종 도술을 연마하여 도인(道人)이란 칭호를 얻었던 김종섭(金鍾燮, 1862-1940) 목사는 기독교를 무군무부(無君無父)요 패륜지도(悖倫之道)인 양귀자(洋鬼子)의 종교로 알고 꺼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기심마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894년 미국인 마펫(S. A. Moffett) 선교사가 한국인 한석진 등의 도움을 받아 평양에 세운 널다리 교회에 탐색차 출석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의 느낌이 다음과 같았다고 술회하였습니다.

기시(其時) 찬미책도 없고 백지에 주토(朱土)로써 예수님 날 사랑하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등을 써서 벽에 거러둔 것을 보고 일변(一邊)우섬 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은 무삼 뜻인지 아지 못하였다. 피로 씻으면 더욱 더러워질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양귀자(洋鬼子)의 도(道)인가고 비소(鼻笑)하였다. 또 상제십계(上帝十戒)라고 주서(朱書)로 벽상(壁上)에 붙쳤는데 일왈(一曰) 존상제(尊上帝) 이왈(二曰) 물배우상(勿拜偶像)등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십계명이 다 옳은 말이나 제4 계명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바쁜 세상에 7일마다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을 유혹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신앙세계』, 105호 21쪽).

그러던 김종섭이 진리를 깨닫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 믿겠다는 생각도 없고 다만 다른 사람 보지 못할 때에 술막골 예배당에 간혹 다니었는데 자연히 예수님교 책이 보고 싶고 예수님 교리를 말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교가 참 도라고 증거하게 되었다. 이려고 보니 이제는 천주학군(天主學軍)이라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스스로 생각하여 보니 내가 미친 것도 아니오 악하여진 것도 아니오 마음이 전과 같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이 많은 지라 내가 세상에 진도(眞道)도 구한지 오래였더니 이제 진도를 얻었고나 하였다.

김종섭은 불행했던 시절로 인해 말을 잃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 진리의 말이 샘솟듯 하여 그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많아져 '눈물의 사도'란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빌 2:5-11).

미륵불교의 본산이자 증산교의 발생지인 모악산 기슭 김제 금산(팻정이) 마을에서 1905년 10월 11일 집주인 조덕삼과 며슴(마부)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1908년에 세운 27평짜리 금산기자 예배당이 전북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며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이 한낱한시에 세례 받고,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같이 교회창립멤버가 되고, 같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교회의 영수(집사급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것입니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습니다. 이에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보다 아홉 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의 종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금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 내려왔을 때에도 그를 당회장 목사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조덕삼 영수는 주일대사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세형 씨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조덕삼 영수의 이 겸손한 자세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류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고, 주의 만찬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편에 서서 힘을 합친다면 조선이 해방될  
것을...(수 1:1-9)

그때 나의 심정은 표현키 어려웠다. 조선백성이 죽음을 불구하고 일제에 반항한 것은 기쁨을 억제할 수 없게 한 것이었다. 동포에대한 자부심이 불일 듯 하는 동시, 내가 1896-98년 사이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통해서 국민 앞에 뿌린 자유애의 씨가 싹튼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열매가 맺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글은 서재필이 미국에서 3·1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심정을 훗날 회고한 글입니다. 서재필은 1864년 1월 대구출생으로 한학을 공부하여 18살에 별시문과에 합격한 후 교서관(校書館) 부정자(副正字)에 임명되었고, 김옥균의 권유로 일본 도야마 육군학교에 유학, 갑신정변 참여, 독립협회 참여, 독립외교활동 참여, 해방 후 미군정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실패 후 부모와 처와 형은 음독자살하였고, 두 살 된 아들은 굶어죽었으며, 동생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서재필은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미국에 망명하여 대학을 2년 만에 마쳤고, 컬럼비아의과대학에 들어가 3년 만에 의사학위를 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구세주의 은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있는 육신을 도와주는 부모 형제도 고맙다 하거든, 무궁한 영혼을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세주 은택을 감사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찌 불쌍치 아니하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독립과 관련해서는 1932년에 비서였던 임창영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임창영이)조선 독립운동은 이제 희망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조선의 자유는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도의적으로 불가피한 임무라는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바와 같이 한 국가를 겁탈한다는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지상의 어떤 세력도 하느님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민중이 하느님을 저버리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편에 서서 힘을 합친다면 조선이 해방될 것을 그는 확신하였다(임창영, 『위대한 선각자 서재필 박사전기』 1987).

##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울더까?(고전 1:24)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1천 3백만이었다고 기독교인은 10만 정도였습니다. 삼일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5천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 수감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 백 명 당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거리에 뛰어나와 만세를 부른 사람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교인이었고, 여성의 경우 다섯 명 중 네 명이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아니고는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어윤희(魚允姬, 1880-1961)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16세에 결혼하여 사흘 만에 남편이 동학군에 나가 전사하였고, 12살에 어머니, 18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애기청산과부 어윤희는 30세에 예배당에 나가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객지인 개성에서 10여년이 넘게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영접이후에는 만학도로써 미리흠여학교와 호수돈여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 전도부인이 되었고, 개성 여자성경학원 사감으로 봉직하던 중 삼일운동 때 호수돈여학교 학생과 교회 여신도들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왜놈들은 어윤희에게 인간으로써는 차마할 수 없는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발가벗겨놓고 심문하고 때리고 불로 지지곤 하였습니다. 취조하던 검사가 어윤희에게 배후를 대라고 욕박질렀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울더까? 우리가 독립할 때가 왔으니까 쫓겨나는 것이지.” 그 후 그녀는 1년 6개월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로는 개성에 ‘유린보육원’을 세웠고, 6.25동란 중에는 서울 마포에 유린보육원을 재건하여 30년 세월을 고아들을 돌보며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윤희의 삶에서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긍정으로 변화시킨 기독교 신앙의 효험을 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 수갑찬 손에 콩밥 한꺾기를 들고...(계 13:10)

1919년 3·1운동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양전백(1870-1933)은 한국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가운데 한분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서당훈장에 불과했으나 조사(助事) 김관근의 전도로 기독교를 접하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문명과 문화, 그 종교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부터는 한문과 유교경전에만 한글과 성경도 함께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25살에 선교사 마펏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6칸짜리 초가집을 매입하여 신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후 권서인과 조사로 활동하다가 32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인들과 협력하여 명신학교, 신성중학교, 보성여학교를 세워 유명인사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37살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활동하던 중에 일제가 신성중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교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했다는 105인 조작사건(1911)과 3·1운동 때 각각 옥고를 치렀습니다. 다음의 글은 그와 함께 감방에 있었던 선우훈의 증언입니다.

밤 9시경에 수갑찬 손에 콩밥 한꺾기를 들고 다리를 절며 의복을 거두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방안에 들어서서 미친 사람같이 손바닥에 콩밥만 활터 잡수신다. 머리털 전부가 뽑히었고 한개 수영도 없었다. 내 곁에 앉았으되 반사(半死)상태로 된 그는 문안도 없고 대답도 없다(선우훈, 『민족의 수난』 독립정신보급회, 1955, pp. 102-103).

선생은 수년 뷔엿던 교단에 처음 올라서 가장 침중(沈重)한 태도로 “나는 이제 교직을 사(辭)하여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는 재감중(在監中) 통초(痛楚)에 익이지 못하여 하지 안은 일을 하였다고 입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주(主)의 교단(教壇)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없는 양과 같이 떨니 남천(南天)을 향하여 3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선생의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던 수천의 군중들은 이 한마디 말에 일시에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追悼故梁甸伯牧師”, 『신학지남』 15권 2호, 1933.3, p.31).

우리는 양전백 목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믿음이 평범했던 한 사람을 얼마나 큰 위인이 되게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인생문제 국가문제의 해결은 오직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만에 있음을 자각하고....(요 1:4)

1926년 4월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이 승하하고 동년 6월 10일에 거행된 인산(因山, 장례) 때 학생들이 주동이 된 소위 '6·10만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19년 고종 승하 때 그 인산을 계기로 일어난 3·1운동 때와는 달리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인하여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산행렬이 종로 6가 부근에 도달했을 때 단신으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천세봉(1904-1964, 성결교회 목사)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여(余)는 자유시(自幼時)로 부여조(父與祖)의 종교를 따라 유불양교(儒佛兩教)에서 약 수십 년간 시일을 허비하여 보았으나 심령상(心靈上) 하등의 유익이 무(無)함으로 인생문제 국가문제의 해결은 오직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만에 있음을 자각하고 단연히 불교도 청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성한 신앙생활을 하여 조국광복도 하나님 전에 기도하면 가능한 사(事)이니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아현교회에 약 1년간 출석하면서 학우들을 인도하였고....("중생의 복음," 『활천』 297, p.37).

"인생문제", "국가문제"의 해결은 오직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에 있음을 알았고 "조국의 광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능한 일로 알아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껏 가족전통에 따라 지냈던 유교와 불교에 비할 때 기독교는 분명 살아 움직이는 종교였습니다. 책(사서삼경)과 돌(부처)에 묶여 있는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노래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살아 있는 종교였습니다. 3·1운동을 겪은 후 민족 전체가 좌절과 허무감에 빠져 있을 때 유독 기독교는 희망을 노해하였고 생명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복음입니다.

##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 아니하다(마 10:8)

방애인은 1909년 9월 26일 황해도 황주읍 벽성리 출신으로 일곱 살에 황주읍교회에 설립된 양성학교를 거쳐 평양 숭의여학교에 진학하였다가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로 옮겨 1926년 졸업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전주 기전여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일하다가 3년 후 고향의 양성여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부터 신앙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꾀박을 받아가며 교회에 다니고,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당대의 가난한 여성들에 비교하면 부럽기만 한 삶을 살았던 방애인은 나태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책하며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에 매진한 끝에 1930년 1월에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일기에 적힌 글입니다.

1930년 1월 10일.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야!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1930년 1월 11일. 나는 어디로서인지 손뽕 치는 소리의 세 번 부르는 음향을 듣고 혼자 신성회(晨醒會=새벽기도회)에 가다. 아아! 기쁨에 넘치는 걸음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뽕소리에 잠을 깨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기쁨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체험 후에 방애인은 다시 전주 기전여학교로 옮겨 24살로 소천하기까지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 성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가다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잡고, 씻어 주고, 입었던 옷을 벗어 주었고, 월급은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료로 주었습니다. 당시에 전주 서문교회에 이름뿐인 고아원이 있었는데, 교회 지하실 한 칸 방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방애인은 월급을 모아 기본금을 만들고, 전북노회 소속 교회들을 순방하며 호소했고, 마지막엔 전주 시내 8천 호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기금을 모아 교회 옆에 집을 장만하여 1931년 고아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방애인은 온몸을 던져 고아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쓰러진 후 장티푸스까지 얻어 24살의 짧지만 굵은 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애인의 마지막 글입니다.

1933년 4월 3일. 수일 동안 나는 병으로 고생하였다. 병중에 환연히 깨달은 것은 두 가지다. 독신으로 병이 나더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시지 아니하시더니, 과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런즉 병이 나든지 죽은 후의 일이든지 염려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육신만 나고 영혼이 나지 못하면 이는 신자가  
않이오(요 3:5)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 또는 다시 난다는 말이니 곧 두번째 난다는 말이다. 그러면 첫째 난 것은 육신이 난 것이오 둘째번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혼이 나는 것이다. 육신만 나고 영혼이 나지 못하면 이는 신자가 아니오 마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성결교회의 기둥이었던 이명직 목사의 설교 “중생”의 서두입니다. 이명직은 1890년 12월 2일 서울 충정로 출생으로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종로에 있는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학관에 입학하면서부터였지만, 학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개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08년 일본 도쿄에 건너간 이명직은 1년여의 세월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길을 걸다가 구세군 전도대의 힘찬 찬송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의 속에 잠재해 있던 종교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날 저녁 그는 YMCA청년학원을 통해 알고 있던 김정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명직은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이명헌과 생활하면서 체험적 신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형(同兄=이명헌)은 자기의 임의 바른 은혜를 종종 간증으로 말할 때에 비로소 나의 심령이 흑막에 덮혀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일시(一時)나 일일(一日)이 아니라 수주간을 혹은 경야(經夜)하야 혹은 금식하며 주전(主前)에서 기도하는 중 성신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언·행·심사(心思)에 잘못된 간음이나 기만이나 무엇이던지 신(神)과 인전(人前)에 자복하야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비로소 알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음도 알고 미래의 운명도 깨닫게 될 시(時)에 나의 심령은 운권청천(雲捲青天)이 되고 깃뿔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의 신광선(新光線)이 나의 심경(心鏡)에 비치게 되었다(『恩惠記』 33쪽).

귀국 후 이명직은 22세 때에 개성 복음 전도관 전도사를 시작으로 『활천』(活泉)의 주필, 서울신학교 교수 및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기독교는 영생을 가르쳐 주었다(요 6:53-58)

현순(1878-1968)은 목회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고, 그의 유해는 1975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96년 윤치호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상류층으로부터 비롯되어 아래로 내려왔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류층으로부터 비롯되어 위로 올라갔다. 달리 말해, 유교는 소수 양반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독교는 나라의 근본인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던 현순이 교회에 나가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였습니다. 유학중이던 1901년 교회에 출석해서 깨달은 것은, “유교는 윤리, 도덕, 정치를 가르쳐주었고, 불교는 전생, 현세, 내세를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깨닫고 난 현순은 이때부터 기독교를 깊이 믿기 시작하였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현순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할 노동이민자들의 통역관으로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한인노동자 50여명을 모아 1903년에 호놀룰루에 한인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1906-1907년 사이에는 목사과정을 마쳤으며, 귀국하여 최병헌과 함께 정동교회를, 전덕기를 도와 상동교회를 목회하였으며, 새벽마다 남산에 올라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한 후부터는 부흥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현순은 주일학교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던 현순은 1919년 3·1운동에 개입하게 되고,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임시사무소의 총무를 맡아 활동하다가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외무차장, 외무위원, 외무부위원, 내무차장 등을 거치며 김규식과 함께 주로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순은 미국본토와 하와이, 상해 등을 오가며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분주히 활동하다가 1968년 7월 11일 LA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관의 아들로 태어나 정붙일 곳 없던 현순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것은 기독교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쓸모없던 인간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따라보겠소. 그리고 끝장을 보리라. 만약에 체포되어  
죽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계  
2:10)

동학(東學)이란 말의 뉘앙스에서도 느낄 수 있듯 동학은 당시 천주교로 대변되는 서학(西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반(反) 기독교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1893년 3월 서울에서 동학교도들이 복합상소(대궐문박상소)를 올릴 때 서울 시내의 선교사들 주택 문마다 「예수님교 배격문」이 나붙었습니다.

저들(선교사들)이 소위 하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인즉 하늘에 패륜하고 비록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사람을 혹(惑)하고 있으니 이는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랴“(기포드 선교사 때문에 붙었던 격문 중에서).

이런 동학도들 가운데 황해도 신천 출생으로 서당의 훈장과 말단행정 직인 유사(有司)를 지냈으며, 동학교의 접주(接主)와 오읍도령장(五邑都令長)을 지낸 방기창(1851-1911)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중은 동학지도자들이 문을 여닫지 않은 채 출입하고 축지법을 쓰며 공중으로 걸어 다니고 둔갑술을 쓰는 도인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어서 웬만한 병은 주문하나로 고쳐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며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군의 대장이었던 방기창은 주문과 주술을 통해서 치병치세(治病治世)하겠다는 동학의 한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황해도에서 경군(京軍)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도술의 하나인 벽곡(辟穀)을 찾아나섰다가 조카를 통해서 선교사 마펫(Moffett)을 만나 전도를 받고 이전에 동학도로서 심히 배척했던 예수님교에의 입문을 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따라보겠소. 그리고 끝장을 보리라. 만약에 체포되어 죽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J. S. Gale, *The Vanguard*, p. 37). 이후로 방기창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고, 최초로 창립된 한국인 목사 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갖는 이 변화의 능력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교육이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딤후  
3:16-17)

무너져 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배당을 세워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단발하여라. 그래야 우리도 문명국과 같이 잘 살 수 있다.

위의 말은 직간접으로 경기도 강화에만 70여개, 개성, 평양, 원산 등지에 170여개의 학교를 세웠다는 이동휘가 눈물로 호소했던 강연내용입니다.

이동휘는 1873년 12월 3일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대성리에서 태어나 18세에 때에 단천 군수 홍종후 밑에서 통인(通引)이란 심부름꾼으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탁지부(度支部) 대신을 지낸 이용익의 소개로 군관학교에 관비생으로 들어가 졸업 후 참위(參尉)로 임명되어 오늘날의 경호실장과 비슷한 궁전진위대장에 임명되어 고종을 호위하였습니다. 1902년 7월에는 참령(參領)으로 진급하여 강화진위대장에 부임하였는데, 이곳에서 기독교에 입문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도와 성경읽기를 힘썼고, 각종 예배와 집회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며, 자신이 체험한 마음의 평안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동휘의 변화는 그를 흠모하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큰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은 참으로 큼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개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 조선에 발달된 서양학문과 천주교를 들여온 이들이 실학파였고, 19세기 말 조선에 민주주의를 비롯한 서양학문과 기독교를 들여온 이들이 개화파였습니다. 19세기는 실학파 천주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진보적이고 희생적인 기독교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20세기는 개화파 개신교인들이 심한 탄압 속에서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기독교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특히 초창기 개신교 교인들은 이 땅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독립 국가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였고, 곳곳에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에 공헌하였으며, 민족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 이동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복음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의 특징도 역시 변화입니다.

## 피와 눈물이 엮기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 살기를 약속하시이다(벧전 4:8)

수유리 한국신학대학원 현관에 들어서면, 송창근(宋昌根, 1898-1951) 목사의 상반신 부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함북 용기출신으로 만주 유학시절 이동휘 장군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너는 가서 목사가 되라”는 이동휘장군의 말을 새겨두고 귀국하여 피어선성경학원에 입학하여 1920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재학시절 삼일운동이 일어나 만세를 부르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1923년 일본에 건너가 도요대학(東洋大學)과 청산학원(靑山學院)을 마치고, 도미하여 프린스턴신학교와 웨스턴신학교를 거쳐 덴버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1932년 귀국하여 평양 산정현교회를 시작으로 목회를 시작하였고,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 설립에 간여하여 교장 일을 보시다가 6.25 때 납북되어 1951년 이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의 설교 가운데 「감격의 생활」이란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감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감격의 충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이 이해타산이오 무생기 무생명의 기계적입니다.... 너무 은혜를 물질화하고 기계화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은 이해타산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규정으로써 신령한 은혜를 기다림은 나무를 가지고 생선을 구하는 무지에 갓가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피가 끌코 생명이 펄펄 뛰는 조선 기독교의 젊은 이들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피에서 살 줄 알고 이해타산에서 떠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오늘과 장래의 조선교회의 주인공은 지자(智者) 달자(達者) 수완가(手腕家) 책사(策士)가 아니외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뜨거운 감격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일하고 충성하고 걱정할 자격자가 되고 주님 몸된 교회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해타산에서 떠나서 피와 눈물이 엮기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살기를 약속하시이다.

## 지옥즉천당(地獄卽天堂)(행 16:31)

1906년 4월 25일 언더우드, 에비슨, 밀러 등 세 명의 선교사들은 고종을 알현하고 『신약전서 국한문』 2권을 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은 고종은 “대단히 좋소. 이 책 만들기에 큰 힘이 든 줄 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사교(邪敎)가 아닌 진교(眞敎)로 인식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왕이 받아보고 칭찬해 마지않은 이 책, 『신약전서 국한문』을 번역한 사람은 개화운동가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이었습니다. 유성준은 일본에서 1885년 초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에게 한글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유성준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한성감옥에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럽던 구한말 한성감옥에는 이상재, 1899년 탈옥했다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은 이승만, 1901년 모반죄로 체포된 배재학생 신흥우, 1902년 일본유학생혈약사 사건에 연루된 유성준 등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감옥에서는 일체 독서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1902년 말 한성감옥소 안에 도서실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아펜젤러(1902년 사망)와 그의 후임 벙커(Bunker)가 이승만을 자주 찾아와 기독교신문과 서적들을 넣어 주었고, 새로 부임한 감옥서장 김영선이 독서와 학습을 허락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상재, 이승만, 유성준, 이원궁, 홍재기, 김정식, 신흥우, 이승인 등은 신약전서와 기독교서적들을 빌려 수차례씩 통독한 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고, 함께 모여 토론도 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렸는데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감옥 안에서의 변화를 이원궁의 아들 이능화는 “지옥즉천당”(地獄卽天堂)이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한성감옥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은 실로 “귀차령(貴且靈)인 오인(吾人)의 지위(地位)를 회득(會得)”하는 변화였습니다. 유성준은 이 말을 『청년』지에 실은 “심사(深思)하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지옥이 천당이 되고, 몹시 귀한 영혼(貴且靈)인 나의(吾人) 지위(地位)가 회복(會得)되는 변화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수님 형님께 고하옵내다(시 86:3)

일선 치안책임자로는 고위직이었던 경무관 출신 김정식은 독립협회의 잦은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으며, 1902년 3월 22일에는 경무청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한성감옥에 갇혔습니다. 김정식은 1903년 1월부터 1904년 3월까지 15개월간 61권의 책을 감옥에서 빌려 읽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약전서, 천로역정, 그리스도신문, 야소성교입화(耶蘇聖敎入華), 신학월보, 기독교실록, 구신약전서, 야소산상수훈, 십계주해, 비유요지, 야소교요지, 야소교요리문답, 교회정치, 망문야소(望問耶蘇), 주기도주해, 구령선로(救靈先路), 신약석의 등이 있었고, 특히 천로역정과 무디의 설교집에서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옥중에서 허다한 고초로 무정한 세월을 보낼 때에 원망하며 세상을 탄식하는 맘이 가슴에 가득하고 창자에 얼켜 매양 이 몸이 독수(毒手)에 팔린바 됨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폭발하여야 머리털이 우를 가르치고 더운 기운이 목에 막켜 적은 음성도 내일 수 없을 때에 그 원통한 심사가 엇더하리오”(“신앙의 동기,” 『성서조선』 100호, 1937. 5) 하면서 가슴을 치던 그가 극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 밤 고요하고 잠들지 아니할 때에 스사로 이 육신의 불상한 지경을 생각하며 전전반측(輾轉反側)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누운 요에 함께 앉으신지라. 그 무릎을 붓잡고 하는 말이, 나는 육신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내 불상한 사정을 고할 곳이 없으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친절하시고 지극히 불상히 녀이시는 예수님 형님께 고하옵내다...허다한 죄상과 허다한 회포를 다 고할 때에 두 눈에 눈물이 비오듯 벼개를 적시더니 예수님께서 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되 네 회개함을 내 아나니 너무 서러마라. 그 말삼이 귀에 들릴 때에 그 불상이 녀이시는 음성에 감동하여 자연 마음이 주락하여져서 무슨 큰 짐을 벗은 모양도 같고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도 같으며... (“신앙의 동기,” 6쪽).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 아나니 너무 서러마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경이 사람의 맘을 곧치 다시 만드는 능력이(딤후 3:14-17)

김정식(1862-1937)은 옥중에서 “예수님 형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했던 외로움, 수치스러웠던 과거,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예수님 형님” 무릎을 부여잡고 모두 털어 놓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맹인 된 딸을 천주교 고아원에 보낸 것이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였습니다. 그 외에도 술 마시고 방탕했던 생활, 교만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숨김없이 고했더니 그 “예수님 형님”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네 회개함을 내 아나니 너무 서러마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나니” 이 한 마디 말이 그를 구했습니다. 큰 짐이 벗겨져 나가는 느낌, 물속에서 건짐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극치의 체험이었습니다. 김정식은 옥중생활이 것처럼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 몸이 이 옥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스면 어찌 이런 은혜를 얻었스리오. 그런즉 우리의 몸을 포함한 사람이라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로다. 나의 생각하는 바가 이같이 사람을 용서하는 지경에 다른 일을 헤아리면 잊지하여 이같이 변하여진 것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지라. 도대체, 전일에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탄식하는 맘이 항상 불붙듯하든 때와 크게 달리졌스니 성경이 사람의 맘을 곧치 다시 만드는 능력이 이같은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다(김정식, “신앙의 동기,” 『성서조선』 100호, 1937, pp. 6-7).

이같은 체험은 비단 김정식 혼자만의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투옥되었던 정치범들의 공통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물론이고 이상재, 이원규, 홍재기, 유성준, 이승인 등이 이 시기에 김정식과 비슷한 개종체험들을 하였고, 1903년 12월경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옥중집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1904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이들은 모두 3월에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김정식은 신앙만 여덟 번째 읽던 중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체험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인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 눈물과 땀과 피(히 11:1)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은 평양 출생으로 미국과 국교가 트인 1882년(음력)에 출생하여 한평생 미국 선교사와 기독교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한편 백범(白凡 金九)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맺어지던 해에 출생하여 거의 평생을 일본에 대결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인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조만식은 기독교에 입교한 이후 숭실학교에 입학하였고, 동경 유학시절에는 장감연합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협력하였으며, 귀국해서는 오산학교와 송인상업학교에서 가르쳤고, 평양 YMCA 총무와 산정현교회 장로로 시무하였으며, 주기철 목사를 격려하여 그가 용감하게 신사참배반대 투쟁을 선도하도록 했습니다.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같은 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시 “예수님이 인자(人子)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교훈은 눈물과 땀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하며, 최후에 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만식은 1921년부터 1932년까지 11년간 평양 YMCA 총무로 봉직하였는데,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을 낳는다는 신념아래 노력하였습니다. 또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기를, 태산을 움직이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라면서 높이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만식은 조선의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일동일교회(一洞一教會) 갖기를 주장하면서 평안남도 대동군 추을미면 이천리의 3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1동 : 신자 극소 술집 두 집 극빈(極貧) 30-40호.

2동 : 신자 반수 술집 한집 소빈(少貧) 40-50호.

3동 : 신자 거진 술집 없음 초부(稍富) 40-50호.

조만식은 장로로써 예배 때에 항상 겸손히 맨 앞자리에 앉았고, 당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와 같은 분이 계셨기에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과 같은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 한국 교회의 ‘후스’들(계 2:10)

일제 말에 일본의 종교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 당해 본국(미국)에 머물고 있던 클라크(C. A. Clark, 관안련) 선교사가 본국 교인들에게 편지 형태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1941.10.1). 선교사 경력 40년 중 30년을 평양신학교 실천신학 교수로 보낸 그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추방당한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을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신앙을 배반하였다”고 말하며 다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라크는 달랐습니다. 선교역사 50년을 갓 넘긴 한국 교회에 믿은 지 10년도 채 안 되는 한국 교인들에게 후스(John Huss)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짧은 선교 역사를 지녔음에도 한국 교회에 ‘후스 같은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후스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평양 언덕들 위에 있는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의 하나, 아름다운 벽돌에 배당의 주기철목사라는 이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거의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음에도 교황 앞에 선 루터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크는 평양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를 중세 가톨릭교회의 종교 폭력에 맞서 죽음으로 신앙 양심을 지킨 순교자 후스, 로마 교황 앞에 당당히 선 종교 개혁자 루터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라크는 주기철 말고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교인이 2백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한국교회 전체 30만 교인 중에 투옥자 2백 명이 차지하는 비율(0.067%)을 미국 교회에 적용하면 미국 교인 1억 2천만 중에 적어도 8천명이 “사당에 끌려가 우상 앞에 절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투옥당해야 할 것인데, “과연 가능하겠는가?”고 질문하며 미국 교인들의 반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박해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수난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때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눅 9:23)

주기철 목사는 1897년 경남 창원군(지금 진해시) 출생으로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1925년 졸업한 후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부산초량교회와 마산문창교회를 거쳐 1936년 평양산정현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938년 봄 신사참배반대를 이유로 경찰서에 검속되었고, 풀려났다가 그 해 9월 총회를(평양, 신사참배가결) 앞두고 '농우회사건'으로 다시 검속되었으며, 1939년 2월 풀려났다가 다시 10월 중순에 노회를 앞두고 검속되었습니다. 그가 검속된 상황에서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 파면과 산정현교회당과 사택을 폐쇄시켰습니다. 따라서 1940년 3월에 잠시 석방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에게 갈 교회도 집도 없었습니다. 결국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1940년 9월 다시 검속되었고, 1944년 4월 21일에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유재기 목사가 주도한 '농우회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경북 의성 경찰서에 압송되어 고문과 악형을 받고 잠시 풀려나 기다리고 있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써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끌고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막내아들 주광조 장로는 아버지가 마지막 검속 당하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아버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님은 툇마루 기둥을 붙잡으시고 가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끌어안고 "목사님, 지금 문밖에 교인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그래, 가야할 길이라면 가야지요" 하시고는 두 분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 할머니께 하직인사를 하시고 성경찬송을 들고 문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겻세마네기도'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도 고문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써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누가도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진리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계 13:10)

1939년 12월 조선예수님교장로회 산하 평양노회가 평양 남문바깥 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기철을 목사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듬해 4월 가석방으로 풀려나서야 자신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006년 4월 17일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양노회가 어제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67년 만에 복권시켰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동화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주기철 목사의 순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양노회의 참회예배’에서였습니다. 평양노회는 ‘참회 고백서’를 내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했던 죄를 참회한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승중 장신대 교수는 주기철 목사의 복권에 67년 세월이 걸린 것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는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평양노회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기를 기다려 왔는데 이제야 이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경남 창원 웅천이 고향입니다. 웅천은 임진왜란 때 왜장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가 3년 가까이 ‘웅천영’을 치고 앉아 갖은 약탈과 학살을 자행한 ‘한(恨)의 고장’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웅천에 온 춘원 이광수로부터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서 애국자 교육을 받으라.”는 강연을 듣고 오산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오산학교 은사가 고당(古堂)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6년 마산까지 찾아온 고당의 권유를 받고 경남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 산정현교회로 옮겼습니다.

1940년 네 번째로 투옥된 주기철 목사는 발톱이 모두 뭉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육체의 재앙을 피하려고 우상 앞에 엎드릴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44년 47세에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천황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계 14:12)

1930년대 말부터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도 높게 강요하였습니다.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이라 믿었던 일제는 천황과 예수님을 대립시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황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는 물음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탄압으로 1000여명의 개신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50여명이 순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순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1897~1944)입니다. 이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국민의례로 국체를 봉양하는 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설득되어 일본의 기독교회들과 한국의 신·구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8년 2월부터 평양감옥에서 절명한 1944년 4월 21일까지 모두 네 차례 구속되었고, 그 때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이러다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순교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고문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일제의 억압에 굴복하고 말 것만 같은 불안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이런 극한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로서는 주기철 목사와 같은 이들을 강력한 반체제항일저항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이를 정절의 문제로 간주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황제숭배냐, 그리스도숭배냐를 놓고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택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가 천황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를 놓고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택하고 옥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총칼의 위협과 무서운 고문은 없다할지라도 황금이나, 그리스도냐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판 양자택일의 위기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내게는 신앙이 문제(마 4:12-20)

초등학교 1·2학년시절이었던 1950년대 말 어느 여름날 신평 애양원 바닷가 근처에 있던 한 무덤 앞에서 친척 되는 형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손양원(孫良源) 목사님의 묘소였습니다.

손양원은 장로교 목사로서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서 아버지 손종일(孫宗一)과 어머니 김은수 사이의 삼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주일학교에 다녔고, 1913년 보통학교 3학년 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희 때 동방요배(東方遙拜)를 거부하다가 퇴학당한 일이 있었고, 3·1운동에 연루되어 아버지가 마산형무소에 일 년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으로 목회할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그 일로 경남노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손양원은 1939년 7월에 신평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나환자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양원'으로 고쳤고, 그의 부인도 양순(良順)으로 고쳤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몸을 씻기고 상처 난 손과 발을 싸매주었으며, 때로는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양원은 버림받고 소외된 나환자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연행되었고, 1945년 8월 17일 출옥 때까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1943년 5월 출옥될 예정이었으나 전향해야 나갈 수 있다는 검사의 위협에 “당신은 전향이 문제지만, 내게는 신앙이 문제”라면서 끝내 거부함으로써 석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손양원은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 체포되어 여수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28일 총살되어 순교하셨습니다. 두 손바닥에 총탄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 죽는 순간에도 기도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평생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펄박을 당하시고,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있던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빼닮고 있습니다.

##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를 조선 위에(딤후 3:16-17)

김교신(1901-1945)은 1927년 7월 함석헌, 송두용, 유석동 등과 우찌무라 간조의 문하생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창간하였는데, 창간사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걱정을 같이하고 소망을 한 곳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 5, 6인이 동경 시외 스키나미 촌에서 처음으로 회합하여 <조선성서연구회>를 시작하고 매주 때를 기하여 조선을 생각하고 성서를 공부하면서 지내온 지 반년 남짓하여 누가 동의하여 어간의 소원이던 연구의 일단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니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라 하게 되도다. 그 이름의 우열과 시기의 적부는 우리의 불문하는 바이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란 두 글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1권 뿐이니 양자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소원은 이를 통하여 열애의 순정을 전하려 하고 지성의 선물을 그녀에게 드리려 함이로다.

김교신은 함흥출신으로 보통학교와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이듬해 4월에 거리설교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입교를 결심하고 야라이정(失來町) 성결교회에 들어갔고 6월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1927년 4월에 귀국하여 함흥영생여자고등학교, 서울양정고등보통학교, 경기중학교, 개성송도중학교에서 차례로 교편을 잡았습니다. 윤석중, 유달영, 손기정 등이 그의 제자들입니다.

김교신은 성서를 떠나서는 “조선”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1935년 4월호 권두언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과학조선의 운동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이 아니요... 덴마크식 농업조선을 중흥하려는 기도가 시의에 불합함도 아니며... 상공조선이나... 공산조선 등이 다 그 진심 성의로만 나온 것일진대 해로울 것도 없겠지만... 그러므로 이러한 구형적(具形的) 조선 밑에다 영구한 기반을 놓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민족사랑(에 4:16)

일제의 혹독한 고문 때문에 폐결핵늑막염을 얻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년 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덕기(1875-1914) 목사는 아홉 살에 고아가 돼 가난한 숲장수 숙부의 손에 자라면서 삶의 절고를 몸소 겪고 열일곱 살에 상동교회 설립자인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조객들이 상동교회로 구름같이 모였는데, 애국동지들은 물론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남대문시장의 상인들, 심지어 천대받던 기생 백정 거지들까지 모여들어 슬피 울었다"(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고 하였고, 그 행렬이 4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전덕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늘 부패한 시체에서 흐르는 물을 피하기 위한 나막신과 악취제거용 쭉가루와 약식판 등을 준비하고 다녔고, 죽은 이들을 염하여 장례까지 치러주어 남대문시장 부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해방 후 전덕기 목사의 추도예배 때, 김구 선생은 회고하기를 그의 설교주제가 항상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민족사랑"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상동교회 90년사』).

그의 민족애는 일찍부터 싹터 독립협회 창립회원(21세), 상동교회 속장으로 교회 내에 에벳청년회 조직(23세), 초등교육기관인 공옥학교 교장(24세), 전도사 임직 이듬해 중등학교인 상동청년학원 설립(28세), 을사조약 무효투쟁(30세), 목사안수 받고 헤이그 밀사사건 모의(32세) 등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년학원의 강의내용은 주시경이 주도한 한글운동, 『발해조선사』를 저술한 장도빈과 최남선이 이끈 국사, 남궁억이 가르친 영어, 이필주가 맡았던 체육군사교육, 전덕기가 가르친 성경 등이었습니다.

전덕기와 함께 구국의 뜻을 모았던 이들을 상동파(尙洞派)라 하는데, 이승만, 이동휘, 이회영, 신채호, 이상설, 최광옥, 이상재, 양기탁, 최성모, 이승훈와 같은 분들입니다.

아홉 살에 고아가 돼 가난한 숲장수 숙부의 손에 자란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그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 줍니다.

## 잊지아야 유교에서 사람되게 못하난 것을

### 예수님교에서는 하는가(마 5:17)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끝까지 지조를 지킨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은재(殷哉) 신석구(申錫九, 1875-1950) 목사입니다. 전통 유생출신으로 33세에 기독교인이 되어 민족운동과 신비주의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고, 해방 후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가 공산군의 총에 1950년 11월 평양교외 비류강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신석구는 33세 때에 친구로부터 죄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고, “두 손을 들고 생각나는 대로 죄를 세기 시작하난대 그해 곳 33세부터 꺾구로 헤여 올라가 7세기까지 50여 가지 죄목을 손가락으로 꼽엇다”(『자서전』 p.29)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용을 알아서 철저히 반대하리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 자문자답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문: .... 현금 세계에 문명한 나라는 다 예수님교 종교국이 아닌가. 또한 멀리 타국을 말할 것 없이 우리 목전에 보는 바로 증거할지라도 유교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듣고 보고 배호고 가라치난 바가 다 그 글이라도 그 글을 배호 자 천인 중 일인의 실행자를 차자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더 예수님교로 말하면 무식자 하천배 주색잡기 부랑자 사람될 희망이 엷다 하는 자라도 입교한 지 불과 기년, 혹 기월이면 아조 새사람이 되니 무삼 일이나?

답: 유교가 잘못되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치 아니하여 그러치.

문: ... 여기 수레박퀴 돌이 유(有)한대 하나는 끄는대로 잘 굴너가되 하나는 암만 끄러도 끝너지 아니하면 그 끄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수레박퀴 자체에 무삼 고장이 유(有)함이 아닌가. 예수님교는 다 바린 사람도 드러가면 새 사람이 되난대 유교는 어려서부터 배화도 아니된다면 배호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 자체에 무삼 결점이 유(有)함이 아니냐... 잊지아야 유교에서 사람되게 못하난 것을 예수님교에서는 하는가(『자서전』 pp.33-37).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변화(=거듭남)를 의미합니다.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죄뭍치는 구름 흠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주  
없어지고(골 1:14)**

“엇지하여 유교에서 사람되게 못하난 것을 예수님교에서는 하는가. 이 도리를 좀 알아 보아야겠다...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차차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일인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교 진리는 모르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색잡기만 아니한다도 잃어버린 국민을 찾는 것이 되겠다”(『자서전』 pp.37-38)고 생각하고 1907년 7월 14일 자진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신석구(申錫九, 1875-1950)는 1908년 3월 29일 세례를 받고, 그 이듬해인 1909년 2월 1일에 전도인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신석구는 교만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란 점을 깨닫고 며칠을 울며 회개한 끝에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틀 밤 하로 낮은 내 마음이 무덤 속에 드러간 것 같았다. 나는 또 엎드려 부르지저 기도하기를 하느님이어 이제 내가 참으로 예수님께 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니 다만 이 믿음만 보시고 구하여 주소서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엮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내 머리에 떨어지던듯하여 나는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린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가슴이 찌저질 듯이 북받어오르던 죄뭍치는 구름 흠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주 없어지고 말노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깃분이 충만하여 넘쳤다. 곧 이러나며 목소리를 다하여 내 주의 도 침 받은 날 참 깃분 날이 아닌가 내 깃분 맘 못 니져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하고 웨쳤다(『자서전』 pp. 54-55).

이후 신석구 목사는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참여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검사가 일한합병에 대한 감상을 묻자, “조선은 언제든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될 것이다”고 하였고,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같이 아름다우며 자나 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며 말할 수 없는 환희중에” 지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변화(=거듭남)를 의미합니다.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눅  
19:10)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음과 부끄러움과 애담을 받는 나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 좋다는 뜻이다(『백범일지』).

김구 선생이 조국의 독립을 소원하며 그 일에 몸을 바쳤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구 같은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고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였을까요? 예수님의 소원도 수많은 독립지사들처럼 당신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소원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76장의 가사를 잘 아시지요? “내 평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 땅을 정복하라(창 1:28)

일가 김용기(一家 金容基, 1912~1988) 장로는 거의 80 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촌을 섬기고 농민을 계몽한 선각자요 농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농사에 파묻혀 부지런히 농사만 지었던 분이 아니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농본사상을 근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실천한 운동가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뚜렷하게 들어난 것은 그의 농업에 대한 사상과 실천력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기는 1968년에 간행한 자전적 전기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하였는데, 이는 생애의 목표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것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빈곤 무지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젓과 꿀이 흐르는 복지(福地)로 인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용기의 농촌운동의 핵심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 정복하라'는 말씀을 문화적 사명으로 받아드려 땅을 개간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믿었고, 이 의무를 실천할 전거를 창세기 3장 17절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에서 찾았습니다. 이들 성구를 통해서 그가 평생 강조한 내용은 기독교의 '땀의 철학'에서 나온 '부지런함'과 '근검절약'이었습니다.

김용기는 농업만큼 이익이 되는 일도 없고, 농업만큼 신성하고 긍지 있는 직업이 없다고 믿고, 평생 노력의 목표를 황무지개간에다 두었습니다. 이는 못쓰던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 듯이, 개간되지 못한 민족 정신을 개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일이요, 버려지고 몹쓸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땀의 은혜로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황무지처럼 버려진 우리 인간들을 고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김용기의 개간정신으로 거듭났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 존재의 가치와 의미(창 1:3-10)

가끔씩 내가 존재해야 할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할 가치와 의미는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와 같이 아주 작은 교회에 무슨 존재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잘 것 없는 나의 일들에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찮기 이를 때 없는 허무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강아지 똥'의 저자 권정생 선생입니다. 그분이 2007년 5월 17일 지병으로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선생은 열아홉 살 때부터 늑막염과 폐결핵을 앓았고, 신장과 방광과 부고환(副睪丸)으로 번져 전신 결핵을 앓으며 투병했습니다. 1937년 일본 도쿄의 변두리 셋집에서 태어나셨고,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헌책을 가져오면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골라서 읽곤 했다고 합니다. 열 살 때인 1946년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귀국했지만,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나서 시작한 것이 나무장수, 고구마장수, 담배장수였고, 6.25동란 중에는 점원노릇을 하다가 폐결핵을 앓고부터는 3개월간 거지생활도 했습니다. 67년에는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에 정착하여 마을 예배당 문간방에서 16년간 기거하면서 종지기를 했습니다. 80년 초부터 예배당 뒤 언덕 밑에 5평 남짓한 흙담집을 짓고 살다가 그의 표현대로 오물덩이처럼 뒹굴었던 70평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쓴 '강아지 똥'과 『몽실언니』가 60만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인세수입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입의 거의 모두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왔으며, 무소유를 실천하며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또 인세수입 모두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강아지 똥'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길가에 뒹구는 강아지 똥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빗되어 쓴 글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더럽

다고 “툼툼”하면서 피해가는 강아지 똥에도 그 나름의 존재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강아지 똥을 먹고 예쁜 민들레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따라서 이 세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삶이 없으며, 반드시 귀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정생의 작품들은 자연과 생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이웃, 병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똥배, 등 그가 그린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처럼 자신을 죽여 남을 살려냄으로써 결국 영원히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나’를 죽이고, 세상의 맨 꼬트머리에 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토록 합시다.

■ 인물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

## 나의 일생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리랴(눅 14:26)

“나의 일생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리랴.” 이것은 강순명이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직후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때에 일본 우에노공원에 몸을 숨기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살아남게 되어 주님께 바친 서언(誓言)입니다. 명년에 귀국한 청년 강순명은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강순명처럼 믿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난과 함께 가난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였고, 만 30세 때인 1928년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강령아래 독창적이고 전위적인 독신전도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인류는 다 유물(唯物)의 길을 밟는다. 우리는 신국운동(神國運動)을 기(期)함. 시대는 예수님 재림의 불원(不遠)을 고한다. 우리는 복음선전(福音宣傳)을 촉진함. 경제는 교역(教役)의 현제(現制)를 위협한다. 우리는 가족책임(家族責任)을 초월함.”

독신전도단원은 적어도 3년간 가정생활(성생활 포함)을 피하고 독신으로 농촌에 들어가 주간과 야간에 부녀자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이면 전도자로 설교하고, 마을단위로 농촌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농촌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며, 기초상비약을 준비하여 환자 치료까지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독신전도단에 지원한 남녀 청년 10여명은 익산 옛뚝이부락에 있는 훈련원에 들어가 사관학교식으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전북 익산, 전남 광산 등지로 파송 받아 농촌사업과 복음전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강순명 목사 자신도 제주도 모슬포교회로 가서 독신전도단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강순명은 본래 장로교 목회자였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와 1952년 7월 광주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연구원을 열었으며, 병들고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천혜경로원으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모범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순명 목사는 청년 때에 서언한대로 자신의 일생을 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 명상을 통해서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고 우리 마음에 무언으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 그리스도는 생명이다(요 11:25-26)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전 1:24)는 목시를 얻었다면, 최태용(1897-1950) 목사는 “그리스도는 생명이 다!”는 목시를 얻었습니다.

10대 후반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기숙사에서 처음 기독교신앙을 접한 최태용은 어느 날 침상에 누우려 할 때에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20대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게 됩니다. 27살에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이 동인지처럼 펴내던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하다가 28살에는 스스로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습니다.<주: 강명석(관서학원과 밴더빌트 대학 졸업)과 최상현(연희전문과 협성신학 졸업, 『신학세계』 편집)은 본래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으나 1930년 중반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공헌함.> 그는 이 신앙지에서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째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십허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라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창한다.”(“비교회주의자”, 『天來之聲』 17호, 1926. 10)고 하여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을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한국인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36살이던 1933년 9월 어느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살이 센 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서 “소(小)하고 순(純)한 교회”를 세우려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때 그가 제창한 표어가 “1)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어여라.”(“우리의 표어”, 『영과 진리』 81호, 1935. 12)였습니다. 이는 “분수처럼 시원하며 백합처럼 순수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파하려는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성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여 빛의 일, 살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도리를 내 마음 속에 비취게 하사(딤후

3:15-18)

감리교회 초대 총리사(감독) 양주삼(1876-납북) 목사는 십대후반부터 유·불·선 삼도(三道)에 모두 취미를 갖고 있었고 산중고사(山中孤寺)에 홀로 앉아 불경을 외우며 백일기도까지 드린 일이 있으며 동학(東學)이 성행하는 시절에는 그것을 알고자하여 1년간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유형기, 『白沙堂先生小傳』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 1939, 2장). 그러다가 1898년 22세 때에 우연한 기회에 중국 선교사 알렌(Y. J. Allen)이 한문으로 만들어낸 시사성 잡지 『만국공보』(萬國公報)와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이 공자, 주자, 장자, 자하, 주염계 등 동양 성인, 학자들의 논설을 긍정적인 면에서 수용하면서 그 한계를 기독교 진리로 보충하는 형태로 저술한 일종의 서양철학입문서인 『덕혜입문(德惠入門)』을 읽고 교회출석을 시작하였습니다. 1902년에는 중국 상해 중서서원에 유학하던 중에 세례를 받았고, 1912년에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부에 유학하던 중에 남감리회 소속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양주삼 목사는 자신의 신앙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7세부터 18세까지 공·맹의 글을 읽었고 그 후 이단의 도(道)에 잘못 들어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흑암의 세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히 여기서 광명한 도리를 내 마음 속에 비취게 하사 그때에야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는데 사망을 둘러보아도 사람은 없고 다만 동에는 뱀(일본)이 있어 삼키려 하고 북에는 호랑이(러시아)가 있어 덮치려는 세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주삼은 기독교를 통해서 비로소 현실을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국공보』와 같은 기독교 시사 잡지가 그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독교에 입문한 양주삼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양주삼 목사는 후에 일본관서학원출신의 강명석 목사를 밴더빌트대학교에 유학 보내었는데 강명석은 1936년 귀국하자마자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독교민음의 놀라운 능력, 이 변화의 능력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 실천하라(갈 1:8-9)

1908년 10월, 호가드(R. Hoggard, 許嘉斗)에 의해서 구세군이 조선 땅에 처음 소개된 때는 을사보호조약(1905)이후 헤이그밀사사건(1907)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고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으로 관리임용권마저 억탈 당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군을 물리치겠다는 애국심으로 구세군을 군대로 생각하여 입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가 된 성낙소(1890.5.16-1964.11.30)였습니다.

성낙소는 7세 때인 1897년부터 서당에서 수학하였는데 갑오년혁명(1894) 때 전봉준의 모사(謀士)를 지낸 신평곡(申平谷)이 1907년 17살이 된 성낙소에게 권하기를, “남아가 출세하여 유사시에는 제세민안(濟世民安)의 도량이 있어야 하거늘 경서(經書)만 읽을 것인가? 추수(推數=앞으로 닦쳐올 운수를 미리 아는 것)하여 천지운명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추측하는 역리를 습득하여 시기가 오면 활용하여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여 도를 닦던 중에 홍주성의병에 가담하여 왜적과 싸우려고 가던 중에 홍주성이 함락되고 의병가입이 좌절되자 구세군에 가입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병출신의 패잔병들이 구세군에 많이 가입하였는데, 성낙소는 구세군이 군대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고 1910년에 한일합방까지 이뤄지자 실망하여 구세군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충북영동지방 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1919년에는 영동지방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때 사망자가 21명이나 되었고 중상자도 수십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낙소는 기독교계의 분열을 뼈아프게 생각하던 중에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교회연합과 명칭통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이름을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라 불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한국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셈입니다. 성낙소는 “구원을 받으려거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고 가르쳤고 그 신님을 일제점령기와 6·25동란 중에도 굳세게 지켜나갔습니다. 매주일 주의 만찬예배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주의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눅  
 19:8)

1919년 3·1만세운동 때 민족대표로 서명까지 하였으나 이후 33인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동석기 목사가 있습니다. 동석기(1881-1972)는 1903년 22세 때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농장주의 눈에 들어 공부할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농장주가 동석기를 불러 하는 말이 "자네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을 하더군.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도와주고 싶다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사탕수수밭에서 노동만 하고 있어서야 쓰겠는가.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동석기는 이민을 간지 9개월 만에 시카고인근에 위치한 노스웨스턴대학에 입학하여 1913년에는 계렐신학부에서 신학석사를 받고 10년 만에 감리교목사가 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14년간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였고,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희도와 수원지방 독립운동 책임자였던 김세환 등의 구미소식통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였는데, 처음 그는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가 된 후에는 "감리교 교리를 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1927년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신시내티 신학대학원과 대빗 립스콤 대학신학부에서 수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1930년 11월 고향인 북청으로 돌아가 같은 달 29일 함전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세운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이후 1966년 은퇴하고 1971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에서 소천하실 때까지 36년 이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외국인선교사가 도착한 것이 1935년 3월이었고, 그나마 일년도 못 채우고 돌아갔으니까 동석기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갈 1:8-9)

1923년 『신생명』의 창간에 참여했던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의 인물들 가운데 강명석과 최상현은 원래 감리교회 분들이었으나 1930년대 중반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강명석(1897-1944)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독일하여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귀국 후 향리인 밀양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하였습니다. 1922년 『기독신보』에 「유년주일학교」에 관한 글을 실었고, 30년대까지 사회주의 관련 글들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감리교의 감독 양주삼 박사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테네시 주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대학 신학부(Vanderbilt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와 접촉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교파의 교회나 신조에 따르기보다는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그는 프리드하드만 대학에 일 년간 머물면서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인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에 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1936년에 11월 4일 미국을 떠난 강명석은 그해 12월에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다음해 5월 서울에 동교교회, 10월에 경주교회와 서울에 대현교회를 설립하였고, 1937년 4월 14일자에 『기독신보』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교단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3월 경남 진양에 반성교회, 1940년 3월 인천에 송림교회, 6월 경북에 동방교회를 동역자들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1944년 5월 28일, 47세의 나이로 소천 함으로써 장모와 함께 세웠던 울산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환원정신을 끝까지 이어가질 못하고 해체되거나 교단을 이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세상의 안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 예수님 믿으시오(행 16:31)

사람들이 ‘누더기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허리에 칼을 찬 일경이 말을 타고 다가와 집회를 해산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뒤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큰소리로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일경은 말에서 떨어졌고, 덕분에 그는 삼 일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제1회 졸업생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기독교문학회에 족적을 남긴 최상현(1891~ 1950)목사입니다. 최상현은 일찍이 삼승학교, 승실중학교 및 연희전문학교를 나와 모교에서 조교수와 동문회장을 하면서 후배인 조병옥 박사, 이운영 초대 사회부장관 등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펼쳤고 3·1운동 때에는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발각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후 중국에 망명하여 연경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협성신학교(감신대)를 나와 집사목사인수를 받고 목회하면서 최남선, 방인근, 전영택, 이은상 등과 더불어 문학활동도 하였습니다. 당시 집필한 서적으로는 『경험의 종교』 『근대의 위인(전3권)』 『조선청년의 활로』 등이 있고, 감리교기관지 『신학세계』의 주필을 오랫동안 맡아 보았습니다.

최상현 목사는 성서공회 총무를 맡아보던 193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선교사 존 체이스(John T. Chase)를 만나 오랜 토론 끝에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에 합류하여, 1938년 돈암동교회(현 삼선교회) 설립을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였으며,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1945년 광복이후에는 미 군정청 초청으로 국무장관 고문을 지냈고, 얼마동안 공보과장 일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러던 최상현은 관직을 버리고 귀국한 선교사들과 더불어 쓰러진 신학교와 교회들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6·25때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일제 말 그 어려운 때에 신약교회회복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을 재 헌신했던 최상현 목사의 역할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큼니다. 주의 만찬은 참여자들에게 재 헌신을 요구합니다.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높지만, 그리스도는...(딤후  
6:15)

김은석(金銀石, 1902-1963) 목사는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당구리 출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독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체득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활동하며 전도할 때에 어느 누구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 생겨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은석은 원래 장로교 출신으로 중국등지에서 전도하다가 신사참배를 피하여 고국에 돌아왔으나 국내에서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 증명서 없이 일본에 들어가 노동판을 전전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증명서가 없어 늘 쫓기는 신세였지만,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일본 순사가 김은석 목사를 체포하여 경시청에 끌고 가서 문기를 가미사마(神, 天皇)가 더 높으나,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고 물었고, 김은석은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제일 높지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하여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김은석은 석방 후에도 항일선동을 하며 전도하였고, 한번은 경시청으로부터 체포되기 직전에 교회순회를 나가버려 체포를 모면하였고, 또 한번은 1944년 초 고국에 계신 모친의 위독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바람에 체포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되었고 한일해협이 봉쇄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전도하다가 장로교 청주노회로부터 부강교회에 파송되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키며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수 인원이 신약교회로 환원할 것을 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성경연구회」를 열어 가르쳤는데, 이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충청도와 전라도 전역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또 타교단소속의 교회들조차 김은석 목사가 펼친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에 참여하는 등 80여 교회가 이 운동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참여자들에게 재 헌신을 요구합니다.

## 근본으로 돌아가자!(갈 1:8-9)

이신(李信, 1927-1981)은 전남 돌산 출신으로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산초량상고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신학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1946년 이신은 미술도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감리교 전도사로 충청도 전의에 부임하였으나 6·25동란으로 고향에 피신했다가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전개되던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분열을 거두고 신약성경 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운동에 공감하여 1951년 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이후 이름을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습니다. 이후 목회와 교수 및 방송선교활동을 하던 중 1967년에 미국에 건너가 네브라스카(Nebraska) 그리스도인 대학(신학사)과 드레이크(Drake) 대학원을 거쳐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에서 1971년 8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화여대 및 대학원, 그리스도신대, 중앙신학교, 기독교신학교, 순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윤성범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방송선교원고를 묶어 만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있고, 번역서로는 러시아 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이예프(N. Berdyaev)의 『노예나 자유냐』와 소천 후 변선훈 박사가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한 베르자이예프의 『인간의 운명』이 있으며, 유교집으로는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신의 업적은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곧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태를 회복하고 한국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려고 한 데 있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하였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항상 “근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놓고 했었다고 전합니다.

근본은 교회가 서야할 기반입니다. 그 기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 신약성서교회회복과 주의 만찬(고전 11:27-29)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새천년시대를 바라본 회개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또한 새천년시대를 예비하는 전령으로써 '회개'를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여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신정국가인 '올람 하바'(Olam Ha-Ba),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19세기 미국인들은 신대륙의 개척과 맞물려 '자유'를 화두로 한 새천년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이 전통에 매어 있었다면, 신대륙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스톤캠벨(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펼쳤던 선각자들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새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운동을 전령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전령(*Millennial Harbinger*)을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신약성서교회전통 또는 사도전통회복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주의 식탁' 곧 매주행하는 주의만찬예식입니다.

옛적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공동체의 결속과 일체감을 다지기 위해서 특별한 식탁공동체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천 년 전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식탁공동체의 회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학습기간을 길게 둔 것이나 유대인들이 식탁을 중단처럼 여겨 매일의 식탁에서조차 참여하는 공동체의 결속과 종교의식을 중요시한 이유가 바로 이 새천년운동 곧 하나님의 나라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함께 나눈 특별한 식탁 곧 주의 만찬에의 참여자격을 1-3년의 학습을 필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로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19세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천년시대를 전망하면서 신약성서교회전통인 '주의 식탁' 곧 매주행하는 주의 만찬예식을 회복시킨 것은 '물려받은 방법들'(inherited ways) 곧 묵은 전통에서 벗어나 '권장된 자기의존의 습관들'(encouraged habits of self-reliance), 곧 잘못된 것들을 가감하게 뜯어고쳐나가는 개혁정신과 신약성서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려는 개척자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정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교파구별이 없는 한국교회를 위해서(요 17:21)

한석진 목사는 1868년 평북 의주출생으로써 동향인(同鄉人) 백홍준과 서상륜의 전도를 받고 처음 기독교를 알게 됐고, 1891년 마펏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한석진은 자주주의식이 강해 마펏의 조사(助事)로 일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하여 그 진리를 내 동족에게 전하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선교사가 주는 봉급을 거절했고, 평양 장대현교회, 서울 안동교회, 마산 문창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한국인의 교회는 한국인의 힘으로 건축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또 1910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신문인 『예수님교회보』 사장이 되어서는 신문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한국인들의 현금만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선교부 자금의 유입을 차단시켰습니다.

한석진은 200년 전 미국에서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이 펼쳤던 운동과 마찬가지로 ‘교파주의’를 극복하려고 한 자생적 환원운동가였습니다.

한석진은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설립할 때에 초교파적인 연합교회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본국교회를 설득하여 “일본에서만큼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연합교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석진은 기회만 있으면 교파구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1915년 자신이 속한 경기충청노회에 ‘조선 예수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조선기독교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하였습니다. 교단명칭에서 ‘장로’자를 빼고 보편적인 ‘기독교’ 명칭을 사용하자는 그의 헌의는 물론 부결되었습니다.

한석진은 목회말년에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건립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1926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1930년에 2층짜리 웅장한 돌집 수양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기금은 한석진이 장로교회들을 순방하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수양관 간판을 달 때,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교 수양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금은 장로교인들이 했지만 공간은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공개하자.”며 ‘기독교 수양관’을 고집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의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한 한석진 목사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정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롬 16:16)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1889년 7월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철물상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배인도자 윌더(Wilder)로부터 사막에서 물을 구하다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윌더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훌륭한 유리병에 물을 담아와 유리잔에 부어서 그에게 준다면 그는 감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낮고 녹슨 찌그러진 강통 밖에 없어서 그 속에 물을 담아다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 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펜윅은 침례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신은 교파의식을 떠나서 사역하였으며 그가 관계한 교회들은 ‘대한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펜윅이 1893-95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크라렌튼가(街) 침례교회에서 얼마간 지냈는데, 씽(S. B. Thing)이란 집사가 외동딸을 추모하기 위한 뜻으로 선교회를 만들어 1895년에 6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선교자금 부족으로 1900년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하던 사역을 원산에 있던 펜윅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펜윅의 노력으로 250여 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만주와 시베리아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1936년 펜윅이 죽은 이후로 1950년까지도 침례교와는 어떤 연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펜윅이 쓴 자서전(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의 일부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자 감독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였으며,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란 의미였습니다(허긴, 『대한기독교회사: 펜윅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말콤 펜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름,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열두사도들의 가르침} 10장 6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 기도문,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하고 거의 동일한 주의 만찬 기도의 마지막 소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 사도들이 대를 이어 전한 가르침이자 전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만이 옳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 예수님의 유언과 사도들의 전통인 이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주를 사랑하거든,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 참여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찌어다"(고전 16:23-24; 계 22:21)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 질기 ■

## 제병(祭餅)과 제주(祭酒)(요 6:53-55) - 신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은 조상숭배와 효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하는 성스런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생활을 떠나서 조상과 함께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굳힐 수 있는 신성한 날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은 흠어져 살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올리며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란 공동체의식을 갖는 날입니다.

이날 차례를 지낸 후에는 음복(飲福)이라 하여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반드시 나눠먹습니다. 음복은 제사가 끝났으니 나눠 먹자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음식에 조상신의 뜻이 들어 있으니 그 뜻을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자는 주술(呪術)적 행위인 것입니다. 차례뿐 아니라 각종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분량의 크고 작음이나 질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떡 한 조각, 밥 한 톨이라도 나눠 먹어야 했으며, 그것을 먹으면 병에 안 걸리고, 액(厄)도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평안을 비는 당제(堂祭)의 경우에도 신(神)의 평안의 뜻이 담긴 제사음식은 그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나눠 먹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의 복된 삶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代贖)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신성한 의무요 권리이며 특권입니다.

---

**믿음의 법칙(롬 8:20-21) - 신년**

‘만물의 존재는 죽기 위한 것이다.’라는 엔트로피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행하게도 죽음이란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해가 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가 저야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러나 이 새해도 지기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 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의 삶은 최후승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이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이치를 거듭거듭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자기를 깨뜨려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자(계 22:16) - 신년

이상재(1850-1925)는 열여덟 살에 실학과 박정양의 집에 들어가 13년간 심부름한 대가로 벼슬도 얻고, 일본시찰도 하였으며, 주미공사 박정양을 따라 서기관으로 미국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발전된 문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캐기 시작했는데, 어느 청국인 관리가 서구문명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고 알려주면서 한문신약성경을 한권 주었습니다. 그는 군사육성법과 무기제조법과 같은 비결을 얻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오병이어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2년 친러시아파의 살생부에 들어 아들 승인과 함께 체포되어 한성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특히 1903년 6월에 신약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데, 마침내 두렵기도 한 영광에 찬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상재는 이상한 체험도 했습니다.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수년전 그대가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만 그대는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다시 그대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그대는 자기만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나는 그대 생명을 보전하여 옥중에 그대를 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그대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F. Brockman, "Mr. Yi Sang Chai", p. 218).

이 체험이 있고부터는 성서내용들이 이상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의 부활 등도 납득이 갔습니다. 석방 후 그는 YMCA 운동에 뛰어들어 신앙강좌를 열어 의식화된 기독교청년들을 길러냈습니다. 『청년』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년이며 심(心)을 신(新)하며 언(言)을 신하며 사조(思潮)를 신하며 정신을 신하며 용감을 신하며 신갑자(新甲子) 신세계(新世界)를 조성할지어다. 편히 일언으로 권하노니 신약 묵시록 제21장 1절로 8절까지 일독할진저”(“축신년”, 『청년』 1925.1).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해원상생(마 26:26-28) - 대보름

우리 민족의 세시민속(歲時民俗) 가운데 대보름 민속으로 원을 푸는 떡(解怨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보면 이해(利害)에 얽히건 오해에 얽히건 간에 누군가와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면 피차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보름 명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해원떡을 만들어 산사(山寺)의 스님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서 지난해의 불편했던 관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떡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목하는 길(解怨相生) 모색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였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연과 불편했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친히 해원떡이 되셨고, 이 떡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그분 처럼 작은 떡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계

7:14-17) -삼일절

아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3·1 독립선언문 중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과 환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인은 자연과 인류가 함께 겪는 보편적인 역사(普遍史)를 나타낸 것이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세력이 받게 될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마지막 두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부터 혹심한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재앙은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적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의 행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확대하던 바로 왕과 그 수하의 종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 그의 군사들을 홍해에 잠재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성도의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을 해방과 기쁨과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교훈에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 계시록의 가르침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눈앞에 전개시켜주실 것과 무력(武力)의 시대를 끝내고 도의(道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대한민국 만세!”의 함성을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난과 고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부활과 승리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후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식도 단지 고난만을 상징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후에 올 승리의 함성을 보장합니다.

삼일절 예배(계 7:14-17)

대부분의 신자들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과 고난 혹은 대환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인은 자연과 인류가 함께 겪는 보편사(普遍史)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추종하는 적대세력이 받게 될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마지막 두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부터 혹심한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재앙은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적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의 행사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가르침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바로 왕과 그의 종들을 열 재앙으로 벌하시고, 그의 군사들을 홍해에 잠재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성도의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을 해방과 기쁨과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교훈에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출애굽과 계시록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대한민국 만세!"의 함성을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난과 고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부활과 승리의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만세의 함성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 종려주일의 환호성(계 7:9-10, 19:11-16)

종려주일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요일에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민중이 성 밖으로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호산나'와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하며 영접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환호성은 일주일 후에 있었던 부활주일의 기쁨과 환희를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해변에서 구세주 하나님께 춤추며 환호하던 사건의 회상이자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낙원에서의 환호성이기도 합니다. 또 종려주일의 환호성은 백마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심판주를 백마타고 뒤따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큰 소리로 연호하며,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할렐루야성가대원들의 환호성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보좌대신에 십자가에, 왕관대신에 가시관을, 홀대신에 갈대를, 올리브마사지대신에 채찍을, 옥쇄대신에 쇠못을, 금띠대신에 창 찰림을, 왕복대신에 알몸의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분의 예루살렘입성과 민중의 환호성은 그분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거들 대승(大勝)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주일의 환호성과 낙원에서의 환호성의 대열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그분을 마중 나가는 일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구세주를 환호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승의 환호성이 매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맛보아지는 일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 승리의 환호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천국잔치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대승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선교회여 부활하라(빌 3:10-16) - 부활절

다음의 글은 우사(尤史) 김규식(1881-1950) 선생이 해방 후 처음 맞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활천』(1946.6. 重刊2호)에 실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날이다. 그중에도 해방 후 첫 번으로 자유스럽고도 성대히 이 부활절을 직히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무량하다.... 우리가 환국 후 이 기쁜 부활주일을 당하니 감개무량하다. 이때는 우리나라도 부활할 때요, 천국을 건설할 때요 이때임을 아라라. 저 왜적들이 남산 중턱에다 신궁을 지어놓고 우리들을 소 끌듯 말 끌듯 강제로 참배를 식히며 안에서도 별별 우상노름을 다 식힐 때 여러분의 고통은 어떠하였을까.... 37년 전(庚戌) 일본에게 합방이 될 때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아직은 너가 그런다 만은 37년 후에 이제 보자”하시고 계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일이 있어서 그리하셨음이니 단군 할아버지 때에는 우리 강토가 3만리가 더 되든 것을 이민족들에게 조각조각 다 잃어버리고 겨우 3천리밖에 안 남은 것을 그나마 사색당파 싸움하다가 왜적에게 빼앗긴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경성시키심이라. 왜적들이 신궁을 남산 꼭대기에 짓지 못하고 왜 중턱에 지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우리들노 하여금 중턱까지 올라가서 한숨을 “휘-” 쉬고 더 높은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별별 우상 노름을 하게 한 것은 우리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마음속에는 재물의 우상, 명예의 우상들이 가득 채워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치시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는 다만 3위 하나님만 계시게 하고 오직 그만 경배하자.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깨끗한 곳 새 마음을 갖고 나가 하나님께 구하자. 무엇을 구할가. 곳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구하자. 그리하여 이 때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만일 우리가 이 나라 건설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하다가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드러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밀 한알이 죽었다 다시 사러나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조선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라.

아아 조선사람아 죽음에서 부활하여 신생명에  
살자(롬 6:4) - 부활절

민간 문화재단인 조선기독교창문사에 의해 1923년 월간지 『신생명』(新生命)이 창간되었는데 소설가이자 목사였던 늘봄 전영택(田榮擇, 1894~1968)이 주필(主筆)을 맡아보았습니다. 창간사의 제목이 「인류와 신생명」이었는데 다음의 글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대도(大道), 인류만인의 자유평등의 대의(大義)는, 죽었던 우리에게 신생명(新生命)의 비출 주고, 신생활(新生活)의 힘을 주었다. 그러나 40년의 길지도아니한 역사를 가진 조선그리스도교는 벌써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니저버리고 예수님교의 근본대의를 위반하고, 거의 형식, 허례, 위선에 빠지어, 차차 침체하고 부패하여 이제 그 생명을 일허버리게되었다. 죽음을 주든 시간은 다시 부활을 주고 신생명을 준다. 아아 부활할때가 되었다. 조선사람의 영성이 다시 부활할때가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가기 전에, 이제 부활하여야하겠다. 부활하여야겠다. 조선예수님교는 이제에 부활하지아느면 안되겠다. 아아 조선사람아 우리는 무서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신생명(新生命)에 갱생(更生)하자. 아아 조선사람아 과거의 모든 더러운 인습과 죄악의 우상을 용기있게 불질너라. 모든 형식과 허위의 분묘(墳墓)를 깨트려 버려라. 우리는 신생명에 살자. 사랑과 자유와 경건의 신생활을 하자. 진실과 노력의 신생활을 하자. 조선사람아 조선사람아 나아가자 압흐로 나아가자. 우리압해 우리의 주의(主義)를 방해하는 악마가 잇거든 그 악마를 파(破)하자. 우리의 이상을 비웃는 원수(怨讎)가 잇거든 그 원수를 멸(滅)하자. 그리하고 나아가자. 시간은 사(死)를 주고 또 신생명(新生命)을 준다. 오래 죽었던 세계의 대생명이 갱생할때가 되었다. 죽었던 조선사람의 대령(大靈)이 부활하게되었다. 썩어가든 조선예수님교가 신생명을 잊게되었다. 신생명을 뱃어라 신생명에 살자. 아아 신생명(新生命) 신생명(新生命)!

성찬을 받아 드실 때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새 생명에 살자는 80년 전 외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

**부활절 예배(고전 15:51-58)**

1)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회고해 보는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의 통치의 절정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의 절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와 싸워 승리하려 오셨다면, 그는 사탄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듯 보였으나 그분은 삼일만에 사탄의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시간이며, 승리의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의 시간입니다.

## 부활과 봄날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켜집니다. 부활절은 춘분다음 첫 만월 후 첫째 주일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날짜의 간격은 음력이기 때문이며, 주일에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부활절이 봄의 활력과 소생의 계절에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봄은 자연으로 하여금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하며, 멈추었던 숨을 쉬게 하며, 죽었던 생물을 소생케 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위대한 섭리이며 기적입니다. 엔트로피이론은 우주의 죽음(無秩序化)을 말하고, 성격이론은 죽음을 안전 상태로 설명하지만, 자연은 죽음의 본능보다는 생의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봄의 활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의 의지는 극한 고통과 고난을 극복케 하며, 죽음 앞에서도 소생과 부활의 소망을 유지하게 합니다. 겨울을 일깨워 봄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약속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부활주일아침의 환희(마 28:1-10)

종려주일의 환호성은 부활주일아침에 환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의 환호성과 부활주일의 환희 사이에서 예수님은 침묵과 인내로써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환호성이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충만한 기쁨으로 구원의 문(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으나, 예수님처럼 부활의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인내로써 부활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취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회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단통치의 절정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단승리의 절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강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은 사단이 보다 강한 면을 보이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단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삼일 만에 사단의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면서 고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시간이며, 승리의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데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값진 죽음이 무엇이며, 고귀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들의 삶의 절대적 근거가 되며, 긍정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죽음으로 보고 있고, 그 죽음을 죄의 삯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삯 대신 갚아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오, 죽음의 억압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인간의 죽음문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제 이미 정복된 원수에 불과합니다. 비록 죽음이 인간에게는 큰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 곧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롬 10:9).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죽어져 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죽어져 가는 것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육체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가치 있는 죽음, 고귀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깨우쳐줍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숭고한 그리스도의 죽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목주간(창 3:17-19)

인간에게는 지(知), 정(情), 의(意) 및 관계(關係)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은 예배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간에 친교를 나눕니다. 인간의 자의식(自意識)은 대신관계(對神關係)와 대인관계(對人關係)는 물론, 대물관계(對物關係)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이러한 관계형성은 필수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지구의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하나인 지구는 인간의 비인격적인 자원의 수탈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적인 재앙이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개구리 등 양서류가 사라지고 2050년엔 지구생물의 20~30%가 멸종하며 2080년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물이 사라진다는 기후변화 보고서가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세계 130여 개 국의 과학자 2500명이 6년간 연구한 끝에 발간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970~1990년의 평균기온 대비 2020년대에 섭씨 1도, 2050년대에는 2, 3도, 2080년대에는 3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는 2020년엔 세계인구의 417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3천만 명이 기근에 직면하게 되며, 3.5도 이상 올라갈 2080년엔 최고 32억 명이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인격적인 대물관계 형성 즉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끼리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평화를 통해서 인간성 회복과 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인간성 회복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스러운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은 곧 이와 같은 평화를 얻고자 함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행 1:8)**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시대가 출범되었고, 이때부터 성령이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내주동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님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죄인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게"(고전 6:11) 하셨으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딤후 3:7)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구약성서에 예언된 메시아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창립과 함께 마지막 시대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가든 그 곳은 천국이며,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히 6:4-5)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삶은 우리가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유지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눌 공동식사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신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

### 현충일 예배(요 15:13)

해마다 현충일이 오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마운 분들을 위해 집집마다 조기를 내다 걸고, 관청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국립묘지는 참배객들로 붐비게 됩니다. 참배객 가운데 더러는 자신이 묻혀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 묻힌 동료를 애도하는 이들도 있으며, 그들은 해마다 또는 달마다 또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곱게 핀 꽃송이를 들고 자신을 위해 죽은 동료를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성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았고, 또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고귀하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돌리고자 이 성례에 참여합니다.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 교를 참 믿는 사람은?(고전 1:22-24) - 광복절

1899년의 사회정황을 살필 수 있는 두 개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독립신문』 제4권 197호(1988.8.16)에 실린 다음의 글입니다.

혁파하라신 잡세를 여전히 무는 것은 관장들의 탐학하는 까닭이요, 돈 많은 부자들을 무단히 불효부제(不孝不悵. 효도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함)한다고 잡아가두는 것은 그 부자가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모은 것이 죄가 됨이요, 한 동리 사람은 아무가 불효부제인줄 모르되 먼 데 있는 관찰사와 군수들이 먼저 아는 것은 그 관원들이 다른 탁이 한 문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사야탁(晝思夜度: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림)이 다만 돈 먹을 생각뿐인 고로 동녹슬 밝은 눈이 먼 데 있는 돈구멍을 능히 밝게 봄이라.

이 글은 대원군 몰락 후 민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될 무렵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했었나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시기는 개신교가 들어온 지 십 수 년밖에 되지 아니한 때여서 신자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관리들과 당당히 맞서 싸웠는데, 『대한크리스도인회보』 3-9호(1899.3.1)에 실린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른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해 빼앗기지 아닐 터이니 그 양반의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이 글은 매관매직에 의해서 지방수령으로 발령을 받았던 일부 양반들이 야소교가 있는 마을에는 부임하기를 꺼려했던 현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관리들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한 저항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니까? 악행 하는 자를 심히 불쌍히 여겨 그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죽을지언정 죄만큼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교를 참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한 지사들이 개신교인들 가운데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 광복절 예배(롬 6:6-7, 12-14)

성서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의 억압 속에서, 죄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던 고귀한 지성은 변하여 거짓된 일만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하던 순수한 감성은 변하여 추한 일만을 추구하며, 선악간에 바른 결단을 추구하던 의지는 결박되어 악한 일만을 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여서 죄로 인하여 비인간화된 우리들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일에 관심하며, 옳은 일에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형벌로 죄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풀어 해방 하시어 "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오면, 우리는 지난 36년간 일제 치하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대한국민이 된 일을 축하하며, 다시는 굴욕적인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행사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신앙인답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참 자유를 바로 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계 19:11)

## - 광복절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모든 산맥(山脈)들이/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꿈임없는 광음(光陰)을/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여선 지고/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지금 눈 나리고/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이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白馬)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이육사, 「광야(曠野)」>

오늘은 일제탄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독립한 해방절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가 된 유월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주의 만찬도 사단의 세력인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맞보는 예식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은 스물네 살 되던 해인 1927년 감옥에서 받은 수인번호 264번을 받음 그대로 '땅의 역사'란 뜻의 '육사(陸史)'로 이름을 삼았습니다. 1925년 항일투쟁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 대열에 참여한 이래 40살의 나이로 중국 베이징(北京) 감옥에서 숨질 때까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등지고 중국 등지를 떠돌며 일제에 대한 저항과 조국독립에 대한 희망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광야」입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 시는 분명 태초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한반도 땅과 그 위에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한민족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년 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보았던 환상(비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계 19:11)와 이육사의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白馬)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그 비전과 희망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절의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순교와 부활승천 및 하나님우편보좌영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3-26) -

추석명절

추석명절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그 나라 월력으로 티쉬리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체계가 우리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3년에 두 번 정도는 초막절이 팔월 한가위(추석)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민족의 감사절과 우리 민족의 감사절이 같은 날 달 밝은 밤에 시작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셨던 무교절 전날 밤도 휘영청 보름달이 뜬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춘분이 지난 음력 보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칠일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조상들이 첫 유월절 날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천막생활을 하며 고생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절을 겸한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집 안에다 움막을 만들거나 기성제품을 설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와 같은 창틀에다 만들기도 합니다. 움막을 만든 후에는 각종 채소와 과일 등으로 장식합니다. 우리 민족의 추석명절도 유대인의 초막절과 다를 것이 없는 명절로써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하느님(天)께 감사제를 바쳤던 명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의 만찬은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거듭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입니다. 초막절이 첫 유월절 날에 희생된 양의 피로 인(因)하였듯이 주의 만찬 또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에 희생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친히 부탁하신 것을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매주일 행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시행했던 예배전통일 뿐 아니라, 기독교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배 속에서 재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애의 피날레 부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12:24-25) - 추수감사절

박해석의 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나/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달라고 하지 않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결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한해 농사의 결실은 좋은 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힘겨운 노동과 수고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한 여름 내내 뜨거운 땀별 가운데서 때로는 천둥과 번개와 장대비 쏟아지는 우중에서 쉬지 않고 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흙 속에 묻힌 씨알들이 썩어 희생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풍성한 선교의 결실 또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고통이 배인 사랑의 진한 노동과 씨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음은 곧 나의 나뭇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살을 떡처럼 떼어주셨고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따라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나.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달라고 하지 않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결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만찬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한 감사는 아침에 불과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면 뇌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토록 하십시오.

---

**추수감사절 예배(요 12:24-25)**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확이 있기까지 농부의 힘겨운 노동과 수고가 한 여름 내내 뜨거운 땀별과 장대비 쏟아지는 우중에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점을 압니다. 농부의 노동과 수고는 물론 흙 속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알이 썩어 희생될 때에 더욱 많은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맺어진 풍성한 선교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사랑의 진한 노동과 씨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있었다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 오늘 나의 나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물어져 가는 씨알 되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늘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 종교개혁 기념주일(롬 12:2)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의 하나라고 믿어집니다. 신앙인의 삶은 창조주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선택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존재방식이요, 삶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생각의 개혁, 행동의 개혁, 삶 전체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존재방식입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임재(마태복음 28:20) - 성탄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를 통해서든지 구제를 통해서든지 혹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든지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진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눅 2:14)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분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분의 초림을 축하하는 예배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일잔치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만세 전부터 영존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추도예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분이 과거에 육체로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재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이며, 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가 축하할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는 그 날에 있을 큰 잔치에 대한 예시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구원의 큰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 성탄절 예배(마 28:20)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분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분의 초림을 축하하는 예배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일잔치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만세 전부터 영존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추도예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분이 과거에 육체로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재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이며, 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통전적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가 축하할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는 그 날에 있을 큰 잔치에 대한 예시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구원의 큰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것입니다.

### 송구영신예배(사 53: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수난과 고난은 모든 인류가 치러야 할 온갖 악행에 대한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의 찢림과 상함과 아픔은 이 시간 우리의 죄의식과 뉘우침과 새 삶을 바라보는 결단을 위한 아픔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가슴앓이로 승화되어야겠습니다. 그 때에 비로소 그의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게 되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게 되며, 그가 받은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는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기적을 맞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은 결국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한 해를 아픔을 가지고 돌이켜 보고 밝은 소망의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친국잔치 ■

### 사귄(눅 19:8-9)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의 몸에 동참하는 기념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경험인 동시에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 구원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선취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취와 현재화는 개인의 영적인 구원은 물론이요,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을 포괄하는 구원의 체험인 동시에 온갖 불의, 차별, 분열, 억압 등으로부터 참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불의한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며,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불의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자기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귄의 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 잔치(계 3:20)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서와 바다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써 주의 상과 주의 잔에 참여합니다. 이는 장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계 15:2)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실(계 3:20) 잔치에 대한 선취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은 믿는 성도의 참 자유와 승리와 구원을 축하하는 잔치이며, 그 축복들을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 정의, 평화, 창조보전(창 3:8-20)

인간의 문제는 불화, 소원(疏遠), 반목(反目), 소외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약파기나 혹은 범법으로 인한 수치감이 원인이며,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의 교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관계(對神關係)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세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수치감과 불안과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의 책임회피 때문에 부부관계가 불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영경귀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 관계성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인간끼리의 관계회복, 자연과의 관계회복은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하나님은 이들 삼각관계의 회복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십자가의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친히 부탁하신 주의 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주님과의 식사(계 3:20)

요한 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예배 때의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주의 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그 축복을 미리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하바'(장차올 세계)를 희망하는 유대인의 식탁은 제단에 가깝다. 특히 저녁식사는 매우 종교적이다. 장차올 메시아 왕국에서 먹고 마시게 될 친교의 상징이다. 유대문헌인 에녹1서 62장 14절도 "그리고 인자와 함께 그들이 먹고 자고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신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상징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의 천국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차례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서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친교식사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어질 메시아 만찬(Messianic banquet)은 죽어서 참여할 미래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인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다.

## 주의 만찬의 의미(마 26:26-29)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례입니다. 주의 만찬의 뿌리는 최후의 만찬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후에 민중들과 함께 나누신 나눔의 식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이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며, 성령의 임재를 비는 제사이며,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대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물(對物)관계에서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서로 연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된 화해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종말시대의 상징(살전 4:16-17)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시작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어느 날 홀연히 변하여 영화롭게 될 우리 사이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미 성취된 일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승리를 되돌아보고, 또한 매우 간절한 소망 중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런 왕국으로 들어가시며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선한 일들을 완성하시게 될 시기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종말시대의 상징이며,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확신이며,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 천국잔치(계 3:20-21)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백성들입니다. 천국백성들은 장차 있을 천국잔치에 초대된 복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받아먹고 마실 선민임을 밝혀 주는 말씀입니다.

지상교회에서의 주의 만찬은 장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홍해=세상)를 건너(계 15:2)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실(계 3:20)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신령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자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공고히 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식은 참으로 복되며 성스런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 친교와 헌신(시 23:1-6)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언제나 친교에 대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식탁에 불청객을 받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친교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광야로 도주하다가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천막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가 문이 열린 천막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무언의 애원을 보낼 때, 만약에 천막 안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음식과 빵과 소금을 제공하면 그는 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막 안으로 영접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끝까지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이 돌아서 그를 거절하면 그는 홀로 적을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주고받는 행위는 마음을 주고받는 친교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의 유혹과 생업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활짝 열린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초대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친교의 상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다 함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성도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

### 하나님의 의(요 3:16)

구약성서에 의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위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의로움은 때로 얼룩진 옷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보응을 뜻하기 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자비와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사귀는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태도 곧 그의 백성과의 사귀는 관계를 나타내는 자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자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의 증거가 바로 2,000년 전통을 가진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 희생/수난/대속 ■

## 강아지똥(롬 5:8)

「몽실언니」의 저자인 권정생이 69년에 발표한 「강아지 똥」이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돌이네 흰등이가 누고 간 똥입니다”로 시작되는데, 골목길 담 밑 구석자리에 있는 강아지똥이 바로 앞 소달구지 바퀴자국 가운데 똥굴던 흙덩이의 친구가 됩니다. 참새도 암탉도 모두가 다 더럽다고 “튀튀”하면서 피해가는 강아지똥에게 흙덩이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거야.”

길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치장하는 단비가 축축이 골목길을 적시자 강아지똥 바로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하나 돋았습니다. 자기만은 아무짝에도 쓰일 데 없는 존재라며 슬픔에 잠긴 강아지똥에게 민들레 싹이 말합니다. “네가 거름이 되어 줘야 한단다. 너의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야.”

사흘 동안 내린 봄비에 맞아 강아지똥은 온 몸이 자디잘게 부서졌습니다. 땅속으로 모두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아지똥은 버림받아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저자 자신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정생은 거지로 결핵환자로 교회당 사찰로 67평생을 불행 속에 살아오면서도, 민들레꽃을 위한 강아지똥처럼, 민초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리라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 사흘간 무덤 속에 계실 때 그의 육신은 상하고 부서지고 찢어져 민초들의 구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새 생명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 값진 희생(롬 8:2)

링컨은 어린 시절, 노예시장에서 흑인들이 매매되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모자(母子)노예가 서로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데 노예상인들이 그것을 기어이 떼어내어 엄마와 어린 아들을 따로 따로 끌고 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그 광경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링컨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는 마침내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왔던 노예해방을 위한 법안제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흑인노예들로 인하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특히 미국 남부지역의 농장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흑인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전쟁의 목적이 대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 때문이었지만 미국의 남북전쟁만큼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자는 목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입니까?

그 당시 미국 남부사회에서 흑인노예들은 짐승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백인 여성들이 흑인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속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왜? 짐승이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흑인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며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노예해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마침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때까지 링컨이 겪었던 고뇌와 진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황효식, “노무현과 링컨의 차이점”(2004/11/18 [09:13] ©뉴스파워)]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놓은 채 치르신 하나님의 고통과 전쟁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가장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링컨에 대해서 갖는 감사함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우리들의 감사함이 훨씬 더 컸으면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히브리서 13장 12-1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걸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수치와 능욕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걸머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하였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고난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랑스런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민화가 있는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봉사(눅 9:23-24)**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사로잡힌 인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분은 또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 우리 자신의 생활에만 집착하면 상실될 것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져 주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로 자기를 잃으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순간이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우리가 봉사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전통과 인습과 세속문화의 부르조아적 물질주의에 대한 이기적 적응으로부터 참으로 구출 받지 않는 한 기존의 태도를 비판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에 분개하며, 우리가 이기심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고 참 삶의 길을 되새겨 봅시다.

### 성육신(빌 2:5-8)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높고 존귀한 곳에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버림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끝내는 자신도 버림을 당하여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에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으며, 죄인을 처벌하시는 분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의와 진노의 하나님에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계시 하셨으며, 행복한 삶의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인간과의 진정한 사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동참하게 됩니다.

### 고난(히 13:12-13)

히브리서 13장 12-1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수치와 능욕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뎌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내게 주어진 능욕을 먹고 마시며, 또한 타자의 고난의 잔에 동참한다는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유대인들이 저녁 희생제사를 바치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안수하여 인간의 죄를 전가시킨 양을 잡아 희생제사로 바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양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시간도 이 기도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도한 시간들이 이들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날 밤에 밤새도록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체사장들인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12시에서 3시경 사이에, 70인 공회원들 앞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4시경에 한번, 헤롯 안디바 앞에서 5시경에, 다시 빌라도 총독과 군중 앞에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심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곧바로 옷이 벗겨지고 두 손목이 낮은 기둥에 묶인 후에 등에 흉기가 매달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힘겹게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경부터는 온 누리가 캄캄하여 졌습니다.) 오후 3시경 유대인들이 희생양을 바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목제물로써 운명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1:12)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란 생각은 고통을 잊고 삶을 포기하고픈 사람에게 한방 놓아주는 마약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범신론과 진화론에 근거한 그럴싸한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란 말이 맞는 경우는 영혼을 부정한 육체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이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오른 곳이 바로 하늘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를 비롯한 전쟁영웅들이 도달한 곳은 지하 음부의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신의 자녀와 인간의 자녀의 끝이 다른 점입니다. 신의 아들이었던 헤라클레스는 믿음으로 살았고, 신전에 올라 신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전쟁영웅 알렉산드로스는 죽을 때 '비통의 강' 뱃사공 카론에게 건네줄 엽전 한 닢을 들고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 사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 십자가(히 10:10-18)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양을 취하여 자신들이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피를 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곧 죄값을 의미합니다. 흠 없는 어린양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매일 대신 죽어 갔습니다. 이 어린양들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원수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받쳐진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던 희생제사가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그 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희생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1:29)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만찬을 필요로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죄의식으로 답답할 때, 우리에게 목숨까지라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다시 한 번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 십자가(롬 3:26)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동시에, 인간에게는 구원과 용서의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사건인 동시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수치와 고난의 표지이며,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화해의 표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칭의(稱義)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과 질고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해방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축하하는 잔치가 바로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 성취(히 11:1-2)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은 인류에게 무한한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인간과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며, 자연과 더불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성서는 이 나라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히 11:1).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 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23-24)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주의 만찬 예식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속의 원리와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북스런 것이요 어리석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천상의 영광과 권세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상을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과 지혜가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있지 아니하고,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섬기는데서 비롯되지, 높아지고 지배하는데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만족한 삶을 보장하는 보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

제구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람어로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려 어느 한 곳 의지 할 곳이 없어서 나무에 매어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독한 외마디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독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독과 고통에 짓눌려 기도할 수 없을 때, “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쳤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김남조 시인은 “생명”은 매서운 추위의 면뚫날로 제 몸을 다듬고,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잉태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기 위한 처절하고 고독한 수행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고 난 후에 찾아올 생명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고독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결코 마지막 코스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야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이 십자가는 생명을 잉태기 위한 죽음의 수행일 뿐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빌 2:5-8)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 인간의 현실주의는 언제나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당장 쓸모 있는 것만을 추구한다. 예수님 당시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원했던 것도 빵을 위한 표적과 기적뿐이었다. 장님은 눈뜨기를 바라고, 앓은뱅이는 걷기를 바라며, 병어리는 말하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그의 민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사랑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 비움, 겸손, 용서의 삶을 가르치셨고, 유대교의 진노의 신을 기독교의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신앙은 예수님의 존재방식을 수련하는 구도의 길이며, '타자를 위해 사신 한 인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살았던 타자를 위한 인간이셨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타자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 예수님의 삶의 방식(빌 2:5-8)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인간의 현실주의는 언제나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당장 쓸모 있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도 빵을 얻기 위한 표적과 기적뿐이었습니다. 장님은 눈뜨기를 바라고, 앓은 병이는 걷기를 바라며, 병어리는 말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그의 민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사랑으로써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 비움, 겸손, 용서의 삶을 가르치셨고, 유대교의 진노의 하나님을 기독교의 사랑과 자기희생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존재방식을 수련하는 구도(求道)의 길이며, 남을 위해 사신 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고, 남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만물의 존재는 죽기 위한 것이다.’라는 엔트로피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죽음이란 목표를 향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남을 살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의 만찬은 죽음심을 기념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생(거듭남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 예수님의 운명 시간(마 27:45-46)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아침 9시에 한번, 정오에 한번,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기도하였습니다. 오후 3시는 기도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바로 아침 9시 기도시간이었으며, 해가 빛을 잃고 세 시간 동안의 흑암 속에 들어갔던 시간도 기도시간인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바로 저녁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인류의 죄 값을 대신 하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전가 받아 어린양이 희생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자기 낮춤(빌 2:5-11)

피조물의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 오만(Hybris)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과 맞장 뜨려한 죄가 가장 큰 죄이자 가장 원초적인 죄입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인간이 되고자 한 겸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인간과 동일시한 자기포기가 가장 큰 은총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맛보게 하신 은총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낮아짐의 행위에 참여자로서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자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사역자임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로 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변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 떡을

---

### 자기부정(빌 2:5-8)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성육신(成肉身)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은 자기부정과 동료의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취하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기득권(既得權)의 포기였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기득권자의 현상유지나 이익추구에 의연히 맞서 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층민중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과 일체감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또 스스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참회의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도 당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위로 하나님과 좌우로 두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자기부정과 인간과의 연대의식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은 성육신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 자기 비움(빌 2:5-11)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이 봄에는 꽃의 탐스러움과 여름에는 잎의 시원함과 가을에는 오크백과의 넉넉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을 봅니다. 이 늦은 가을 자연은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여 몸에 지녔던 수분을 빼버리면서 너울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수 없는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붙어사는 담쟁이조차도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얻은 귀한 잎들을 떨구어 버립니다. 겨울을 이기는 지혜는 진실로 자신을 비우는데 그 비결이 있음을 자연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거두어진 들녘이 황량하기보다는 뿌듯하고, 앙상한 몸을 드러내는 나무들이 처량하기보다는 붉은 빛을 발하고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에 빛이 되신 뜻을 전하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한파를 이기는 지혜가 자신을 비우는데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비결 또한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만백성의 주(主)가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자기 십자가(눅 9:23)

복음서에 나타난 몇 개의 성경 구절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상황을 연결해 볼 때, 복음서 기자들이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19:17)고 말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마 16:24; 막 8:34; 눅 9:23)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날마다"라는 낱말을 덧붙여 쓰고 있고,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의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당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했던 십자가는 이와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신앙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복음서 기자들은 과감하게 이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수치와 죽음의 표지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명예와 권세와 지배와 부유함의 표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

### 창조와 부활(창 1:1)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만이 아니라, 재 창조와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다. 성서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에서 유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란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흑암에서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주의 날에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몸 대신 영화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과 타락하고 부패한 우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날에 정복될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승리와 생명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 피(히 9:11-22)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대략 4리터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 삼분의 일 정도를 잃게 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고나 혹은 병으로 인해서 몸에 피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의 몸의 피를 나누어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에이즈로 인해서 수혈을 받은 죄 없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이 사망의 수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헌혈보다는 매혈 즉 돈을 받고 피를 판매한 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팔기 때문입니다. 헌혈의 부족이 매혈에 의존도를 높이고 있고, 따라서 에이즈 감염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는 보배로운 피요, 목숨을 살리는 피입니다. 이 피를 받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참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성스런 예전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 화목제물(요일 4:10)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로 인한 구속을 믿는 인간들의 범한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를 벌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범한 인간들이 모두 멸망 받기를 원치 아니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진노를 푸시고 원수된 죄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친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인간이 마련한 희생제물을 뜻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화목제물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지역사회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실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 5:17-20).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희생(1)(마 5:13-16)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 불을 밝히고,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 맛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삶은 정과 육의 삶이 죽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아침에도 단위에 놓인 초는 불안한 삶의 어둠 속에서 밝은 길을 보게 하신 일과 이 어둠 속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례는 바로 십자가의 삶이 자신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불살라 가며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빛과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

## 희생(2)(롬 12:1-2)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기념행위는 과거의 슬프고 기뻐했던 일을 돌이켜 회고하는 일도 고인이 된 위대한 인물의 눈부신 업적을 추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상기할 때 그들도 동일한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미 침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거듭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거듭 새롭게 촉구할 뿐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모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